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

# 외국의 선거방송토론 사례 연구

2011. 9

# 외국의 선거방송 사례 연구

책임연구자 이상철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범기수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공동연구자 박태순 (미디어로드)  
최영돈 (서울 시립대학교)  
보조연구자 김해훈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 목 차

<b>제1부 2008년 미국 텔레비전 선거방송 토론 분석</b> .....	<b>이상철</b>
1. 서론	
선거, 민주주의 그리고 미디어: 선거방송토론의 정치적 기능 .....	1
2.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	5
3. 2008 대통령 후보자 선거방송토론 제도와 개요 .....	7
1) 주관단체 .....	7
2) 후보 참여 기준 .....	7
3) 미국 2008년 대통령 선거방송토론 개요 .....	9
4)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주요 쟁점 .....	10
4.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1차 토론 .....	11
1) 각 진영 후보 토론 준비 및 사전 전략 .....	11
2) 토론 형식 .....	12
3) 토론 사회자와 질문 내용 .....	13
4) 토론 내용: 수사적 전략 분석 .....	13
(1) 국내 정책 공방: 경제위기 .....	14
(2) 외교와 국방 정책 .....	16
(3) 1차 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와 효과 .....	19
5.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2차 토론 .....	20
1) 각 진영 후보 토론 준비 및 사전 전략 .....	20
2) 토론 형식 .....	21
3) 토론 사회자와 질문 내용 .....	21
4) 토론 내용: 수사적 전략 분석 .....	22
(1) 시민 논객들의 질의 그리고 ‘저 사람(that on)’ .....	24
(2) 외교와 국방 정책: 오바마의 대응 .....	26
5) 2차 토론 평가 .....	28
6.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3차 토론 .....	29
1) 각 진영 후보 토론 준비 및 사전 전략 .....	29
2) 토론 형식, 사회자, 질문 내용 .....	29

3) 3차 토론 내용과 수사학적 전략 분석 .....	30
(1) 양 후보자 서민 동일시 전략: 배관공 조 토론 .....	31
(2) 맥케인의 공세 .....	33
(3) 3차 토론 평가 .....	35
7. 부통령 후보 선거방송토론 .....	36
1) 사회자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 .....	37
2) 양 후보의 공약과 대응 전략 .....	37
8. 군소 정당 후보 토론 .....	38
9. 논의 및 결론 .....	40
참고문헌 .....	41

**제2부 2010년 영국 총선 텔레비전 토론 분석 ..... 범기수**

1. 서론 .....	44
2. 영국의 미디어 정치와 TV토론 .....	45
3. 영국정치상황 개괄 .....	46
1) 주요 정당의 유래와 정치적 성향 .....	47
2) 2010 영국총선 정당 공약 .....	48
4. 2010 영국총선 TV토론 진행방식 .....	49
1) 토론 참여 당수 .....	49
2) 주최 .....	49
3) 토론 형식 .....	50
4) 청중 .....	50
5) 질문유형 .....	50
6) 질문 선택과정 .....	50
5. TV토론 프로그램 관련 법규 및 세부규칙 .....	51
1) 선거 관련 영국 방송 프로그램 법규 .....	51
2) TV토론 프로그램 세부규칙(Prime Ministerial Debates - Programme Format) .....	56
(1) 청중선정 .....	56
(2) 청중의 역할 .....	57
(3) 프로그램의 구조 .....	58

(4) 진행자의 역할 .....	59
(5) 토론 주제 .....	60
(6) 세트 .....	60
(7) 청중 장면전환 .....	60
(8) 질문선정패널 .....	61
6. 영국총선 TV토론 진행방식의 특이점 .....	62
1) 토론자간 자유토론 방식의 결합 .....	62
2) 타운홀 방식의 결합 .....	62
3) 토론자 스탠딩 형식 .....	63
4) 카메라 테크닉과 영상화면 구성 .....	63
7. TV토론 시청률 .....	65
8. 토론 분석 .....	65
1) 1차 토론 (First prime ministerial debate 15 April 2010) 분석 .....	65
2) 2차 토론 (Second prime ministerial debate 22 April 2010) 분석 .....	75
3) 3번째 토론 (Final prime ministerial debate 29 April 2010) 분석 .....	82
9. 결론 .....	89
참고문헌 .....	91

**제3부 2007 프랑스 텔레비전 선거방송 토론 분석 ..... 박태순**

1. 프랑스 선거방송토론 제도 및 역사 .....	94
1) 선거 방송토론의 정치적 의미 .....	96
2) 대통령 후보 TV 방송토론의 역사 .....	96
(1) 1974년 지스가르 데스탱과 프랑스와 미테랑의 토론 .....	97
(2) 1981년 지스까르 데스탱과 프랑스와 미테랑의 토론 .....	98
(3) 1988년 4월 28일 토론 프랑스와 미테랑과 자끄 시락(Jacques Chirac)의 토론 .....	99
(4) 1995년 자끄 시락과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의 토론 .....	100
2.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방송토론 .....	100
1) 2007년 선거 과정 .....	100
2) 방송 토론 과정 .....	103
(1) 방송토론 준비 .....	103
(2) 토론장 .....	105
(3) 방송 준수사항 .....	105
(4) 사회자 선정 .....	106
(5) 방송 중계 .....	106

2) 토론 진행 및 내용 .....	106
(1) 토론 진행 및 의제 .....	106
(2) 토론 내용 및 쟁점 .....	108
① 제 1 주제 토론 쟁점 및 분석:	
대통령, 권력 그리고 정부 개혁 .....	108
② 제 2 주제 토론 쟁점 및 분석:	
경제·실업 및 주 35시간 근무 .....	110
③ 제 3 주제 토론 쟁점 및 분석: 교육, 가족, 연구, 문화 및 환경 등	
제반적인 사회공동체의 문제 .....	111
④ 유럽과 국제관계 .....	113
3. 토론 결과 및 정치 커뮤니케이션적 의미 .....	115
1) 두 후보의 토론 평가 및 결과 .....	115
2) 2007년 대통령 토론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적 의미 .....	118
4. 결론 .....	119
참고문헌 .....	121

**제4부 독일의 선거방송토론 ..... 최영돈**

1. 서론 .....	122
1) 들어가기 .....	122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3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23
2. 통독 이전의 선거방송토론(1969-1998) .....	125
1) 들어가기 .....	125
2) 1960년대: 태동단계 .....	126
3) 1970-80년대: 발전단계 .....	128
4) 1990년대: 휴지단계 .....	133
5) 선거방송토론 거부사례 .....	133
3. 통독 이후의 선거방송토론(2002-2009) .....	138
1) 들어가기 .....	138
2)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	139
3) 자민당의 법정소송 .....	139
(1) 사건발단의 연대기적 개괄 .....	140
(2) 정당과 공영방송사의 법적 권리 및 법원의 유권해석 .....	141
(3) 법원의 유권해석에 대한 학계의 시각 .....	144

4) 수상토론위원회 .....	146
5) 2002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	148
(1) 개최현황 .....	148
(2) 수상토론위원회 공식평가 .....	150
6) 2005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	152
(1) 개최현황 .....	152
(2) 수상토론위원회 공식평가 .....	153
7) 2009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	154
(1) 들어가기 .....	154
(2) 개최현황 .....	155
(3) 진행순서에 의한 주제별 주요 내용 .....	157
(4) 여론조사 결과 및 언론평가 .....	165
(5) 수상토론위원회 공식평가 .....	168
8) 2009년 소수 정당대표 3인 TV토론 .....	170
4. 결론: 제언 .....	174
참고문헌 .....	177

“본 보고서는 2011년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발간 되었습니다.“



## 제1부 2008년 미국 텔레비전 선거방송 토론 분석

이상철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 1. 서론

현대 선거 캠페인에서 텔레비전의 중요성과 역할은 증대되어 왔다. 텔레비전의 역할은 정치 캠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현대 민주주의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의 본질을 변형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출마 선언, 대중 유세, 당내 경선, 전당대회 등 정당이 수행해온 선거 캠페인의 역할을 매스미디어가 그 역할의 중요한 부분을 대신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은 선거 캠페인의 형태를 변형하며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인물을 상호 비교하며 공동체 의제에 있어 가치 있는 정보를 얻고, 후보자는 공동체를 위해 집권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다.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이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후보자들의 토론내용에 대한 연구와 현대 민주주의의 제도로서 선거방송토론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텔레비전 선거 방송토론의 진행과정은 선거 텔레비전 토론의 형식, 주최자 선정문제, 참여 후보 범위, 후보 대결 방식 및 토론의 횟수, 시기, 시간, 장소, 토론 주제, 사회자와 패널리스트 선정 및 역할, 시민의 참여와 역할, 텔레비전 중계와 기술적 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술적 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에서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 선거, 민주주의 그리고 미디어: 텔레비전의 선거방송토론의 정치적 기능

매스 미디어 발전 이전 선거 토론이 정치 캠페인 제도로서 정착이 가능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첫째 참정권의 확대이다. 근대 민주정이 발달과 유권자들의 참정권 확대는 정치 후보자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선거 토론을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선택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19세기말 운송 기술의 발달은 선거 캠페인의 과정과 형태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20세기 들어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현대 선거 캠페인의 본질을 변형시키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확산된 텔레비전 매체로

인해 현대 선거 캠페인은 20세기 초반의 정치 캠페인과는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다. 셋째, 수사적 상황의 변형과 확산이다(Jamieson, 1988; Tulis, 1987). 참정권과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선거 캠페인에 있어 현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자주 자신의 정견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다양한 수사적 상황이 확산되었다. 미디어 발전 이전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에 당선 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의회와의 정치적 협상이 중요한 업무였다. 그러나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대통령은 정치·사회적 의제와 현안들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해야 하는 기회가 늘어났고 이러한 홍보 기능은 현대 대통령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수사적 상황의 확대의 일부이다. 미디어의 발전은 선거 캠페인에 있어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이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그동안 텔레비전 선거 방송토론에 대한 역사나 포맷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정치·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Joslyn, 1990). 텔레비전 선거 방송토론의 특성을 논의함으로써 선거방송토론이 정치·사회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선거방송토론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은 민주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한다.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들에게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하고 정치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선거 캠페인이라는 의례의 한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출마선언, 대중 유세, 광고, 기자회견, 당내 경선, 전당 대회 등과 함께 선거 캠페인의 중요한 제도가 되었다.

특히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대통령 후보자들은 자신의 정책을 타 후보자와 비교·대조하며 유권자들로부터 차기 정권의 정책 방향을 선택받음으로서 집권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받게 된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언론이나 선거 대변인을 통한 간접적 메시지보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더 많이 얻게 되며 후보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거 방송토론은 선거 캠페인 중 단일형태로선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캠페인 이벤트로서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확산으로 볼 수 있다. 지난 30-40년 간 미국 대선 방송토론은 한 회당 평균 5-6천만이 넘는 시청자들을 끌어 들였으며 2008년 대선 방송토론은 5천 5백만에서 6천 5백만 시청자들이

대선 토론을 지켜보았다 (Kenski, 2005, Stroud & Stephens 2011).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은 유권자에게 공동체의 우선적인 정책 쟁점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장을 제공하며 의제 설정 기능을 하게 된다 (Benoit, 2003; Lang & Lang, 1962). 나아가 선거방송토론 이후 선거 캠페인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체적인 선거 운동에 관한 언론 보도의 의제 설정을 강화하기도 한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며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한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후보자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후보자의 성격, 배경, 행적은 물론 개인적 이미지와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정치 지도력,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Hellweg, et. al. 1992; Kraus, 2000). 특히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에 뒤이은 언론 보도는 유권자들이 가지게 된 후보자들의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의 정책보다 자신의 정책이 낫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 후보 보다 자신이 국가를 더 잘 경영하는 능력과 행정부 수행 능력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는 후보자나 여론 조사에서 뒤지는 후보자에게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이 반전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유권자들은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정치·사회적 현안들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되는 교육 효과를 부수적으로 갖게 되기도 한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정치·사회적 현안들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을 선거 캠페인에 관심을 갖게 하며 무관심 유권자들을 적극적 유권자로 전환한다. 이때 사회자나 패널들이 진부한 질문을 한다거나 유권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을 충분히 해주지 못한다면 혹은 후보자가 충분히 답해 주지 않는다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후보자의 지지층을 확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얘기에 관심을 가지며 호의적으로 평가하려 한다. 자신의 정책 선호도에 입각하여 지지 후보자의 정책과 일치하려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를 후보자와의 ‘선유경향’ 혹은 ‘밀착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시기상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경우 방송토론은 당락의 분수령이 되기도 한다. 선거 해당 년도 2월 중순 아이오와 예비 선거를 시작으로 8월까지 치러지는 예비 선거에서 이긴 각 당의 후보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공식 후보로 지명되면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대통령 후보 토론대회를 3회에 걸쳐 열게 된다. 2008년 대통령 선거 예선 3차례 후보 토론이 열렸다. 2월에서 8월에 걸친 각 당 예비선거는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면 8월에 열린 전당대회는 출정식과도 같은 것이며 이어 열리는 토론은 선거 캠페인의 최대 격전장이다. 선거 토론을 통해 열세 후보는 선두 탈환을 하기도 하고 우세 후보는 승리 굳히기의 분수령이 되기도 한다. 선거 토론은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벌어질 대선 승리의 정치적 이정표이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부동층을 움직이며 제한적이거나 지지층의 이동을 가져온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선유경향 혹은 밀착 효과를 강화하기 때문에 지지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여론 조사 전문 기관 엘모 포스터(Elmo Poster)는 평균 3-6%의 지지율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Trent & Friedenber, 2000). 두 입장 모두 지나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가 접전일 경우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이 당락을 결정한다. 박빙의 승부일수록 선거토론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여론조사에서 뒤지는 후보가 선거방송토론을 통해 역전을 하는 기회를 가진 대표적인 경우가 1960년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이었으며 박빙의 승부에서 텔레비전 방송토론이 승패를 좌우한 대표적 예는 2000년 알 고어와 조지 부시의 토론이었다. 1960년 당시 부통령인 닉슨은 토론을 열기 전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나타내었지만 선거방송토론에서 케네디에게 패배함으로써 선거에서 근소한 차로 낙선하게 된다. 물론 선거방송토론에서 잘했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2000년 대선도 부시와 고어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2월에서 11월까지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후보는 근소한 차로 앞서기도 하고 뒤지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토론이 벌어지기 1-2주전 고어가 각종 여론 조사에서 부시를 1%-5%까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토론은 고어로서는 굳히기의 기회였으며 부시에겐 역전의 기회였다. 2000년 대선 방송토론에서는 부시가 기회를 잡았다.

대선 방송토론이 있기 전 이미 각 후보자마다 극렬 지지자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토론의 결과로 인해 이들이 결정을 바꾸는 경우는 힘들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이내의 접전인 경우엔 상황은 달라진다. 때론 적게는 1-3% 많게는 3%-5% 정도의 시청자들이 토론을 시청한 이후 후보 선택에 있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1-3%라는 수는 퍼센트로 표현될 땐 적은 수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대 대통령 선거는 5%이내의 접전인 경우가 허다하다. 선거 유세 동안 5%의 유권자들을 더 확보한다면 그 선거는 이미 이긴 선거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는 유세기간 동안 1%-5%의 유권자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며 그 지지표를 바탕으로 부동층 표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이때 부동층(浮動層)이란 표현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부동층이 아니라 가동층(可動層)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가동층 표의 이동 현상을 두고 영어는 '스윙 유권자(swing voters)'라 하며 우리말 표현은 지렛대 유권자들이라는 것이 적당하다. '가'후보 지지 유권자의 1%가 '나'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가'와 '나'의 차이는 2%가 되는 것으로 박빙의 선거에 있어 지렛대 유권자의 향방은 승패를 좌우한다. 박빙의 승부일수록 가동층 유

권자들이 선거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며 ‘가동층’ 유권자들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옅어진다. 가동층 유권자들이 후보를 결정하는 시기가 토론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선 토론은 승리의 분수령이다. 위와 같이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민주적 정치 과정과 제도
2. 숙의민주주의의 확대
3.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단일 형태로선 최대의 선거 캠페인 이벤트
4. 합법성과 정당성 확보: 차기 정권의 정책 방향 제시
5. 의제 설정
6. 능력과 자질 검증
7. 이미지 형성
8. 선유경향 혹은 밀착 효과
9. 유권자 교육 효과
10. 당락의 분수령

## 2. 선거방송토론 연구의 다양한 관점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캠페인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 하였다 (Birdsell, 1988; Schroeder, 2000; Trent & Friedenberg, 2000).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방송토론은 다른 단일 선거 이벤트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Kaid, Mckinney, & Tedsco, 2000; Natalie, 2011). 정치학자 토머스 패터슨은 단일 형태로 다른 어떤 선거 형태보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유권자들 간의 토론을 활성화하며 칼린은 선거 캠페인에 있어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Patterson, 2002; Carlin, 1992). 아우어(Auer, 1962; 1981)와 비처와 로이터(Bitzer & Reuter, 1980)가 선거방송토론은 ‘진정한 토론(true debate)’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듯이 내용 보다 이미지에 의한 후보자의 선택이라는 역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선거 캠페인 과정을 발전시킨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상철, 2002; Joslyn, 1990; Kraus, 2000).

미국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이론과 관점들은 다양하다 (Becker & Kraus, 1978; Kraus, 2000, Kenski & Jamieson, 2011). 선거방송토론을 분석하기 위해 숙의 민주주의 이론 (Joslyn, 1990, Mckinney, 2005), 의제 설정 기능 (Benoit & Hansen, 2004; Kaid, et al., 2000), 이용과 충족 이론 (Sears & Chaffee, 1979), 강화 이론 (Kenski, 2005; Pfau, 1987), 후보자 이미지 효과 이론(이준용, 2003; Mckinney &

Mitchell, 2005) 등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리고 분석 대상으로는 정치 사회적 제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는 광범위한 접근이 있는 한편 유권자의 인지나 행동의 효과 측정 방법은 물론 토론의 언어적 비언어적 요인을 내용분석 하기도 한다. 미국 대통령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과 관련된 연구들은 텔레비전 토론의 형식이나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나 태도 그리고 최종적인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과 접근들을 벗어나 수사적 공격과 방어에 대한 연구나 토론 형식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Bonit, 2001; Benoit & Hansen, 2004).

비슷한 관점에서 레토릭 평론가들은 정치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을 하며 사회과학적 분석보다 인문학적 평론을 선호하고 있다(Hellweg, Pfau, Brydon, 1992; Jamieson & Birdsell, 1988). 내용 분석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는 후보자들은 텔레비전 토론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상대방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하며 이미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에서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의 공약으로부터 자신의 정책과 인물을 최대한 방어하며 상대 후보의 단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Friedenberg, 1997; Benoit,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의 정치 캠페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와 성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사상의 시장에서 서로 다른 견해와 사상이 벌이는 합리적인 충돌을 통한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겨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은 후보자들의 정치적인 견해와 의견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Carlin, 1992; Kaid, 2004). 각 토론회의 텍스트 분석을 통한 수사학적 접근은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선거방송토론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먼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의 제도적 형식과 절차를 살펴보고 각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200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토론 주최자, 참여 후보의 범위, 후보대결방식 및 토론의 횟수, 시기, 시간, 장소, 토론주제 및 질문방식, 사회자와 질문자의 선정 및 역할, 유권자의 참여와 역할등과 같은 텔레비전 방송 토론의 형식과 진행 절차 등을 서술한다. 둘째, 1, 2, 3차에 걸친 각 후보자의 토론 내용 분석을 통해 수사학적 전략을 논평한다. 셋째,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의 효과와 정치사회적 기능에 대해 논의한다.

### 3. 2008 대통령 후보자 선거방송토론 제도와 개요

#### 1) 주관 단체

1976년, 1980년, 1984년 대통령 선거 방송토론은 미국 여성 유권자 연맹이 주최하였으나 여성 유권자 연맹 주최의 토론 단점을 비판하는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와 민주당 마이클 듀카키스 진영과의 불화로 여성 유권자 연맹은 주최를 철회한다. 1987년 비영리기관인 대통령 토론위원회(Commission on the Presidential Debates: 이하 CPD)가 구성된다. 대통령 토론위원회는 공화당 전국위원장인 플랭크 파렌 코프(Frank Fahrenkopf)와 민주당 전국위원장인 폴 키크 (Paul Kirk)가 공동 회장으로 선임되고 양당의 상하원의원, 미국 전직 대통령으로 구성된 10인의 이사진과 50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였다. 1988년 대선에서는 16장의 토론 합의 각서를 작성하고 토론의 형식과 절차 그리고 사회자와 패널 선정에 합의하고 포디움 높이 까지 합의하기에 이른다. 이에 여성 유권자 연맹은 “양당의 전략가들이 토론의 형식은 물론 질문의 방식과 카메라 앵글까지 조작한다”며 “양당은 미국의 유권자에 사기를 범하고 있다”며 비방한다(Kraus, 2000). 그러나 이후 1988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6회에 걸쳐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진보 시민 단체들은 2004년 시민토론위원회(CDC: Citizen Debate Commission)를 결성하여 양당의 통제 하에 있으며 두 후보자만 초청하는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며 군소 후보자들의 선거방송토론 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으나 2004년과 2008년 군소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2) 후보 참여 기준

미국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에 있어 군소후보자들의 참여 문제로 논란이 자주 일어난다. 1980년, 주관 단체인 미국의 여성유권자 연맹은 지지도가 15%를 넘나드는 무소속의 앤더슨 후보를 포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현직 대통령 후보인 카터가 거부한다. 이후 레이건 후보와 앤더슨 후보간의 토론이 열렸으나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후에 앤더슨의 지지도가 15% 미만으로 떨어져 카터와 레이건 두 사람만의 토론이 성사되었다. 1992년 대선에서 제 3의 후보 로스 페로가 지지를 얻자 CPD는 토론에 초청하는 후보로 다섯 개 이상의 전국 여론 조사 기관에서 15%의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는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3자 후보 토론이 열리게 되었다(Kraus, 2000). 2000년 대선에서는 제3의 후보 소비자운동가이며 랄프 네이더가 초청에서 제외되자 토론회가 열리는 방송사 밖에서 항

의 시위를 벌이다 체포되었다. 네이더는 연방 법원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한다. 2004년 대선에서도 녹색당 후보자 데이비드 코브, 자유주의자당 후보 마이클 배드나딕이 항의하며 경찰의 저지선을 넘다 체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대선에서는 군소후보자들의 직접적인 격렬한 항의가 없었으며 군소 후보자들은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를 2회에 걸쳐 치르게 되며 두 번째 토론회는 c-span이 중계하였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군소 후보들에게도 표현의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다.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너무 많다. 이들 모두에게 전파를 허용해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특히 극소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나 특정 이익 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후보들에게 전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너무 많은 후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중계 상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초청 범위에 대해 각대선 때마다 토론위원회를 통한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여론지지 15% 이상 후보자 초청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시민토론회위원회는 5%이상 혹은 여론 조사에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후보자로 초청기준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론의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2008년 대선에서는 15% 이상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간에 3회에 걸친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1회에 걸쳐 부통령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다.



3) 미국 2008년 대통령 선거방송 토론 개요

<표 1>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방송토론 개요표

	회차	일시	장소	개최 도시	시간	후원	참가후보자	사회자/질의자	주제	시청자수	토론형식
2008년 대선	제 1차 토론 회	08. 09.26	미시시피대학	옥스퍼드 미시시피주	(동부 시각) 21:00-22:30	대통령 토론 위원회	맥 케인 후보 (McCain, 공화당) 버락 오바마 (Barak H. Obama, 민주당)	레러 (Jim Lehrer, PBS)	외교/국방/경제 위기	5천2백4십만명	90분간 연설대에 서서 발언 각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2분) 각 후보자 사회자와 후보자간 5분간 자유 토론 모두발언/마무리 발언시간 없음
	제 2차 토론 회	08. 10.7	벨몬트 대학	내쉬빌 테네시주 샌디에고	(동부 시각) 21:00-22:30	대통령 토론 위원회	맥 케인 후보 (McCain, 공화당) 버락 오바마 (Barak H. Obama, 민주당)	톰 브로커 (Tom Brokaw NBC)/ 80명의 중립적인 유권자들	모든 주제/사회자 온라인 시민 질의 선정	6천3백2십만명	시민포럼형(Town Hall Meeting), 연단 및 스테이지에서 서서 발언 각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2분) 답변 후 각 후보자간 1분간 자유 발언 모두발언/마무리 발언시간 없음
	제 3차 토론 회	08. 10.15	홉스트라대학	롱 아일랜드 뉴욕주	(동부 시각) 21:00-22:30	대통령 토론 위원회	맥 케인 후보 (McCain, 공화당) 버락 오바마 (Barak H. Obama, 민주당)	밥 쉬퍼 (Bob Sheiffer, CBS)	경제/국내 정책	5천2백5십만명	90분간 좌석에 앉아서 발언 각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2분) 각 후보자 사회자와 후보자간 5분간 자유 토론 마무리발언
2008년 대선 부통령 후보자 토론	제 1차 토론 회	08. 10.2	워싱턴 대학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	(동부 시각) 21:00-22:30	대통령 토론 위원회	조 바이든 (Joseph Biden, 민주당) 새라 패일린 (Sarah Pailin 공화당)	그윈 아이필 (Gwyn Iffil, PBS)	모든 주제	6천9백9십만명	90분간 연설대에 서서 발언 모두발언(2분) 각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 (1분 30초) 각 후보자간 2분간 자유 토론 마무리발언(1분30초)

(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s: <http://debates.org> 참조)

#### 4)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주요 쟁점

2008년 선거방송 토론에서 후보자들은 어떠한 전략과 수사적 기법으로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선거의 주요 쟁점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미국 금융 위기: 2008년 초부터 악화되어가던 미국의 부동산과 금융 위기는 1930년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를 가장 위험g나 수준으로 떨어뜨리며 2008년 대선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시작한 미국의 금융 위기는 9월에 들어와 더욱 악화일로를 걷다가 1차 토론이 있기 10여일 전인 9월 15일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회사가 파산 선고를 공표하면서 미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었다. 1차 토론 전후로 부시 행정부가 7천억 달러(800조원)의 구제 금융을 월스트리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1차 토론이 끝난 후 9월 말 미국 상하원은 구제금융 법안을 승인하였으나 미국 경제의 앞날은 암울하였다.

(2) 부시의 인기 하락: 2008년 들어와 현직대통령이었던 부시의 인기가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었으며 부시는 공화당 캠페인 초반 맥 케인 지지를 천명하였으나 부시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이유로 맥케인 유세에는 한 번도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맥케인이 부시 정부가 제안한 법안에 90% 이상 찬성하였다고 공약하고 있었다. 오바마측은 자신의 단점으로 거론되던 경륜 부족에 대한 우려 보다 맥케인이 부시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더 큰 변수라며 유세를 펼치고 있었다.

(3) 이라크 전쟁: 토론을 통해 미국의 재정 위기와 함께 이라크 전쟁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미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이라크 전쟁에 대한 오바마 후보는 애초에 반대를 했으며 반면 맥케인 후보는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였다. 맥케인은 이라크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오바마 후보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강력한 반대로 민주당 경선에서 표를 얻었듯이 반대 입장을 강조할 것이었다.

(4) 캠페인 슬로건과 이미지: 오바마의 '변화'대 맥케인의 '경륜'. 오바마는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부터 '변화'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경륜을 앞세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긴 바 있으며 경륜과 도덕성을 앞세운 맥케인 후보에게도 '워싱턴은 변해야 한다(Washington must change)' '필요한 건 변화(Change we need)'라는 슬로건을 앞세우며 유세를 펼치고 있었다. 맥케인도 '변화'라는 슬로건을 선거 중반부부터 앞세웠지만 유권자들은 맥케인의 장점으로 경륜을 먼저 인식하고 있었다.

(5) 공식 초청 토론회전 토론에 대한 후보자간 전략과 공방: 맥케인 측은 2008년 6월 전략상 10개의 타운 홀 미팅 토론을 열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오바마는 6월부터 11월 선거일 까지 5개의 토론을 하자고 맞대응하였다. 오바마는 CPD가 주관하는 3번의 토론과 7월에 경제 관련 주제로 8월엔 외교와 국방 주제로 심도 있게 토론하자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였다. 이후 후보자 토론에 대한 합의는 8월 20일 민주당 대표 일노이주 하원의원 램 임마누엘과 공화당 대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상원의원 린시 그래햄에 의해 이루어졌다.

(6) 후보자 나이: 2008년 미국 대선은 후보자간 나이 차이가 25년으로 가장 많이 난 첫 번째 선거인 동시에 공화당에서 여성을 처음으로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선거이며 대통령이나 부통령 후보 모두 현직이 하나도 없는 첫 번째 선거이었다.

#### 4.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1차 토론

##### 1) 각 진영 후보 토론 준비 및 사전 전략:

**오바마 후보 진영:** 워싱턴 변호사 그레그 크레이그가 맥케인 역할을 대신하며 플로리다 주 탬파베이에서 리허설을 하였다. 그레그 크레이그는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모니카 르윈스키 관련 사건 때 레토릭 전략가로 활동한 바 있다. 오바마 진영은 맥케인 후보가 외교와 경험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허허실실 전략’을 펼친다. 반면 오바마 후보는 경제와 국내 현안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할 예정이었다. 오바마의 약점은 사회자나 시민 패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구체적이며 설명이 긴 반면 시청자들의 가슴에 남는 어구나 표현이 부족한 편이라고 참모들은 진단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오바마의 약점은 미국민들이 국방과 외교에 대해 맥케인에 비해 약한 입장이라고 인식하고 민주당의 국방과 외교 정책을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강인하게 각인시키느냐에 대한 전략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오바마 진영은 맥케인 후보가 2004년 부시 후보와 공화당 후보 경선 토론에서 성화를 낸 전력이 있는 것을 상기하며 맥케인 후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전략을 펼치기로 하였다.

**맥케인 후보 진영:** 맥케인의 토론 전략가들은 사전 전략을 위한 언론 접촉을 고급적 자제함으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 후보가 훌륭한 웅변가이며 토론가이기 때문에 힘든 토론이 될 것이라며 역시 ‘허허실실 전략’으로 나왔다. 맥케인 후보는 가능한 대화체와 친근체 스타일의 기법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하였다. 부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그의 월남전 참

전, 포로생활,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 등 자신의 정치 경륜과 행적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맥케인 참모들은 그가 자주 쓰는 ‘마이 프렌드(my friend)’라는 상용구를 가능한 한 회피하기로 조언하였으며 유머를 사용하지 않고 엘리트처럼 보이지 않으며 평범한 사람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다. 맥케인의 약점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행동이 미숙한 편이라는 지적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자신의 발언이 끝나고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에 더욱 조심할 것을 주문하였다. 맥 케인은 2000년 부시 대통령과의 공화당 후보 대선 토론 때 상대 후보가 발언할 때의 시선 처리가 아주 좋지 않았다는 평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맥 케인은 73세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다<sup>1)</sup>. 48세인 오바마와는 25년의 차이가 있다. 1차 선거방송토론은 약 7-8%의 부동층 혹은 가동층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6천 5백만 명이 시청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5천 2백만 명만 시청하였다.

## 2) 토론 형식

1차 토론에서 후보자들은 정해진 연설대에 서기로 하였으며 자료는 갖고 들어가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1차 토론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HDTV로 중계되는 첫 번째 토론이었다. 90분간 진행되며 개괄적으로 9분간을 한 단위로 같은 주제에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질문에 대해 각 후보자는 각 2분간 답변을 하고 5분간 자유스러운 토론을 하도록 하였다. 1차 토론은 연설대에 서기 때문에 스테이지에서 시민들에게 답변하고 설명하는 2차 토론 보다 상대에 대한 공격이 더 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에 대한 시간은 편성하지 않았다.



1) 가장 나이가 많았던 후보는 199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73세 밥 돌이었으며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선거에 나간 1984년 대선 때 나이가 74세이었다.

### 3) 토론 사회자와 질문 내용

사회자인 짐 레러는 1992년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의 사회자를 맡아왔다. NBC 앵커인 피터 제닝스는 짐 레러를 두고 ‘평생 불박이 선거방송토론 사회자’라며 치하하였으며 후보들에게 중립적이며 정치적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짐 레러는 후보자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 질문의 내용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후속 질문으로 이어가며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표 2〉 1차 토론 질문 내용

질문 순서	질문 내용
1	양 후보의 금융 위기 회복 정책은?
2	양 후보의 정책이 상대 방안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
3	구제 금융 방안의 실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4	대통령이 되면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에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5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6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7	이란의 위협에 대한 방안은?
8	러시아를 경쟁자로 봐야하는가, 적으로 봐야 하는가?
9	에너지 관련 정책은?
10	9/11 테러가 또 일어난다고 보는가?

### 4) 토론 내용: 수사적 전략 분석

1차 토론이 있기 이틀 전 9월 24일 맥케인은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로 미국 정부가 7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투입하는 안건이 더 중요하며 유세를 잠시 멈추고 워싱턴으로 돌아가 구제 금융 법안의 통과를 돕겠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미국 의회가 구제 금융 투입 법안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선거방송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자 오바마 측이 그럼 혼자라도 토론을 하겠다고 하자 다음날 맥케인은 선거방송토론에 참석하겠다고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민주당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뢰도를 공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오바마는 맥케인 보다 15cm 보다 더 크며 악수할 때 맥 케인의 어깨에 다른 손을 얹는 행위를 할 지 모른다. 만일 오바마가 악수하는 손 외에 다른 손을 어깨에 얹으려는 행위를 피하려면 맥케인은 악수 행위를 빠른 시간에 마치는 것이 좋다.

실제 토론 시작 전 상호 악수하는 행동에서 오바마는 왼손을 맥 케인 어깨에 대지 않고 등허리 뒤쪽을 가져가며 맥케인도 왼손을 오바마 등허리 뒤쪽에 살짝 갖다 댄다.

### (1) 국내 정책 공방: 경제 위기

두 후보는 90분간 토론에서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세금 감면이라든지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 정책은 피하면서 다음 대통령의 업무가 힘들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였다. 전반부에서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재정 지출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가져왔으며 맥케인 후보는 부시의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며 맥케인과 부시 정권을 동일시하는 전략을 펼쳤다. 오바마는 '지금 경제 위기는 공화당인 부시 행정부의 8년간 지권 기간 동안 펼친 경제 정책의 결과이며 이를 맥 케인 후보가 지지하였다'고 공약을 하면서 '부자들이 혜택을 받는 현 정책은 실패로 끝났으며 중산층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정책의 근본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맥케인 후보는 자신의 경륜을 내세우면서 오바마는 정치적 경륜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경험이 일천한 후보에게 미국을 맡길 수 없다'고 대응하며 '나는 인턴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준비된 대통령'으로 오바마 후보의 미숙함을 대조법으로 강조하였다.

오바마가 짐 레러를 보면서 '열흘 전에 존은 우리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였다'고 존이라는 3인칭으로 시작하자 사회자 짐 레러가 끼어들어 '맥케인에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두 번씩이나 지적하자 오바마는 웃으면서 '존 열흘 전에 당신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다고 하셨는데'라면서 고쳐서 말하자 맥케인은 사회자 짐 레러에게 '내가 오바마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 것 같으냐'며 되묻자 장내에 웃음이 터졌다. 유머 활용에 있어서는 맥케인이 한 수 위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며 오바마의 유머는 토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선 토론에서 패널이 오바마 후보에게 '순수 흑인이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선 출마 이전 맨해튼에서 택시 타면 당장 알 수 있다'라는 재치 있게 응답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오바마의 유머와 재치 실력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었다.

맥케인은 오바마가 '최저 연 수입 42,000 달러 이상 가구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오바마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부인하였고 토론 후 맥케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이

2001년 개정된 가구당 250,000 달러 이하의 가정에도 세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무튼 오바마 후보의 조세정책은 맥케인의 방안보다 기준이 높은 것이 확실하였다. 조세 정책은 3차에 걸친 토론 내내 뜨거운 쟁점이었으며 3차 토론에서 맥케인이 일반 시민인 ‘배관공 조(Joe the Plumber)’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2008년 대선 토론의 가장 유명한 일화로 남게 된다.<sup>2)</sup>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파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맥케인은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지금 행정부 지출이 고삐가 풀렸다’ ‘180억 달러에 달하는 선심성 프로젝트 예산을 삭감하겠다’ ‘오바마는 일리노이주에만 9억8천2백만 달러의 선심성 프로젝트를 사용했다’며 ‘이게 바로 오바마와 나의 차이점이다’ ‘오바마가 상원 의원이 된 후로 거의 매일 1백만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오바마의 상원의원 전력을 공략하였다. 그러자 오바마는 맥케인이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해두는데 지난해의 180억 달러의 선심성 예산에 맥케인 상원의원도 찬성했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부자와 재벌을 위한 3000억 달러의 정부 예산 감소이다. 3,000억 달러를 부자와 재벌을 위해 부어 넣고는 180억 달러가 중요하다고 하는 데 3,000억 달러가 더 중요하다’고 반격하였다.

오바마는 맥케인을 돌아보면서 ‘존, 당신은 당신 대통령의 예산 증액을 90%나 찬성하였으며 당신이 찬성한 예산으로 대통령은 예산 잔치를 벌이다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부시 행정부와 맥케인을 동일시 하는 전략을 펼쳤다. 그러자 맥케인은 멋쩍게 웃으면서 ‘오바마 당신은 미국 상원 역사상 가장 진보적 투표를 하여 왔다. 상원에서 오바마 당신이 앉아 있는 좌측-left: 진보의 다의적 의미-은 내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다. 오바마 의원은 제대 군인에 대한 예산, 에타놀 감세 정책에 대해 반대 하였다’라며 재치 있게 받아 넘기자 오바마는 ‘나를 위험한 진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상원에서 조지 부시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위험한 진보가 맞다’고 맞대응하였다. 토론 후 시민 단체들은 National Journal 이라는 잡지에서는 분명히 오바마를 상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원 중에 하나로 평가하였지만 Congressional Quarterly에서는 오바마가 부시 정부 정책안에 대해 50% 정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여 ‘중도 그룹’으로 평가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오바마는 미국 경제 위기의 원인을 ‘8년 동안 맥케인 후보가 찬성하고 부시가 추진한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한 경제 정책’ 때문이라며 맥케인 후보와 부시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반면 맥케인은 이번 금융 위기의 원인은 ‘월스트리트의 탐욕과 과욕이 복수를 부른 것이며, 그들의 부패에 대한 처벌이며, 우리들이 무책임한 결과’이다 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국민들이 나의 정부를

---

2) 3차 토론 분석 참조

믿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며 경제 위기의 원인을 월스트리트로 돌리려고 노력하였다.

토론 후 대체적으로 유권자들의 반응은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경제 위기 타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평하였다. 시민들의 반응은 은행에 있는 내 돈은 과연 안전한 한 것일까가 무엇 보다 중요한 관심이었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금융 정책과 경제 정책을 가계 채정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으며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경제 위기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힘들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 측으로서는 반대 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과 지지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을 제시를 회피하였을 것이다.

## (2) 외교와 국방 정책

맥케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오바마가 이란 대통령의 이름인 마흐모드 아mani네자드 발음에서 엉킨 것과 파키스탄 대통령인 아시프 알 자다리(Zadari)를 카다리(Qadari)로 잘 못 발음한 실수를 이 토론에서는 직접 공략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의적으로 이를 연상할 수 있는 전략으로 '미국 대통령은 타국 지도자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대통령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였다.

외교 정책과 관련한 주제에서 오바마 후보는 방어적인 반면 맥 케인 후보는 자신의 경륜을 충분히 발휘하며 외국 지도자의 이름을 들면서 외교 분야에서 우위를 나타내었다. 이라크 전쟁에 관한 주제에서는 맥케인은 오바마에게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다'며 비애국적이라고 공략하자 오바마는 '전쟁을 시작할 때 맥케인 후보는 전쟁이 빠르고 쉽게 끝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당신이 틀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 미국군 해방군이라고 했다. 그것도 당신은 틀린 것이다'라며 부시의 정책 실패와 연결하며 맞대응을 하였다.

맥케인은 뉴햄프셔 주에서 이라크 전사자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전쟁을 마지막까지 잘 수행하라면서 자기에게 팔찌를 주었다고 밝히며 오른손 팔찌를 들어 보이며 '팔찌를 영광스럽게 차고 있다'고 표상 전략을 펼쳤다. 그러자 오바마도 위스콘신에서 전사자의 어머니가 전쟁을 빨리 끝내달라면서 준 팔찌를 '나도 갖고 있다'며 응수하였다.

맥케인은 오바마가 '이해를 잘 못한다'(I'm afraid Senator Obama doesn't understand)' 혹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What Senator Obama doesn't



seemed to understand)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다(Obama still doesn't understand) 라는 표현을 일곱 번 반복하며 강조하였다. 또한 오바마가 미-러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듣고는 바로 오바마의 견해를 '순진한 의견'이라며 폄하하였다. 이 때 맥케인은 대체적으로 오바마를 약간 알보는 태도와 어투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냉소적 웃음이 리액션 샷으로 잡히기도 하였다. 시선 처리는 맥케인의 단점이었으며 조언을 받아 집중하였는데 오바마가 발언을 할 때 버릇처럼 듣는 행위보다 메모하는 행위가 자주 카메라에 잡히면서 시선 처리가 좋지 않았다는 평을 받게 된다. 반면 오바마는 맥케인이 발언 할 때 먼저 그를 쳐다보고 필요하면 메모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발언할 때 카메라 시선 처리도 좋았다.

오바마는 '빈 라덴을 잡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파키스탄 정부의 승인 없이 파키스탄 북서부를 공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맥케인은 '파키스탄 정부의 협조가 없다면 공격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조를 이루었다. 이런 오바마의 견해는 파키스탄 정부에 실망하여 파키스탄 정부의 승인 없이 공격을 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같은 것인 반면 맥케인은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다른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바마는 한 발 더 나아가 '파키스탄 군대에 지원한 100억 달러가 별 효과가 없는 것을 알았다면 부시 행정부가 몇 년 전에 이러한 공격을 감행해야 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오바마는 '테러와의 전쟁의 최전선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이며 '이라크전은 오히려 주의를 흐트린다'고 한 반면 맥케인은 '이라크야말로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과의 테러 전쟁을 선포한 지역으로 테러와의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맞대응하였다. 이후 빈 라덴이 2011년 5월 파키스탄에서 사살됨으로서 오바마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판명났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이란 핵 개발 관련 논제에서는 맥케인은 이란을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전에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대중 유세 때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1차 토론에서는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 함께 '보다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이 오히려 이란이 핵을 가지는 것을 부추겼다고 반박하며 미국은 이란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맥케인은 이란과 직접 테이블에 앉는 것은 마호모드 아미네자드 이란 대통령을 정당화해주며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서는 '핵원자로 봉쇄'라는 '선결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이는 부시 행정부가 2006년부터 지켜온 원칙이다.

오바마는 '선결조건' 없이 이란 지도자와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자신의 입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방금 맥케인 후보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언급하였는데 당신의 자문인 키신저 장관은 물론 다른 다섯분의 장관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미국이 선결 조건 없이 이란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며 재반박하였다. 이에 대해 맥케인은 '나는 키신저 장관을 잘 알고 있으며 지도자간의 면대면 협상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실무 수준에서 만나야 한다고 했다'고 알고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이 논란은 토론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토론이 있기 일주일 전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전직 국무장관들인 헨리 키신저, 워렌 크리스토퍼, 매들라인 올브라이트, 제임스 베이커, 콜린 파월이 참석한 포럼의 내용을 점검하는 해프닝으로 이어졌다. 당시 참석했던 언론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키신저가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들었다는 측과 지도자 수준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는 측의 주장이 함께 나와 두 후보자 모두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차 토론이 끝난 후 이 쟁점이 계속 뜨거워지자 키신저 측은 한 언론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맥케인 의원이 맞습니다. 나는 이란과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테이블에 앉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의 친구인 맥케인 상원의원의 견해와 나의 견해가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모든 주제에 다 동의하지 않지만 이란과의 협상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의견이 일치합니다'라며 맥케인 후보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맥케인은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시리아, 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만나는 것은 위험하다'며 오바마는 외교에 순진하다며 강공을 펼쳤다. 2007년 민주당 경선 초기 한 토론회에서 패널이 오바마 후보에게 '후보자께서는 대통령이 되시면 첫해에 미국의 적대 국가인 이란, 베네수엘라, 시리아, 쿠바, 북한의 지도자와 선제조건 없이 직접 만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오바마는 '그럴 수 있다(I would)'라고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게 현 정부의 우둔한 정책이지 않느냐'라며 응답한 것을 두고 맥케인은 함의적으로 공격하였다. 토론 후 오바마 측 전략가들은 토론에서 맥케인의 공격은 '그럴 수 있다(I would)'를 '그렇게 하겠다(I will)'로 '선결조건 없이(without preconditions)'를 '조건 없이(unconditionally)'라는 어휘로 왜곡하며 공략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자 맥케인 측은 오바마 측에는 '의미 분석가(parsing words)'들만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그러나 오바마의 입장은 조건 없이 만난다는 입장은 아니고 선결조건 없이라는 사실이 다른 유세 연설을 통해 증명되었다. 오바마는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입장에 동의한다면 만남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유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바마는 맥케인 후보가 이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진흙탕에 빠질 것이라고 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정책에 대한 맥케인 확 전 반대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토론 후 사실 관계 점검을 한 시민 단체들은 맥케인이 2003년 '아프가

니스탄에서 미국이 진흙탕에 빠질 수 있다(can)’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빠질 가능성이 있다(may)’라고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맥케인은 ‘우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압제적이며 악랄한 정권이다. 남한 사람들의 평균 키가 북한 사람들 평균키 보다 7.5cm(3인치)는 더 크다, 북한의 지도자의 건강이 어떠한지 잘 모르지만 북한이 합의한 사안을 매번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신뢰를 가져라. 그러나 확인하라고 한 레이건 대통령의 충고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며 자신의 대북 외교 정책을 피력하였다.

맥케인은 ‘미국에 45개의 원자로를 건설하면 70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자력 전문가들은 건설에 필요한 많은 부분이 외국에서 작업이 진행될 것이며 미국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핵 원자력 발전을 옹호하는 그린피스 운동가들은 원자로 1개당 3천에서 4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45개면 장기적으로 22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반면 오바마는 ‘미국의 해외 석유 의존도가 높으며 장기적으로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한 전력을 개발해야 하고 새로운 배터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중국에 지고 있는 빚에 대한 토론에서 맥케인은 5000억 달러라고 한 반면 오바마는 3조 달러라고 하였으나 실제 중국이 갖고 있던 채권은 5180억 달러로 맥케인이 맞았다. 마무리 발언에서 맥케인은 ‘미국에 좋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our best days ahead of us)’며 전망을 제시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 (3) 1차 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와 효과

유권자들은 두 후보가 미국의 경제 위기 타파에 대한 방안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기대하였지만 두 후보자는 외교와 국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이는 1차 토론의 주제를 경제로 하지 않은 양측 참모들의 작은 실수이기도 하다. 맥케인은 8월 20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맥케인과 부인 명의로 집을 몇 채 소유하고 있는냐는 질문을 받고 맥케인은 ‘참모들에게 물어 보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였다. 민주당은 이 실언을 놓치지 않고 ‘일곱 채’라며 정치 공략의 소재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오바마는 토론에서 이를 공격하지 않았다. 맥케인도 부통령 후보인 새라 패일린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바마도 그녀에 공략을 하지 않았다. 패일린에 대한 공략은 잘 못하면 여성 차별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였으며 오히려 맥케인이 이를 역으로 전략적 활용을 하였다. 오바마는 맥케인을 존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반면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라는 성으로 불렸다. 버락이나 흑

은 중간이름인 ‘후세인’으로 부르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차 토론이 끝나고 CNN 여론 조사에 의하면 39%가 오바마가 24%가 맥케인이 이겼다고 37%가 무응답이라고 밝혔다. CBS 여론 조사에 따르면 38%가 무승부라 답하였고 40%가 오바마가 이겼다고 봤으며 22%가 맥케인이 이겼다고 응답하였다 (Sargent & Kleefeld, 2008). 그러나 위의 여론 조사는 토론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보다 자신의 지지후보에 대한 평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 토론은 누가 잘 하였는가에 대한 평가를 알기 힘들다. 대체적으로 오바마가 유권자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다고 평한 반면 맥케인 후보의 시선처리가 상대 후보인 오바마를 직접 쳐다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 마치 상대 후보에 대한 존경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토론의 태도에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은 토론의 내용보다 전달의 방식이나 비언어적 행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맥케인은 토론 스타일에서 점수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가끔 맥케인의 어투는 상대 후보에 대한 존중의 표현 보다 마치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스타일로 오바마에게 질문과 응답을 하며 비언어적 토론 매너에서 점수를 잃는 경향이 여전히 드러났다. 그러나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가 맥케인에 비해 우세한 반면 맥케인 외교 분야에서는 맥케인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평할 수 있다. 1차 토론에서 기대와는 달리 양 후보는 큰 실수는 하지 않았으며 맥케인은 나이와 달리 원기왕성한 토론을 하였으며 오바마에 대한 공약을 전략적으로 잘 펼쳤다. 그러나 지지층과 가동층을 움직일 만큼 큰 점수는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5.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2차 토론

### 1) 1차 토론 후 각 진영 후보 토론 준비 및 사전 전략:

선거를 4주 앞두고 테네시 주 내쉬빌시 벨몬트대학교에서 벌어진 2차 토론회에서 지지도에서 뒤지고 있는 맥케인 후보는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 두각을 나타내어야 했으며 지지도가 앞서 있는 오바마 후보로서는 실언이나 실수를 하지 않고 평균 이상으로만 토론을 수행하면 성공이라는 입장으로 전략을 세웠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 새라 페일린은 2차 토론에서 맥케인 후보가 ‘글로벌 벗고 토론에 임해야 한다’며 2차 토론을 통한 지지도 상승과 선전을 독려했다. 그러나 1차 토론과 달리 2차 토론은 타운홀 미팅 형식이어서 양 후보의 직접 상호토론은 1차와 3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뒤지고 있는 후보에게 불리한 토론

형식이었다. 1차 토론이 있고 난 후 미국 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입안한 7,000억 달러 구제 금융 법안을 승인하였으나 토론이 펼쳐지는 당일 미국 주가는 500 포인트 이상 떨어진 날이었다. 맥케인 후보는 1차전에서 오바마 후보가 부시 대통령의 실정과 인기 하락을 맥케인 후보와 동일시하려고 한다는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과의 관계를 멀리 하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 2) 토론 형식

2차 토론회는 8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참석을 한 시민 논객들은 박수를 치거나 웃지 않고 조용히 방청하기로 서약을 하였다. 스튜디오는 원형으로 시민 논객들의 방청석은 여덟 개 부분으로 각 부분에 10명씩 앉도록 나누고 320도 각도 배치하였으며 후보들이 발언하는 스테이지는 빨간색으로 하였다. 양 후보는 높이 1m 정도 되는 조그마한 사각형 탁자를 배치하고 그 위에 펜과 메모지를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제공하였다. 한 후보가 질문을 받고 스테이지에 서서 발언을 하면 다른 후보는 자기 의자에 부근에 서 있거나 혹은 앉거나 하는 형식을 취했다. 시민 논객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 후보가 답변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자 톰 브로커가 보충 질문할 수 있게 하였다. 2차 토론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선정한 시민들의 질문을 활용한 토론으로 기록되고 있다.

## 3) 토론 사회자와 질문 내용

NBC 앵커로 미국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신뢰를 얻고 있는 톰 브로커사 사회를 맡았다. 톰 브로커는 질문을 한 후 후속 질문을 잘 활용하였으며 두 후보 모두에게 성 대신 이름인 버락과 존을 자주 사용하였다. 가능한 한 토론이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중간에 개입을 많이 하지 않았다.

〈표 3〉 2차 토론 질문 내용

질문 순서	질문 내용
1	양 후보의 구제 금융 방안과 정책은?
2	구제 금융으로 어떻게 국민들을 도울 것인가?
3	국민의 세금인 재정을 집행하게 될 양 후보 중 누구를 더 믿어야 하나?
4	아메리칸 드림의 복원을 위해 국민들은 어떤 희생을 해야 하나?
5	주택 담보대출 부도 사태의 해결 방안은?
6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양 후보의 방안은?
7	건강 보험에 대한 정책은?
8	외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9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각 후보의 선택은?
10	(인생과 국정과 관련하여)후보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4) 토론 내용과 수사적 전략 분석





토론에 들어가면서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 후보에게 첫 발언 시작 전 ‘타운홀 미팅 토론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넸다. 이는 맥케인 후보가 7월에 오바마 후보에게 미국 전역을 돌며 타운 홀 미팅 토론을 펼치자고 전략적으로 제안한 것을 상기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당시 맥케인측 제안에 오바마측은 내심 피하려는 방침이었으나 참모들을 보내 토론 개최에 대한 협상을 취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난 후 거절한 후 오바마는 공식 초청 이전 두 번의 토론회를 먼저 하자고 역으로 제안 안한 적이 있다. 2차 토론에서 오바마는 그에 대해 특별한 응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 사회자인 톰 브로커가 ‘오늘 훌륭한 질문이 준비되어 있으니 시작합시다’라며 경제와 관한 첫 질문이 시작되자 1차 토론에서처럼 오바마는 경제 위기의 근원을 규제완화와 부시 대통령의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맥케인 후보와 연관지어며 공약을 하였고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 후보야 말로 예산 증액의 옹호자이며 증세 추종자라며 맞대응하였다.

### (1) 시민 논객들의 질의 그리고 ‘저 사람(that on)’

시민이 직접 물은 첫 번째 질문은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구제 금융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나로 시작하자 오바마는 바로 스테이지에 나와 ‘금융회사의 CEO 들이 구제 금융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감면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중산층에게 구제 금융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청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어 맥케인은 질문자의 이름을 언급하며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서서 ‘앨런씨,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무 장관에게 주택 담보대출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빚을 바로 들어주라고 지시할 것이며 주택의 가치를 재설정하여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요. 네 많이 듭니다. 그러나 미국 가정의 가치관을 지키고 경제를

바로 세우며 미국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라며 자신감 회복을 강조하였다.

툼 브로커는 추가질문으로 양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누구를 재무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냐는 돌발 질문을 던지자 맥케인 후보는 '툼 브로커 당신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라며 유머로 받아 넘겼으며 오바마 후보는 '워렌 버핏을 임명하는 방안도 좋다'라고 대답하였다. 순발력이 부족하다는 오바마에 대한 평이 드러나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토론에서 오바마 후보는 맥케인 후보의 공격에 말리지 않았으며 사회자의 돌발성 추가 질문에 오바마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여유를 갖고 대응하였다.

두 번째 시민의 질문이 시작되자 답변을 먼저 하게 된 맥케인은 '오바마 후보야 주택 담보대출 회사 프레디 맥와 프레딕 매 회사는 오바마에게 두 번째로 많은 정치 자금을 기부하였으며 오바마 후보가 최대 수혜자이다'라며 바로 오바마 후보에게 포문을 열었다. 맥케인은 경제 위기에도 위험한 대출을 남용하여 부도난 '패니 매와 프레디 맥' 부동산 회사는 오바마 후보 '죽벌 체제'의 하나라고 비판하며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이야 말로 이번 주택 담보대출 위기의 '산불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어떤 사람은 그런 산불을 막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공차를 타려고 한다'며 대구적이며 은유적으로 오바마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하게 펼쳤다.

오바마 후보는 맥케인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하는 동안 아니라는 듯이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지금 맥케인의 발언과 그의 전력을 확실히 알아 볼 필요 있다'며 '현재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 보다 금융 규제 완화'였으며 '맥케인 의원이 올해 3월에도 자신은 금융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고 큰소리치던 사람이었다'며 역공을 퍼부었다.

맥케인은 세 번째 질문에서도 질문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물론 '테레사, 질문에 감사합니다'라며 감사까지 표현하며 시민들과의 친근감을 나타내려하였다. 맥케인은 주택 담보 대출을 구제하기 위해 3,0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며 '그게 비싼 대가인가요'라고 물은 후 '그렇습니다'라며 질의-응답식 내용 구성으로 시민 패널들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에서 맥케인은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석유 회사들을 위한 수억 달러의 에너지 예산을 상원에서 심의할 때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아세요. 아마 밝히면 놀랄 것입니다. 저 사람입니다(that one). 누가 반대표를 던진 줄 아십니까. 접니다'라며 오바마를 공략하였다. 이 발언에서 오바마 후보를 'that one'이라고 표현함으로써 1차 토론 후에 맥케인이 오바마 후보를 앞잡아 보는 태도로 토론에 임한다는 오바마측의 공략과 언론의 평에 증거를 제시한 결과를 가져왔다.



2차 토론에서 맥케인은 오바마 후보를 쳐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흔히 경찰이 피의자에게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인 'that one'이라고 지칭하면서 토론 상대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못한 면이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토론 전 맥케인 전략가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너무 얄잡아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조언과 주문을 멀리하고 맥케인이 오바마를 얄잡아 보는 태도가 언어로서 드러나며 토론 후 언론의 주요 뉴스가 되어 회자되었고 2008년 미대선 2차 토론회의 악명 높은 '명구'로 기록되고 있다.

맥케인 후보는 1차 토론과 달리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이 입안한 정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하였으며 이는 맥케인이 부시대통령에 대한 비평의 강도를 높여 부시 대통령과의 거리를 멀리 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자신을 '실용주의자'로 강조하려고 노력하였다. 공화당 후보인 맥케인 후보는 오히려 민주당의 훌륭한 정치가인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러스 페인골드 의원등을 거론하며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맥케인은 지금 미국 정치의 현실이 '양당의 이견과 충돌이 너무 심해 위기를 자초하고 있으며 오바마 후보는 민주당에서 조차 리더십을 잘 발휘하지 못한 인물'이라며 자신은 '양당 정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인 반면 오바마는 '양당을 잘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후보'라고 대조적으로 공약을 펼쳤다.

2차 토론의 네 번째 질문은 미국 대선 토론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선정된 시민의 질문이 후보자에게 주어졌다. 대공황 시절 아이였던 78세의 시민이라고 밝힌 질문의 내용은 미국의 드림을 복원하기 위해 시민들이 어떠한 희생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을 인용하던 맥케인은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sup>3)</sup>을 언급하며 '테디 루즈벨트는 나의 영웅이다. 테디 루즈벨트는 큰 지팡이를 들고 다녔지만 걸음걸이도 조용했으며 연설도 조용히 했다. 그런데 오바마 후보는 시끄럽게 말한다'라며 인신 공격성 발언을 하자 오바마는 손을 들어 사회자인 톰 브로커에게 항의하려 하자 그는 '나는 단지 사회자 일 따름입니다'라고 하면서도 후보 간 합의한 규칙을 다시 상기시키며 토론의 열기를 가라 앉혔다.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야 말로 세금을 증액할 것이며 경제 위기에 세금을 올린 마지막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라며 민주당의 정책을 비난하였다.

---

3) 캠벨과 제미슨 (Campbell & Jamieson, 2001)은 미국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설의 활용을 확산시킨 대통령으로 평가하고 근대식 '레토릭 대통령'의 시초로 보았다. 연설을 많이 하기 시작한 그의 특성을 레토릭학자들은 'bully pulpit'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

## (2) 외교와 국방 정책: 오바마의 대응

외교 정책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맥케인 후보는 안정적으로 보였다. 그는 이라크에 증원을 주장하며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군 사령관인 페트라에우스 장군을 네 번이나 언급하고 오바마 후보는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를 상대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계속해서 맥케인이 오바마 후보가 경험이 없다고 공약을 하자 오바마는 ‘맥케인 상원의원이 나를 풋내기(green behind ears)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나는 지금 막 솟아오른[spout: 막힘없이 말하는 혹은 솟아오른 다의적 의미]사람입니다. 그리고 맥케인 후보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란에 대해서는 팡(bomb), 팡(bomb), 팡(bom), 북한에 대해서는 섬멸하자고 하는 사람이 바로 맥케인 후보입니다’라며 ‘이는 맥케인 후보가 부드럽게 말하는[speaking softly: spout에 대조적 어휘] 사람은 아니라는 증거’라며 다의적 어휘를 활용하여 대구법으로 응수하였다. 그러자 맥케인도 ‘(직접 때리면 때렸지) 나는 주먹의 펀치를 우편으로 전송(telegraph)하지는 않는다’며 유머스럽게 맞대응하였다.

이어 해군하사관 출신 시민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각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맥케인 후보는 질문자인 테리에게 다가가서 자신도 ‘군대 있을 때 리더십에 관해 모든 것은 하사관들로부터 배웠다’며 테리의 어깨를 살짝치며 ‘제2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라고 하자 테리도 손을 내밀어 맥케인과 악수를 청했다. 후보자와 시민들 간의 이런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항의 없이 지나갔다. 오바마도 ‘나라를 지켜준 테리의 복무에 감사하다’라며 ‘무력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이란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엄중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란에 대한 오바마의 입장은 유세와 선거가 더해 갈수록 더 단호해지고 있었다. 이어 1차 토론보다 더 강하게 ‘파키스탄이 빈 라덴을 잡지 않겠다면 우리가 잡아야 한다’ ‘우리는 빈 라덴을 사살할 것이다. 그리고 알 카에다를 뭉개버려야 한다’ ‘그게 미국의 가장 큰 국가적 과제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런 오바마의 입장은 맥케인이 국방과 외교와 관련하여 약하다는 공약에 대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경제와 국방 쟁점의 토론에서 맥케인이 통계를 언급하면 오바마도 통계를 제시하고 자료를 주장의 논거로 제시하면 오바마도 자료를 제시하며 응답하였다. 예를 들어 맥케인 후보가 ‘미국의 에너지 문제에 관해 지난 30년 동안 워싱턴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자 오바마 후보는 ‘맥케인 후보는 워싱턴에 26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있었으며 23번이나 대체 에너지 개발 입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공략하였다. 맥케인은 새라 패일린 부통령 후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으나 2000년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으나 지금은 무소속으로 2008년 대선에서 맥케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조셉 리버만 코네티컷 상원의원을 네 번이나 언급하면서 ‘독립파’라며 치켜세우자 오바마 후보는 ‘리버만이 부시 대통령과 한편이 아닌 것이 다행이다’라며 부시가 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암시하며 재치있게 응수하였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 후보가 제시한 의무적 건강보험을 두고 ‘오바마 후보는 건강 보험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건강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오바마 후보가 벌금을 매길 것입니다’라며 공세를 취하자 오바마 후보는 ‘건강 보험회사들이 고객들을 속이는 것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라며 응수하였다. 반면 맥케인 후보는 ‘건강 보험이 대머리 모발 이식 수술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유머를 활용하며 시민 패널로부터 웃음을 이끌어 내려고 하였지만 시민들은 웃지 않았다.

마지막 질문이 이르러 각 후보는 마무리 발언형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오바마 후보는 ‘미국은 세계 기회를 준 나라입니다. 할머니도 가난하게 살았고 어머니도 국가 보조금을 받을 만큼 가난한 적이 있었으나 나는 지상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 다른 나라였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메리칸 드림을 다음 세대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맥케인 후보는 ‘나는 제 인생 전부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미국이 어려운 시기에 나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나는 미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배의 키를 함께 잡고 나가야 합니다’라며 마무리하였다.

2차 토론이 끝나자마자 양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먼저 다가가 악수하려고 하자 사회자인 톰 브로커는 아직 마지막 사회자 멘트를 하지 않았다며 ‘텔레프롬터 대본을 봐야 하니까 좀 비켜주세요(You are in the way of my script there)’라며 주의를 주자 두 후보는 그제야 피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2차 토론에서 후보자들은 카메라가 있는 한 최대한 전략적인 태도와 행동을 취하였다. 방송 중계는 토론이 끝나고 각 후보가 시민 논객들과 악수를 하는 것까지 하였다. 그러나 중계가 끝난 이후 맥케인은 토론장을 바로 빠져 나갔지만 오바마 후보는 토론장에 남아 시민 패널들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며 토론회를 마쳤다.

## 5) 2차 토론 평가

맥케인의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져 오바마와의 지지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맥케인은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토론에 임하였으나 오바마는 토론 초반

실수를 피하고 토론을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경향이 있었으나 토론의 열기가 더해지자 재치 있는 대응과 쉬운 내용으로 시민 논객들을 설득하였다. 반면 맥케인 후보는 공략이 지나쳐 ‘저 사람(that one)이라는 말 실수로 오바마를 얕잡아 보는 태도가 언론의 악평을 받고 코메디의 소재로 인구에 회자되는 토론이었다. 맥케인은 습관처럼 ‘마이 프렌드 (my friend)’라는 상용구를 자주 사용하였으며 상대 발언 동안 너무 자주 메모하는 행위가 카메라에 잡혔으며 토론 후 한 언론은 맥케인이 무엇을 메모하는 지 궁금하다는 평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맥케인은 오바마가 발표하는 동안 스테이지에 서 있거나 이리저리 움직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여 토론 후 민주당의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2차 토론이 끝난 후 CNN 여론 조사에 따르면 54%가 오바마가 우세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30%가 맥케인이 우세하였다고 답하였다(Steinhauseer, 2008). CBS 여론 조사에 따르면 40%가 오바마가 우세하였다고 본 반면 26% 맥케인이 우세하였다고 응답하였다(CNN, Oct. 08, 2008). 위의 자료에 따르면 CBS의 조사에서는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 전반의 지지도와 토론 효과에 따른 변화를 구분하기 힘들다.

2차 토론은 타운홀 미팅 토론이어서 후보자간의 직접 토론 시간이 줄어들어 직접적 공격과 방어는 1차 토론보다 적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없어서 토론의 깊이가 없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면서 활기가 더해 갔으나 각 후보는 주어진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사회자인 톰 브로커의 재제를 자주 받았다. 타운홀 미팅 형식은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캠페인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와 과정 입장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간의 직접 토론이 없어 상호간의 깊이 있는 공방이 없으며 또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규칙이 너무 엄격하여 한 번 질문한 시민이 후보자에게 후속 질문을 더 할 수 없어 토론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맥케인 후보는 타운홀 미팅 토론 형식을 선호한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형식은 뒤지고 있는 맥케인 후보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바마 후보나 맥케인 후보 지지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수를 얻은 토론도 아니었으며 또한 점수를 잃은 토론도 아니었다.

## 6.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3차 토론

### 1) 2차 토론 후 각 진영 후보 토론 준비 및 사전 전략:

뉴욕 주 롱 아일랜드시 휴스트라 대학교에서 열린 3차 토론은 마지막 토론으로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 후보를 최대한 공략하여 지지도를 높인다는 전략으로 임하였으며 오바마 후보는 실수 없이 토론회를 마쳐 앞선 지지도를 방어한다는 전략으로

임하였다.

## 2) 토론 형식, 사회자, 질문 내용

토론의 형식은 앞선 1차 토론과 같으나 마지막 토론이어서 별도의 마무리 발언 시간을 배정하였다. CBS 앵커로 밥 쉬퍼는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 방송토론 사회를 맡았으며 전반적으로 진행을 매끄럽게 하였다. 이번 토론에서 미국 3대 지상과 방송사 중 ABC 앵커가 빠진 이유가 궁금하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표 4〉 3차 토론 질문 내용

질문 순서	질문 내용
1	양 후보는 세금 감면의 정책을 내어놓았다 이에 대한 설명은?
2	올해 재정 적자 4,550억 달러, 내년은 1조달러 이에 대한 대책은?
3	상대측에 대한 인신공격, 부정적 슬로건, 부정적 광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4	상대 부통령 후보보다 자신의 부통령 후보가 왜 나온가?
5	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은?
6	건강 보험 개혁 방안은?
7	임신중절(낙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은?
8	미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좋지 않다. 교육 개혁 방안은?
9	마무리 발언

## 3) 3차 토론 내용과 수사학적 전략 분석





맥케인은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마지막 토론으로 2차 토론 때 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갔으며 오바마는 반면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태도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토론에서는 때로는 공격이 포인트를 따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 태도가 시청자들로부터 점잖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토론이기도 하였다. 토론 내용면에서는 맥케인 후보가 공격적이며 논리적으로 공세를 펼쳐갔지만 전반적으로 오바마 후보가 공격을 받아도 여유롭게 대처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여유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토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3차 토론에서는 1차와 2차 토론에서 나오지 않았던 낙태, 기후 변화, 대법원 판사 임명권 행사, 교육 개혁,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캠페인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와 내용이 다양하고 흥미로웠다. 그러나 3차 토론에서는 앉아서 하는 형식을 취한 데 더해 텔레비전 화면에 양 후보의 분할 화면을 토론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 중계함으로서 비언어적 역동성은 떨어져 보였다.

3차 토론에서 분할 화면 중계로 인해 양 후보의 비언어적 단서인 얼굴 표정과 손 동작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설득의 소구로 작용한 토론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맥케인은 어깨를 쫓룩하며 손을 올리는 행위를 통해 오바마의 발언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자주 나타냄으로서 비언어적 태도에 점수를 잃었다. 오바마는 발언 시

두 손의 활용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였다. 반면 맥케인의 손동작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그가 월남전에서 왼팔 부상으로 인해 그렇다고 이해하는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어깨를 찢룩하는 행위는 단점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오바마는 맥케인의 예리한 공격에도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여유롭게 메모를 한다든지 상대를 응시하면서 ‘어디 또 공격해 보세요’라는 태도는 레이건 후보의 토론에서 남긴 유명한 구절인 ‘또 시작이네(There you go again)’<sup>4)</sup>라는 수사적 명구를 연상하게 하였다.

### (1) 양 후보자 서민 동일시 전략: 배관공 조 토론

3차 토론은 일반 시민들의 이름이나 행동이 자주 인용되고 언급되며 토론의 쟁점으로 부상한 토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토론 초반부터 사회자 밥 쉬퍼가 두 후보에게 ‘왜 자신의 경제 정책이 상대방 후보의 정책보다 나은가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하자 맥케인 후보는 조 사무엘 워젤바커라는 평범한 시민의 이야기를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토론이 있기 1주일 전 오바마 후보가 오하이오 주 톨레도 시를 방문했을 때 배관공으로 일한다는 조는 유세 인파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작은 배관업체를 인수해서 25만에서 28만 달러 수입을 올리는 게 자신의 꿈인데 오바마 조세 정책으로는 자신의 꿈을 못 이룬다며 ‘아메리칸 드림을 믿느냐. 당신 조세정책으로 내 세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며 오바마 조세정책을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내가 당선되면 배관공이나 버스 운전사 등 95% 이상 인구가 혜택을 받게 돼 우리나라 전체의 부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오바마의 답변에 조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이 대화를 마침 그때 방송 기자가 녹화함으로써 이 장면은 미국 텔레비전의 주요 뉴스거리가 되었다. 이후 조는 공화당 열성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맥케인 측은 유명세를 탄 조에게 유세 연설을 부탁하였으나 조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케인은 ‘조는 자신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해 온 회사를 인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바마의 조세정책을 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자신의 사업 구상을 실천하려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올 것임을 알게 됐다’ ‘오바마는 조에게 높은 세율을 매길 것이며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려는 조는 오바마 조세정책 때문에 사업도 직원도 고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를 공격했다. 맥케인은 시선을 돌려 카메라로 응시하며 마치 조에게 직접 말하듯이 ‘조, 내가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4) 레이건은 1984년 재선을 위한 대선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먼데일이 공격을 취하자 ‘또 시작이네(There you go again)’라는 수사적 구절을 남긴다. 토론 후 한 언론은 ‘Mondale goes again’라는 제목을 달았다.

당신이 한 평생 일해 온 사업체를 인수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세금도 적게 내도록 하고 당신 업체의 직원을 위해 건강 보험도 제공할 것입니다. 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오바마는 '조가 맥케인 후보의 광고를 너무 많이 보았다'며 응수하고 맥케인은 대기업을 위한 세금을 감면하지만 자신은 '배관공, 간호사, 소방대원, 교사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준다며 연 수입 250,000달러 이하 가정이나 사업체에 대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98%는 25만 달러 이하의 수익을 올리며 중소기업이 미국 경제를 움직여나가기 때문에 추가 세금 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맥케인은 '미국 기업은 35%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아일랜드는 11%'라고 재반박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토론 후반부에서 건강 보험 관련과 에너지 관련 쟁점에서도 맥케인은 조 워젤바커를 다시 언급하며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3차 토론에서 조의 이름이 두 후보 모두 합쳐 조의 이름이 24번 거론되었다. 3차 토론이 끝난 후 조 워젤바커는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벼락 스타'로 떠올랐고 '내 이름이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에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꿈만 같다'고 하였다. 이란 연유로 3차 토론은 일명 '배관공 조' 토론이란 별명이 붙게 된다. 3차 토론 이틀 후 조 워젤바커는 배관공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며 소득세도 1182달러 체납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한다. 공화당측은 그가 면허는 없어도 배관공 일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를 옹호하고 공화당 유세 팀에 합류하기를 권고하기에 이르며 3차 토론이 끝나고 2주 후인 10월 말에 오하이오 공화당 유세 팀에 합류한다. 배관공 조는 이후 유명인이 되어 공화당 지지 모임에 연사로 초청되기도 하며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로 중동에 파견되기도 하며 운명이 바뀌게 된다.

## (2) 맥케인의 공세

재정 적자에 대한 논의에서는 1, 2차 토론과 유사하게 맥케인은 오바마가 일리노이 주에서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재차 언급하였고 오바마는 부시 행정부가 방만한 예산을 경영하였으며 맥케인은 그것을 지지하였다고 공세를 펼쳤다. 오바마가 '부시 행정부가 들어온 이후 미국의 빚이 5조 달러가 넘었으며 맥케인 후보는 부시의 예산 정책에 무조건 찬성한 사람이다'라며 공세를 펼치자 맥케인 후보는 '오바마 의원 나는 부시 대통령이 아니에요. 부시 대통령과 맞붙으려고 하시면 4년 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야죠'라며 일침을 가하였다. 재정 위기 극복 정책이나 구체 금융과 관련된 주제에 대한 토론에서는 1, 2차 토론에서 나온 내용의 반복되었다.



이에 대해 사회자인 밥 쉬퍼가 이번 대통령 선거전에서 부정적 내용의 공격이 많았으며 면대면 으로서도 그런 내용의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유도하자 맥케인은 ‘이번 선거는 상당히 치열한 선거전이다. 그런데 나는 부정적 슬로건과 모토들을 폐기하였는데 오바마 후보도 폐기할 의사가 없느냐’며 ‘오바마 후보야말로 미국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부정적 광고에 투입했다’며 ‘오바마 후보는 경선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공화당 후보와 마주 앉아 캠페인 비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선거 비용을 부정적 광고에 모두 투입하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라며 열띤 공세를 펼쳤다. 그러자 오바마 후보는 ‘밥(사회자), 당신 방송사인 CBS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2/3는 맥케인 후보의 광고가 부정적이고 1/3이 내 광고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는 사실 알고 있지요’라며 ‘맥케인 광고는 100% 부정적입니다. 100%!’라고 강조하며 응수한 후 ‘오늘 토론마저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건강 보험이나, 에너지 정책, 조세 정책, 금융 위기 타개책 같은 주제에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하자 그것이 미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다’라며 더 높은 가치에 호소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래도 맥케인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공화당의 건강 보험에 대한 오바마 후보의 부정적 광고를 보면 진실이 아니란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그리고 나의 이민 정책에 대한 오바마의 부정적 광고도 온 국민들은 다 안다. 지금 그걸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민주당 의원 루이스의 주장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토론이 있기 몇 주 전 조지아 주 민주당 의원인 존 루이스는 공화당 유세에서 너무 부정적 단어들과 구호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를 수집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흑인 인권 운동 기간 중 백인 우월 주의자들이 내뱉은 말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오바마 후보를 지지하는 루이스 의원이 맥케인 후보 공격을 위한 전략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이를 맥케인 후보가 다시 역으로 오바마 후보야말로 부정적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오바마는 존 루이스가 ‘지금 공화당 유세에서 나오는 말과 흑인 인권 운동에서 나오는 말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비유다’라며 여유를 보이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오바마는 유세 중 당신 지지자들이 나를 ‘테러리스트, 죽여라 하는 데도 당신의 러닝메이트는 제지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걸 정말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며 반문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미국 유권자들이 정치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니까 화제를 돌려 건강 보험에 관련하여 토론하자고 제안하자’ 맥케인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사회자도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인 건강 보험으로 유도하였다. 그러나 맥케인은 기회만 있으면 오바마 후보 유세의 부정적 단면을 공략하려 하였고 오바마 후보는 ‘토론이 맴도니까 상대방의 좋은 점 혹은 정책의 장점에 대

해서 토론 하자’며 여유를 드러내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맥케인은 계속해서 오바마와 윌리엄 에이어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전력과 행적에 대한 공약을 이어갔다. 윌리엄 에이어는 1960년대 폭력 반전 데모 운동을 하며 의사당과 펜타곤에 폭탄을 터트리기도 한 인물인데 2001년 자수하여 무죄로 풀려났으며 2008년 당시 시카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민주당 경선 기간중 힐러리 클린턴이 그가 속한 단체에 오바마 후보가 기증을 하였다고 공세를 펼친 적이 있었다. 이를 맥케인 후보 측은 유세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던 쟁점이었다. 윌리엄 에이어에 대한 쟁점은 미국이 월남전을 치를 때 맥케인은 포로 생활을 한 애국자로 부각되는 반면 윌리엄 에이어는 반전 운동을 한 인물로 대조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맥케인은 윌리엄 에이어와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며 오바마는 맥케인의 공세에 피해 가지 못하고 변호를 하게 된다. 오바마는 ‘윌리엄 에이어가 내가 8살 때 잘못 판단하여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카고 대학 교수이며 10년 전부터 일리노이 교육 개혁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개혁 단체는 레이건 대통령 시절 대사를 역임한 사람과 아넬버그씨가 자금을 대고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총장과 공화당원인 노스웨스턴대학교 총장도 그 단체 멤버이다’라며 ‘에이어는 지금 내 선거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가 백악관에 가도 나는 그의 조언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길게 해명하였다. 토론에서 상대의 약점에 대한 공격은 상대가 보완할 발언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때로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오바마는 충분히 해명을 하였으며 이어서 자신은 이번 선거에서 워렌 버핏, 페덱스 사장 폴 볼커 등과 같은 인물들과 자주 경제 문제를 상의하며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 부통령후보, 공화당원인 상원외교 위원 딕 루거, 전 나토 사령관 짐 존스와 상의한다며 참모들의 우수성을 앞세우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맥케인이 재차 ‘당신은 에이어가 속해 있는 단체에 230,000달러 기증했다’라며 집요하게 공세를 펼치자 오바마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자 맥케인 후보는 ‘사실은 사실이고 과거는 과거가 맞지 않느냐’며 공세를 마무리한 후 여유롭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질문으로 방향을 돌린다. 맥케인의 공약은 성공적이었으며 3차 토론에서 맥케인이 점수를 얻는 순간이었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관련 토론에서 맥케인 후보는 ‘미국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1차 토론에서 밝힌 45개의 추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정책을 내어놓으며 ‘풍력 발전, 조력 발전, 태양력 발전, 천연 가스 사용 확대 정책을 개발하여 보완해야 한다’고 피력한 반면 오바마는 ‘국내 석유 시추를 증설하고 동시에 태양열, 풍력, 바이오 디젤, 지구열 발전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바마

는 고효율성 연료 자동차가 일본이나 한국에서 먼저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그리고 한국과의 FTA를 거론하면서 ‘수백만 대의 한국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입되는데 미국 자동차는 고작 수천 대만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부시 정부가 추진한 한국과의 FTA를 비판하였다. 맥케인은 ‘오바마 후보는 우리 우방과의 자유 무역은 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적대 국가 지도자인 샤베즈와는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한다’ ‘오바마 후보는 자유 무역을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 역사상 자유 무역을 거부한 대통령은 허버트 후버이며 그 후 경기 악화가 경제 공황으로 이어진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며 오바마의 견해를 자유 무역 거부로 공세를 펼쳐나갔다. 건강 보험과 관련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주제에서도 맥케인은 오바마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사회자 밥 쉬퍼의 질문 내용에 부합하여 성실히 답변하였으나 맥케인은 밥 쉬퍼의 질문을 활용하여 매번 오바마에게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 지지도가 뒤쳐진 후보자로서는 당연한 전략이었다.

### (3) 3차 토론 평가

3차 토론에서 오바마는 수세적 입장을 취한 반면 맥케인은 더욱 공세적 입장을 취하였다. 지지도에서 큰 차이로 앞서 있던 오바마의 전략은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지거나 이탈하지 않게 실수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부드럽게 상대의 예리한 공격의 칼날을 누그러뜨린다는 전략으로 임하였다. 3차 토론은 평범한 실제 시민들이 토론의 사례로 등장하면서 유권자들이 재미있게 시청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맥케인이 오바마 후보 인물에 대한 과거 행적과 정책에 대한 과거 입장을 구체적 공략함으로써 내용면에서는 우위를 점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비언어적 제스처나 표정에서 맥케인은 너무 긴장되어 보였으며 마치 공격을 기다리는 권투 선수 같은 이미지로 인해 전반적으로 큰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맥케인의 지나친 공세적 입장이 오히려 역기능을 하기도 하였지만 ‘조 배관공’ 전략이나 오바마의 행적에 대한 공략은 효과적이었다. 3차 토론에서 오바마는 1, 2차 토론 때 보다 더 나은 점수를 얻었다고 할 수 없는 토론이다.

3차 토론이 끝난 후 폴리틱코사 여론 조사에 의하면 58%가 오바마가 우세하였다고 답한 반면 22%는 맥케인이 우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토론 직후 부등층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49%가 오바마가 우세하였다고 한 반면 46%가 맥케인이 우세하였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Political Wire, Oct. 15, 2008). 이 응답자 중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표본 조사에서는 51%가 맥케인이 우세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42%가 오바마가 우세하였다고 응답하였다. 1차 토론 평가와 2차 토론 평가의 자료에 따르

면 CNN과 CBS의 조사에서는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어 선거 전반의 지지도와 토론 효과에 따른 변화를 구분하기 힘든 반면 폴리티코사의 부동층 조사를 보면 3차 토론에서 맥케인이 선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케인은 ‘배관공 조’를 활용하여 평범한 시민과 동일시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 정책에서는 양 후보가 비등하였으나 과거 행적에 대한 질문과 외교 문제에 대한 맥케인의 반복된 수사적 전략은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수세적 입장을 취한 오바마는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얻었다. 도전자 입장인 맥케인에게 3차 토론은 토론이 반복되면서 앞선 토론 내용을 반복적으로 직접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7. 부통령 후보 선거방송토론

앨라스카 주지사 새라 패일린 공화당 후보와 델라웨어 상원의원 조 바이든 민주당 부통령 후보 간의 선거방송토론은 10월 2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사회는 PBS의 여성 앵커인 그윈 이필이 맡았으며 미국 대선 역사상 두 번째로 여성 부통령 후보자가 토론을 하였으며 여성 앵커가 맡은 토론회였다.<sup>5)</sup> 토론 시간은 90분이었으며 토론의 형식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후보자 1차 토론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전반은 9개의 3분 단위 형식으로 나누어 사회자가 주제에 대한 질문을 자유롭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을 택했다. 그리고 추가 질문에서는 주제에 구애 받지 않고 서로 자유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1) 사회자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

사회를 맡은 그윈 이필은 토론회가 있기 며칠 전 그녀의 책 “혁신: 오바마 시대의 정치와 인종”이 2009년 1월에 발간될 예정이란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비평가들은 그윈 이필이 오바마가 당선되면 저자 인쇄료로 돈을 벌 행사를 맡았다고 비난하였다. 그러자 공화당 참모들은 민주당 후보로서 1984년 낙선한 ‘월터 먼데일의 시대’란 책도 2004년 낙선한 ‘존 케리의 시대’와 같은 책을 집필해 봐야 인쇄료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역설법으로 관용의 이미지를 보였다. 맥케인 후보도 ‘이필이 공평한 사회를 볼 것을 확신한다’며 ‘그녀가 오바마 후보에 대한 책을 쓴 것을 후회할 것’이라며 형평성의 쟁점을 유머스럽게 자

5) 1984년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부통령 후보자 제랄드린 안네 페라로 민주당 후보와 당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공화당 부통령 후보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신의 관용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양당의 참모들은 오히려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 보다 더 많은 사회자의 권한을 부여하고 토론을 보다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합의를 하였다. 토론회가 끝나고 실시한 한 여론 조사에서 95%가 이필이 사회를 공정하게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 2) 양 후보의 공략과 대응 전략

패일린은 8월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후 ‘열성 이미지’ 구축을 하는 동안 일어난 잦은 말실수로 인해 9월에 들어와 인기가 급락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패일린은 이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전략을 택하였으며 바이든은 오바마 후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실수를 피하자는 전략으로 임하였다. 패일린은 에너지 정책과 같은 국내 정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바이든은 외교와 국방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29세에 상원의원이 된 바이든은 오바마가 자신의 일천한 중앙 정치 경력과 자신의 외교와 국방 분야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 선택한 러닝메이트로서 외교와 국방 분야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바이든은 패일린을 직접 공략하는 것을 자제하고 맥케인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나갔다. 마찬가지로 패일린도 바이든에 대한 공략 보다 오바마에 대한 공략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바이든은 패일린의 오바마 후보 공격에 대한 방어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나 패일린은 바이든의 부시 행정부와 맥케인 후보 공격에 대한 방어에 보내는 시간 보다 맥케인 후보와 자신이 워싱턴의 정치 풍토를 개혁하겠다는 정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바이든은 대중 유세 중에 맥케인 후보를 ‘독불장군(maverick)’이라고 하였던 발언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과를 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확전에 대한 쟁점에서 바이든은 사령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사령관(Commanding General)이라고 하였으나 패일린은 아프간 사령관의 이름을 맥클랜 장군(General McClellan)이라고 발음하며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신뢰도를 높여 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토론 후 사령관의 이름이 맥클랜 장군이 아니고 맥키어넌(McKiernan) 장군이라고 공략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바이든은 자신이 패일린 후보보다 맥케인 의원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전략으로 공략하였지만 패일린은 맥케인 후보의 정책과 자신의 비전에 대한 설명을 쉽게 잘 설명하며 바이든의 공략을 응수하였다.

토론회의 마지막에 바이든은 자신의 아내와 딸을 잃고 두 아들이 부상을 당한 교통사고를 상기하며 ‘아빠로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어려우며 어떻게 해야 하는 가’라며 상대 후보가 여성이란 점을 함의적으로 공략하면서 감성적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자 패일린은 이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정강 정책을 소개하며 마무리 발언을 마쳤다. 민주당의 강공으로 인해 정치적 상처를 많이 받고 있던 패일린이 기대 보다 잘 하였다는 평가를 받은 토론회였다.

닐슨 미디어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인 시청 인구인 5천 2백 만천 보다 많은 7천만 명 가까이 시청한 것으로 밝혀지며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시청한 토론 부통령 선거방송토론으로 기록되었다. 대통령 선거방송토론과 부통령 선거방송토론 역사상 통틀어 두 번째로 시청률이 높은 토론회였다. 1980년 레이건 후보와 카터 후보의 토론이 8천 1백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1위를 점하고 있다. 부통령 후보 토론에 이렇게 높은 시청률이 나온 것은 새롭게 등장한 패일린에 대한 토론 능력에 대한 관심과 다소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조 바이든에 대해 유권자들의 인물 탐구가 한 몫을 하였다. 이런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토론 능력에 대한 양 토론자에 대한 토론 능력평가는 기대보다 낮았으나 대통령 후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기상 부통령 후보자 토론 후 선거전은 더 치열해져 갔으며 공화당의 약진으로 맥케인 후보에 대한 오바마 후보의 우위는 점점 좁혀져 가고 있었다.

## 8. 군소 정당 후보 토론

2008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4명의 군소 정당 후보가 출마하였다. 먼저 2000년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변호사이며 사회운동가 무소속의 랄프 네이더, 전직 조지아 출신 하원의원 자유주의자당 밥 바르, 목사 출신 헌법당 척 발드윈, 녹색당 후보인 전직 조지아 출신 하원의원 신티아 맥키니 등이 출마하였으며 이들은 선거에서 네이더가 738,720표, 밥 바르가 523,713표, 척 발드윈이 199,437표, 신티아 맥키니가 161,680표를 획득하였다. 랄프 네이더는 2004년 출마시 군소정당 후보자도 CPD가 주최하는 선거방송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시위를 펼치다 체포된 사건이 있으며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군소 정당 후보자의 토론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한 계기도 되었다. 2000년 대선에서 녹색당 후보였던 네이더는 부시와 알 고어의 득표수 재개표 논란을 일으켰던 플로리다에서 알 고어의 득표를 잠식함으로써 민주당 측으로부터 부시 당선에 일등 공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의 표가 알 고어로 갔다면 고어가 대통령에 당선 되었을 것이다. 네이더는 환경 문제에 대한 업적으로 많은 미국 사람들로 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었다.

첫 번째 군소정당 후보자 토론은 2008년 10월 15일 뉴욕시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네이더 후보, 발드윈 후보, 맥키니 후보 간에 개최되었으며 군소 방송사 ‘퍼시픽

라디오'의 에미 굿맨이 사회를 보았으며 '데모크사시 나우'라는 진보 단체가 주최하였다. 밥 바르는 전략적으로 일정상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지만 네이더와 일대일 토론회를 하면 반드시 나가겠다고 공표하였다.

두 번째 토론은 2008년 10월 23일 워싱턴 D. C.에서 '프리 앤드 이퀄' 단체가 주최하였으며 여론 조사 상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기준에 합당한 네이더와 발드윈 두 후보자만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었으며 C-Span으로 방송 중계를 하였고 브레이크 더 매트릭스(BtM: Break-the-Matrix)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다. 2008년 군소 정당 후보 토론회 개최의 필연성에 대해서는 2000년 창립한 '시민토론위원회(CDC: Citizen Debate Commission)의 그 동안 사회운동의 노력에 영향을 많이 받은 토론이었다. CDC는 대통령 선거토론위원회(CPD)를 비평하며 미국의 정치 발전의 대안을 강구한다는 명분으로 창립한 단체이며 진보 단체와 많은 연계를 맺고 있다. CPD의 후보자 초청 기준인 여론 조사 15%이상을 CDC는 5%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CPD가 자본과 기업에 오염되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CDC는 2007년 11월, 2008년 대선 방송토론을 태풍 피해를 입은 뉴올리언스에서 개최하자고 다소 엉뚱한 제안을 하였으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거절하였다. 또한 2008년 4월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토론을 중계한 적이 있는 구글과 유튜브 회사는 9월 18일 뉴올리언스에서 토론회 개최를 주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두 후보자 측은 모두 거절하였다. CDC의 주장은 아직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 9. 논의 및 결론

3차 토론 4주 후에 열린 11월 4일 대선에서 맥케인은 오바마를 따라잡지 못하고 52.4%와 45.7%로 오바마가 승리하게 된다. 위의 여론 조사로 볼 때 선거방송토론이 직접 지지도를 변화시켰다는 확실한 단서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3차 토론에서 맥케인 후보의 선전을 보듯이 후보자가 토론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지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유추할 수 있다. 73세의 맥케인은 48세의 오바마 후보와 90분간 스튜디오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공방을 펼쳤다는 점에서 맥케인 후보가 토론에서 선전하였다고 평할 수 있다. 그리고 2008년 미국 대선 토론에서 맥케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봉사 정신과 애국심과 같은 열정을 국민들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며 오바마는 자신의 경제 정책과 외교정책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각 후보는 미국이 당시 처한 정치 사회적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펼쳤다는 점에서 2008년

대선 방송토론은 의제 설정 기능을 잘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선거방송토론은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정책과 인물을 두고 상호 공방을 펼치는 기회를 제공하고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캠페인에 중요한 절차와 형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처럼 선거방송토론은 현대 선거캠페인에서 중요한 절차이며 형식이 되었으며 숙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의 속성으로 인해 토론의 본질인 정책 내용의 비교와 인물 검증보다 전달의 방식과 스타일에 보다 언론이 보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당의 기능이 더 약화되고 미디어의 역할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는 옳바르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열망에 부합하지 못하는 면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선거 캠페인을 어떤 방식으로 변형시킬지에 대한 예측과 이를 잘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 텔레비전 선거방송토론을 형식과 절차 면에서 보완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 2008년 대선 방송토론은 단점과 장점, 기능과 역할은 2012 대선을 앞둔 한국 선거방송토론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 참고문헌

- Banwart, M. C. & McKinney, M. (2005). Rocking the Youth Vote Through Debate: examining the effects of a citizen versus journalist controlled debate on civic engagement. *Journalism Studies*. v. 6 n. 2 pp. 153-163.
- Banwart, M. C. & McKinney, M. (2005). A Gendered Influence in Campaign Debates? Analysis of Mixed-gender United States Senate and Gubernatorial Debates. *Communication Studies*. v. 56, n. 4, pp. 353-373,
- Benoit, W. (2007). Determinants of Defense in Presidential Debate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 24, n. 4, pp. 319-325.
- Benoit, W. Hansen, G. & Verser, R. (2003). A meta-analysis of the effects of viewing U.S. presidential debates. *Communication Monographs*. v. 70 n. 4, pp. 335-350.
- Benoit, W. & Hansen, G. J. (2004). Presidential Debate Watching, Issue Knowledge, Character Evaluation, and Vote Choi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v. 30, n. 1, pp. 121-144.
- Bitzer, L., & Reuter, T. (1980). *Carter v. Ford: The counterfeit debates of 1976*.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Burns, A. (2008) Debate exclusive: Obama wins by a hair. Politico. Yahoo News. posted Oct. 16 retrieved from [http://old.news.yahoo.com/s/politico/20081016/pl\\_politico/14618\\_1](http://old.news.yahoo.com/s/politico/20081016/pl_politico/14618_1)
- Carlin, D. P. (1992). presidential debate and focal points for arguments. *Political Communication*, 9, 251-265.
- CBS (Oct. 08, 2008). CBS Poll Uncommitted Voters Favor Obama. posted Oct. 08, 2008. retrieved from [http://www.cbsnews.com/stories/2008/10/08/politics/2008debates/main4508430.shtml?source=mostpop\\_story](http://www.cbsnews.com/stories/2008/10/08/politics/2008debates/main4508430.shtml?source=mostpop_story)
- Friedenberg, R. V. (1997), *Rhetorical Studies of National Political Debates 1960-1996 (2nd. ed)*, Westport: Praeger Publications.
- Hellweg, S. A., Pfau, M., & Brydon, S. R. (1992),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dvocacy in Contemporary America*, Westport : Praeger.
- Jarman, J. W. (2005). Political Affiliation and Presidential Debates: A Real-Tim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Arguments Used in the Presidential Debate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49, n. 2, pp. 229-242.

- Jamieson, K. H. & Birdsell, D. S. (1988). *Presidential debate: The challenge of creating an informed electorat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Kaid, L., McKinney, M. S., & Tedesco, J. C. (2000). *Civic dialogue in the 1996 presidential campaign: Candidate, media, and public voices*. Cresskill, NJ: Hampton Press.
- Kenski, K. & Jamieson, K. H. (2011). Presidential and Vice Presidential Debates in 2008: A Profile of Audience Composition.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55 n. 3, pp. 307-324.
- Kenski, K. & Stroud, N. J. (2005). Who Watches Presidential Debates? A Comparative Analysis of Presidential Debate Viewing in 2000 and 2004.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49 n. 2, pp. 213-228.
- Kirk, R. & Schill, D. (2011). A Digital Agora: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2008 Presidential Debate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55, n. 3, pp. 325-347.
- Kraus, S. (2000). *Televised Presidential debates and Public Policy*.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New Jersey.
- Kraus, S. & Davis, D. K. (1981). Presidential debate. In D. D. Nimmo & K. R. Sanders (Eds.),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pp. 273-296). Beverly Hills, CA: Sage
- Levine, K. J. (2001). Election 2000, the Presidential Debates, and Nader: Would Participation Have Made a Difference?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44, n. 12, pp. 2219-2231.
- Marietta, M. (2009). The Absolutist Advantage: Sacred Rhetoric in Contemporary Presidential Debate. *Political Communication*. v. 26, n. 4, pp. 388-411.
- McKinney, M. S. (2005). Let the People Speak: The Public's Agenda and Presidential Town Hall Debate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49 n. 2, pp. 198-212.
- McKinney, M. S., Rill, L., & Watson, R. (2011). Who Framed Sarah Palin? Viewer Reactions to the 2008 Vice Presidential Debate.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55, n. 3, pp. 212-231.
- McKinney, M. S. & Rill, L. (2009). Not Your Parents' Presidential Debates: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CNN/YouTube Debates on Young Citizens' Civic Engagement. *Communication Studies*. v. 60 n. 4, pp. 392-406.
- Morris, E. & Johnson, J. (2011). Strategic Maneuvering in the 2008 Presidential Debate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55, n. 3, pp. 284-306.

- Patterson, T. A. (2002). *The vanishing voter: Public involvement in an age of uncertainty*. New York: Knopf.
- Pfau, M. (1987). The influence of intraparty debates on candidate preference. *Communication Research*, 14, 687-697.
- Political Wire (2008). Instant Debate Reaction, posted Oct. 15, 2008. retrieved from [http://www.politicalwire.com/archives/2008/10/15/instant\\_debate\\_reaction.html](http://www.politicalwire.com/archives/2008/10/15/instant_debate_reaction.html)
- Ricke, L. (2010). A New Opportunity for Democratic Engagement: The CNN-YouTube Presidential Candidate Debat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v. 7, n. 2-3, pp. 202-215,
- Sargent, G. & Kleefeld, E. (2008). Initial polls show Obama winning the debate. posted Sep. 27, 2008. retrieved from [http://tpmelectioncentral.talkingpointsmemo.com/2008/09/initial\\_polls\\_show\\_obama\\_winni.php](http://tpmelectioncentral.talkingpointsmemo.com/2008/09/initial_polls_show_obama_winni.php)
- Sears, D. O. & Chaffee, S. H. (1979). Uses and effects of the 1976 debates: An overview of empirical studies. In S. Kraus (Ed.), *The great debate: Carter vs Ford, 1976* (pp. 223-261)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chroeder, A. (2000). *Presidential debates. Forty years of high risk TV*.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 Steinhauser, P. (2008). [Obama picks up second debate win, poll says](#). CNN. posted Oct. 08, 2008. retrieved from [http://articles.cnn.com/2008-10-08/politics/debate.poll\\_1\\_obama-debate-watchers-mccain?\\_s=PM:POLITICS](http://articles.cnn.com/2008-10-08/politics/debate.poll_1_obama-debate-watchers-mccain?_s=PM:POLITICS)
- Stroud, N. J., Stephens, M. & Pye, D. (2011). The Influence of Debate Viewing Context on Political Cynicism and Strategic Interpretations.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55, n. 3, pp. 270-283.
- Trent, J. S. & Friedenber, R. V. (2000). *Political Campaign Communication : Principles and practices* (4th ed). Westport, CT: Praeger.
- Tulis, J. K. (1987), *The Rhetorical Presidency*,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arner, B., Carlin, D., Winfrey, K., Schnoebelen, J., & Trosanovski, M. (2011). Will the “Real” Candidate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Please Stand Up? 2008 Pre- and Post-Debate Viewer Perceptions of Candidate Image. *Th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v. 55 n. 3, pp. 232-252.

## 제2부 2010년 영국 총선 텔레비전 토론 분석

### 영국 총선 TV토론: 2010년 영국 총선 각 당 대표 토론을 중심으로

범기수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 1. 서론

2010년 5월 6일 실시된 영국의 총선은 영국 민주정치 역사에서 몇 가지 특이할 만한 특징을 보여주었다(김영일, 이정진, 김지, 2010). 우선 선거결과만 놓고 보면 노동당의 13년 장기집권이 끝나고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의 연정이 수립되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선거결과, 하원 총 650석 중 보수당이 97석을 추가해 306석이 되었고, 노동당이 91석을 상실해 258석, 자민당은 5석을 상실해 57석, 기타 정당들이 28석을 확보하였다. 보수당은 총선 이후 제1당으로 부상했지만 과반의석에는 미달함에 따라 제3당인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수립하였다. 둘째, 영국총선 투표율은 지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였지만, 이번 영국 총선에서는 직전 2005년 총선에 비해 약 4% 가량 증가했다. 투표율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서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의 표출과 영국 선거 사상 최초로 도입된 3당 당수초청 TV토론회로 인한 유권자 관심고조를 들 수 있다(김영일, 이정진, 김지, 2010). 셋째, TV토론을 통한 닉 클레그(Nick Clegg) 자유민주당 당수의 돌풍이다. 총선결과 의석수는 5석 감소해 57석에 머물렀으나, 득표율로만 본다면 보수당 36%, 노동당 29%, 자민당 23%로 제3당인 자유민주당의 영향력이 부각되었다. 자민당은 총선 후에는 보수당의 연정 파트너가 되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3당의 역할 찾기를 주도하게 되었고 영국의 양당제 정치시스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자민당이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게 된 데에는 당수 닉 클레크의 TV토론 승리를 통한 선거막판 대약진을 주도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영국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주요 3당 당수 초청 TV토론은 토론내용과 진행방식 두 가지 측면 모두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결국 2010년 영국총선 결과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영국 총선 TV토론의 내용과 형식 뿐 아니라 정치적 환경과 관련 제도 등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선거토론의 나아갈 길에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2010년 총선TV토론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영국의 미디어 정치와 TV토론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본 다음, 둘째, 2010 영국총선 둘러싼 선거상황과 정치 환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셋째, TV토론의 진행형식, 영상구성, 사회자, 질문자, 참여후보, 유권자 참여 등과 같은 토론형식과 진행

절차를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넷째, 세 차례 TV토론에서 나타난 3당 당수의 토론 내용과 스타일, 그리고 효과에 분석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2010 영국총선과 TV토론을 다룬 선행연구보고서와 논문, 뉴스 잡지, 신문보도, 토론 주관 텔레비전 방송사의 분석 기사, 그리고 BBC가 제공한 토론 녹취록 등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했다.

## 2. 영국의 미디어 정치와 TV토론

TV를 통한 매스미디어 정치는 전 세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영국에서도 1970년대 초에 정치 정보의 중요한 자원으로 TV를 활용한다는 응답자가 85%에 달할 정도로 TV의 정치적 활용률은 매우 높았다(서동구, 1992). 1964년 총선거에 자유민주당의 부상과 1980년대 대처, 1994년 블레어의 적극적인 TV 정치 활용 등의 사례에서 보듯, 영국의 TV 정치는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요한 선거 국면마다 유권자를 동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미디어로 작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 2010년에 들어서야 TV토론이 최초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외의 현상이다. 미국에서 케네디와 닉슨의 토론이 이루어진지 4년 후인 1964년 헤럴드 윌슨 노동당 당수의 제안<sup>1)</sup>으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영국의 TV토론은 지나치게 개인의 이미지만을 부각시켜 의회정치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도입이 미루어져왔다(마이크 콕커렐, 1989). 선거과정에서 TV토론 대신 평상시 의회토론 중계방송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도입 불가론의 근거였다. 영국 선거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는 ‘당수’에게 직접 투표하지 않고 해당 지역구의 출마자에게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수 간의 TV토론은 위헌소지마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수가 토론에 나가 큰 실수를 하게 되면 각 지역 선거구의 국회의원 출마자는 자신의 능력, 이미지, 정책을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등, 중앙정치에 의해 지역의 선거가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이 각 당 지도자의 TV토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05년 전 노동당 당수이자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TV토론을 거부했었고, 2010년 총선당시 브라운 총리도 위와 같은 이유로 TV토론에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정당에 비해 월등히 앞선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나 정치인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TV토론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더 현실적인 거부 이유가 될 것이다.

---

1) 1997년 토니 블레어 노동당 당수도 당시의 존 메이저 수상에게 TV토론을 제의하였으나 당수 간 TV토론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주영호 1997, 91).

한편, 영국에 TV토론과 형태와 비슷한 선거방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79년 그라나다 방송국은 3당 당수의 대토론 특집을 방영하였는데, 다만 이때의 토론은 3당의 당수가 모여서 함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출연하여 유권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큰 차이가 있다. 이 토론에서의 최후의 승자는 TV를 혐오하면서도 TV 정치를 가장 치밀하게 준비했던 대처였다(마이클 콕커렐 1989). 한편, 2009년에 TV토론을 대선에 처음 도입한 국가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몽고 등이라는 사실도 영국의 최초의 TV토론 사례와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상황이 달라졌다. 집권당인 노동당이 여론조사의 선두주자인 보수당을 잡기 위해 TV토론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집권당 후보는 생방송이라는 위험을 감내하며 유권자 앞에서 야당후보의 매서운 공격을 견뎌야하는 TV토론에 참여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정책만큼이나 이미지와 언변이 중요한 미디어 정치시대에 노동당 당수인 60세 고든 브라운 총리는 TV토론에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에 비해 옥스퍼드대 출신의 젊고 유능하며 언변과 호감이 가는 외모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 44세인 보수당 데이비드 카메론 당수와, 비슷한 이미지의 캠브리지대 출신의 43세의 닉 클레그 자민당 당수는 일찌감치 TV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브라운 총리를 압박했다. 지난 50년 동안 전통적으로 집권당 총리가 TV토론 참여를 거부하는 전통을 깨고, 이번 2010년 영국 총선에서는 집권당인 노동당의 지지율에서 떨어져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TV토론에 마지못해 응하게 되었다. 사실 영국의 ITV의 제안에 카메론과 클레그는 참여하기로 동의한 상태에서 브라운 총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그의 빈 의자를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압박을 가했던 것도 주효했다. 결국, 기존 권력의 실패를 부각시키고 새로운 변화와 교체를 바라는 야당의 입장과 지지율 만회를 바라는 여당의 입장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결과 마침내 TV토론이 성사될 수 있었다. 또한 의회 경비 지출과 관련된 하원의원들의 스캔들로 인해 정치혐오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선거와 정치전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TV토론을 하나의 선거이벤트로 이용하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정치사에 TV토론이라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되었다.

### 3. 영국정치상황 개괄<sup>2)</sup>

다음은 2010 영국총선 TV토론에서 쟁점이 되었던 각 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당 별 정치성향, 정당별 선거공약에 대해 기술한다.

---

2) 김영일, 이정진, 김지 (2010). <2010 영국총선의 분석과 향후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참조로 작성됨.

## 1) 주요 정당의 유래와 정치적 성향

### ①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보수당의 기원은 17세기 중반 정당의 모습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의회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 17세기 후반 국왕의 승계 문제를 둘러싼 국왕과 의회와의 갈등 속에서 토리파와 휘그파라는 두 정파가 나타났는데, 당시 토리가 보수당의 기원이 되었다. 토리는 지주 및 귀족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띤 집단이었다, 지금도 보수당을 토리(Tory)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보수당이라고 하는 정당 명칭에서도 보이듯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친기업적이고 반규제적인 정책을 추구한다. 2차 대전 시기 노동당과의 연정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복지정책 유지 등 중도노선을 취하기도 하였다. 1975년 대처가 보수당 당수로 선출된 이후 기존의 중도노선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시장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1997년 노동당의 집권이후에는 중도보수노선으로 방향을 바꾸었는데, 2005년 당수가 된 데이비드 케머론(David Cameron)은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분배의 정의를 중시하는 온정적 보수주의로 분류된다.

### ② 노동당(Labour Party)

전통적으로 노동자, 노동조합, 사회주의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1900년에 창당되었다. 출범초기 영향력이 미미했으나 1차 대전을 거치며 여성과 노동자의 역할이 확대되고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영향력이 커졌다. 1922년 이후 보수당과 더불어 양대 정당으로 부상했으며, 1945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1990년대 이후는 중산층을 기반으로 지지기반의 변화를 꾀했다. 원래 부의 공평한 재분배,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한 국가의 개입, 복지정책의 확대 등 사회주의 이념에 기반을 두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중도노선으로 바뀌었다. 토니 블레어는 “제3의 길”을 주장하면서 시장경제정책을 수용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세 번의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어 13년간 내각을 책임졌다.

### ③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1988년 자유당(Liberal Party)과 사민당(Social Democratic Party)이 합당해 결성된 정당이다. 17세기 휘그파를 기원으로 1859년 창당된 자유당은 보수당과 함께 영국의 양대 정당을 형성했으나 1922년 노동당의 약진으로 제3당으로 당세가 약화되었다. 사민당은 1981년 노동당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당으로 1983년 총선에서는 26%의 득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신생정당으로서 약진하였다. 1987년 총선에서는 자유당과 선거연합으로 22.6%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소위 다수대표제 방식에 의해 의석은 22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자민당은 중도, 혹은 중도좌파 정당으로 분류되며 개인의 자유권 신장과 복지국가 확대를 주장한다. 사민당의 복지국가, 세금인상, 공공지출 확대 정책과 자유당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우선 정책을 결합한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경제 분야는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주장한다. 닉 클레그 당수는 “진취적인 중도좌파” 정당이라고 설명한다.

## 2) 2010 영국총선 정당 공약

주요 세 정당의 공약은 경제, 안보, 대 EU 정책 분야에서 주된 차이를 보였다(김영일, 이정진, 김지, 2010). 아래 표에 나온 바와 같이 경제 정책의 경우 재정 적자 축소 방안이 큰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보수당의 경우 신속한 재정적자 감축을 공언한 반면, 노동당은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이유로 재정적자를 2014년까지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는 다소 느슨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보정책의 경우 보수당과 노동당은 이라크 참전 및 대 이란 군사 제재안에 찬성하였으나 자민당은 대 이라크 참전 반대와 이란 군사 제재에 반대 입장을 표했고 국방비 감축도 제시하였다. 대 EU 정책의 경우 보수당은 EU 통합 강화에 반대하였고 자민당은 EU와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적극적 참여를 공언했다.

〈표 1〉 주요 3당 공약 비교3)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경제 및 세제	2010년부터 신속한 재정 적자 감축을 시작할 - 공공 분야 지출 축소 - 향후 5년간 내각 급료 5% 삭감, 의원수 10% 감축	급격한 감축보다는 비효율적인 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 2014년까지 재정 적자 규모 절반으로 감축	재정 적자 감축 위해 강력한 정책 시행 - 공무원 급료 인상 한도 설정 - 고가 주택 매입세 도입
보건 및 교육	- NHS 재정지원 증대 - 정부 지원 하에 학부모, 자선 단체 및 기업에 의한 학교운영 허용	- 환자 권리 법제화 - 초등학교의 1대1 수업 지원	- 보건부 절반 규모로 축소 -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 자율권 부여
외교 및 국방	EU 통합 강화에 반대, - 이라크 및 아프간 참전 찬성 - 유럽 및 북미 외 지역에 대한 동맹 관계 강화	- 고등, 경제 성장, 국제적 영향력 확보 위한 EU 의제 주도 - 이라크 및 아프간 참전 찬성	- EU와의 공조 강화 - 대 이란 군사적 제재 및 이라크 참전 반대 - 국방부 축소
환경	역사상 가장 환경 친화적인 정부 표방 - 탄소 배출액 감소 및 재활용 유도 정책 수립	청정 에너지 사용 장려 환경 관련 일자리 창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3) 출처: 김영일, 이정진, 김지 (2010). <2010 영국총선의 분석과 향후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p.15



#### 4. 2010 영국총선 TV토론 진행방식 개괄

〈표 2〉 2010 영국총선 TV토론 진행방식 개괄

제목	방송일	지역	제작	진행자	주요 테마	하위 테마
The First Election Debate	2010. 04.15; 20:30	Granada Studios, Manchester	ITV Studios	Alastair Stewart	국내 문제	국가 건강 서비스(NHS): 교육, 이민, 치안, 가족, 헌법, 정치에 대한 신뢰, 정치 개혁
The Sky News Debate	2010. 04. 22; 20:00	Arnolfini, Bristol	British Sky Broadcasting	Adam Boulton	국제 문제	국제 관계 :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중동, 국방문제, 국제 테러리즘, 유럽, 미국, 기후 변화, 중국, 국제 개발
The Prime Ministerial Debate	2010 04. 29; 20:30	The Great Hall, University of Birmingham	BBC	David Dimbleby	경제 문제	공공서비스 예산, 조세, 부채, 무역 적자, 불황, 경제 회복, 은행업, 금융업, 연금, 일자리

##### 1) 토론 참여 당수

영국(United Kingdom)의 전국적인 의석을 가진 3개 주요 정당 당수가 참여했다. 노동당 고든 브라운 총리(Gordon Brown, 노동당), 보수당 데이비드 케머론 당수(David Cameron), 자유민주당 닉 클레그 당수(Nick Clegg) 등 3인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등의 지역별 의회의 정당 당수 토론회는 따로 개최되었다.

##### 2) 주최

선거 캠페인 전략가, 신문 기자, TV 프로듀서 등 70명이 넘는 전문가 집단들의 수많은 회의를 거쳐 2009년 12월 21일 세 개 정당과 BBC, ITV, BSkyB 방송국은 2010 총선 캠페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다. 토론은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3주 동안 이루어지거나, 선거인 명단 발표와 선거일 사이에 4주 이하의 간격이 있을 경우 2주에 걸쳐 진행되기로 되었다. 각각의 방송국은 동일한 포맷으로 각각의 토론회를 제작하였다. 선거 3주전인 4월 15일에 ITV는 북서부 지역 토론을, 2주전 4월 22일 The Sky News는 남부/남서부 지역 토론을, 마지막 1주전인 4월 29일 BBC는 중부 지역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3) 토론 형식

방송은 85분에서 90분 길이로 진행되며, 방송시간의 절반은 국내/외 이슈, 경제 문제와 같은 특정한 주제를 다루기로 합의했다. 방송 사이에는 상업광고가 삽입되지 않으며 각각의 토론은 prime time인 오후 8시에서 10시에 방송된다.

토론 형식은 미국의 사회자질문형 방식과 타운 홀 방식, 프랑스의 후보 간 자유토론 등 세 가지 방식을 혼합한 새로운 형식을 채택하였다. 무대 위 3명의 당수가 탁자 뒤에서 진행된다. 토론 시작에 앞서 1분간의 연설시간을 갖은 다음, 청중에 의한 토론질문에 대해 각각의 토론자가 1분간의 답변과 1분간의 반론을 갖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과 반론이 끝나면 최대 4분까지 토론자 간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다. 응답 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세 명의 당수가 악수를 하고 끝낸다. 세 번의 토론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규칙에 의해 진행되었다.

### 4) 청중

토론이 열리는 도시의 반경 30마일 안에 거주하는 약 200명으로 구성된다. 성별, 나이, 인종, 계층 등의 인구구성비율을 감안해 여론조사업체인 ICM에 의해 선정된다. 약 80%의 청중은 투표결정을 내린 집단이고 약 20%는 부동층이거나 군소정당 지지자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을 제외하고 청중은 박수를 칠 수 없다. 청중에 대한 클로즈업 샷은 특정 당수가 청중 개인에게 직접 답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허용하지 않는다. 청중의 질문은 사전에 공중으로부터 온 질문 중에 선정된 것을 지정받아 질문한다. 공중으로부터 온 이메일 질문을 사회자가 읽기도 한다.

### 5) 질문유형

질문은 선거의 중요쟁점이어야 하고 세 개 정당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 별 정책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슈,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 총리의 역할에 적절한 이슈 등이 포함된다.

### 6) 질문 선택과정

각각의 방송국은 공중에 의해 제출된 질문 중에서 질문 선택을 위한 패널을 구성한다. 토론진행방식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3당이 합의한 토론 세부규칙에 잘 나타나있다. 2010년 3월 1일, 프로그램의 76개의 세부 규칙들과 토론자와 진행자의 이름이 함께 공개되었다.

## 5. TV토론 프로그램 관련 법규 및 세부규칙

### 1) 선거 관련 영국 방송 프로그램 법규<sup>4)</sup>

선거방송 토론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법규는 없지만, TV 토론의 주관이 방송국인 이유로 선거토론 방송의 제작과 규제는 영국의 방송심의위원회(Ofcom)의 선거방송 관련법인 커뮤니케이션법의 319조(2)(c)와 320조와 유럽인권협약 10조에 준거한다. 다음은 2003년 재개정된 커뮤니케이션법의 319조(2)(C) 중 선거토론방송과 직접 관련된 6장의 내용이다. 다음 조항은 ‘선거’와 ‘국민투표’와 관련된 용어 정의 및 세부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 선거와 국민투표 <Election and Referendum>

(커뮤니케이션법의 319조(2)(C) 6장)

(관련 법률은 특히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319조(2)(c)와 320조와 유럽인권협약 10조를 포함한다. 방송사업자는 또한 1983년 국민대표자법(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RPA) (개정)의 관련 조항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66A조, 92조와 93조를 참조할 것(이는 2000년 정당,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법(the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2000)의 144조에 의해 개정되었음).

규정의 본 조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BBC 이사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수신료 또는 보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BBC 서비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규칙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의 333조에 의거하여(정당선거 방송, 정당정치 방송과 선거 캠페인 방송에 관한) 제정되었으며 부칙 12의 18조는 Ofcom 웹 사이트에 있는 정당정치와 선거방송에 관한 Ofcom규칙(Ofcom Rules on Party Political and Referendum Broadcasting)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내용이 일반적으로 관련된 정치정당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송은 또한 본 규정의 관련 조항, 예를 들면 유해성과 폭력에 관한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 방송위원회. (2006). 영국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규정. 방송조사자료 2006, (4), pp. 40-45

## 원칙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에서의 특별한 공정성 기본 요건과 선거와 국민투표에 대한 방송과 관련된 다른 법률이 선거와 국민투표 기간에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 규칙

### 선거와 국민투표 기간의 프로그램

6.1 특히 중요한 정치 또는 산업적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와 현 공공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관한 규칙인, 5장에 있는 규칙은 선거와 국민투표에 대한 보도에 적용한다.

### 영국의 선거와 국민투표 기간의 프로그램

본 항의 나머지는 아래에 정의된 실제 선거와 국민투표 기간에만 적용한다.

#### “선거”의 의미: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선거는 의회 총선거, 의회 보궐선거, 지방정부선거, 시장선거, 스코틀랜드 의회선거, 웨일즈, 북아일랜드와 런던 의회선거, 그리고 유럽의회 선거를 포함한다.

#### “국민투표”의 의미:

본 장의 목적을 위해, 국민투표(2000년 정당, 선거, 국민투표에 관한 법률 적용함)는 영국 전역, 전국 또는 지역 국민투표를 포함하지만 지방 국민투표까지 확장하지 않는다.

6.2 선거기간 동안 주요 정당의 보도에 대해 정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또한 다른 정당과 무소속 토론자에 대해 중요한 견해와 관점으로 타당한 보도를 제공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주요 정당”의 의미:

현재 영국에서의 주요 정당은 보수당(the Conservative Party), 노동당(the Labour Party)과 자유민주당(the Liberal Democrat)이다. 더불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주요 정당은 각각 스코틀랜드 국민당(the Scottish National Party)과 웨일즈 국민당(Plaid Cymru)이다. 북아일랜드의 주요 정당은 민주연합당(the Democratic Unionist Party), 신페인당(Sinn Fein), 사회민주주의노동당(Social Democratic and Labor Party), 그리고 얼스터연합당(the Ulster Unionist Party)이다.

“선거기간”의 의미:

의회 총선거에 대한 이 기간은 의회 해산 발표로 시작된다. 의회 보궐선거에 대한 이 기간은 공식 서한을 발부함으로써 시작되거나 런던가제트(London Gazette)에 공지된 것에 비해 좀더 빨리 시작한다. 스코틀랜드 의회에 대한 기간은 스코틀랜드 의회해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 공석의 발생 일자로부터 시작한다. 웨일즈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 런던 의회, 그리고 지방정부 선거에 대한 그것은 선거 공지의 발표에 대한 마지막 날짜이다. 유럽 의회선거의 경우, 선거 공지의 발표에 대한 마지막 날짜이며 선거 전 25일이다. 모든 경우에서, 그 기간은 투표 마감으로 종료된다.

후보자의 의미:

후보자는 1983년 국민대표자법(개정)의 93조에 그 의미가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 후보자로 지명을 받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제출된 후보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입후보자를 뜻한다.

6.3 국민투표 기간 동안의 보도에 있어서 지정된 조직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방송사업자는 또한 중요한 견해와 관점을 갖고 다른 허가된 참여자에 대해 타당한 보도가 제공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지정된 조직”과 “허용된 참여자”의 의미:

지정된 조직과 허용된 참여자는 선거관리위원회(the Electoral Commission)에서 지정된 자이다.

“국민투표 기간”의 의미:

국민투표에 대해 각기 다른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1998년 북아일랜드법 (the Northern Ireland Act (개정))에 의거한 국민투표는 명령 초안이 상하원에 의한 승인을 위해 의회에 제출할 때에 시작된다. 다른 법에 의거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민투표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는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회에 앞선 명령의 경우, 시기는 그 명령 안에 명시될 것이다. 모든 경우에서, 그 기간은 투표 마감으로 종료된다.

6.4 선거와 국민투표 쟁점에 관한 토론과 분석은 투표가 시작될 때에는 끝나쳐야 한다(이는 실제 투표소의 개장을 뜻한다. 본 규칙은 완전히 우편으로 실시되는 투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5 방송사업자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투표일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수 없다(유럽의회선거의 경우, 본 조항은 유럽연합국가 전체 투표가 종료할 때까지 적용한다).

6.6 영국 선거에서의 후보자와 영국 국민투표에서 허용된 참가자의 대리인은 선거기간동안 어떤 유형의 프로그램에서도 뉴스 진행자, 면접자 또는 진행자로 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6.7 선거 또는 국민투표 기간 이전에 계획되고 일정이 잡힌 비정치적 프로그램에 후보자(영국 선거) 또는 대리인(영국 국민투표에서의 허용된 참가자)은 출연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출연을 계획하고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에서의 선거구 보도와 선거지역 보도

(규칙 6.8부터 6.13은 S4C가 RPA에 의거하여 규칙을 실행규정으로 채택할 경우, S4C에 적용할 뿐이다.)

6.8 불편부당성은 선거구 보도나 토론과 선거지역 보도나 토론에서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선거지역의 의미:

선거지역(예를 들어, 선거구역, 선거구 또는 다른 지역)은 의회용어인 “선거구와 동등한 지방 자치이다.

6.9 후보자가 자신의 특정 선거구나 선거지역에 관한 기사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주요 정당의 후보자에게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그러나 그들이 참여하기를 거절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는 진행할 수 있다).

6.10 방송사업자는 규칙 6.9에 첨부하여 이전의 높은 선거 지지를 받은 정당을 대표하거나 현재 높은 지지도의 증거가 있는 선거구 또는 선거지역의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구 또는 선거지역 보도와 토론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무소속 후보자에도 적용된다(그러나 그들이 참가하기를 거절하거나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는 진행할 수 있다).

6.11 지명이 마감된 후의 어떤 선거구 또는 선거지역 보도나 토론은 이름, 성과 개인이 대표하는 정당이름 또는 입후보자가 무소속일 경우에는 그가 무소속이라는 사실을 제공하는 모든 입후보자의 명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는 음성과/또는 영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라디오의 선거구 보도가 동일한 날에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전체 명단 의무만은 한 차례 방송되어야 한다. 그 날에 다음의 반복에서 선거구 보도가 후보자의 전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후보자를 열거하고 있어 위에 제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웹 사이트나 다른 정보원을 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12 선거가 선언된 후에 후보자가 어떤 사안에 관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다른 어떤 후보자에게 유사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때에는 그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구 또는 선거지역에 관한 선거구 점수 또는 선거지역에서 득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후보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13 좀 더 광역화된 선거지역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 의회, 웨일즈 의회, 북아일랜드 의회, 런던 의회 또는 유럽 의회에 관해 보도할 경우에 규칙 6.8부터 6.12는 후보자에 대한 참여를 제공하는 데 적용된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지역에 후보자를 갖고

있는 모든 정당이 음성과/ 또는 영상으로 열거되어야 하지만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당명단에 없는 무소속 후보자 이름은 제시되어야 한다. 라디오에서의 보도가 동일한 날에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전체 명단 의무만은 한 차례 방송되어야 한다. 그 날에 다음의 반복에서 선거구 보도가 후보자의 전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후보자를 열거하고 있어 위에 제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적절한 웹 사이트나 다른 정보원을 수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2) TV토론 프로그램 세부규칙 (Prime Ministerial Debates - Programme Format)<sup>5)</sup>

### (1) 청중선정

1. 본 규칙의 목적은 영국 전역의 인구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청중을 선정하는데 있다.
2. 청중은 토론 개최장소의 청중 수용량을 이유로 대략 200명으로 구성한다.
3. ICM(여론조사회사)이 청중 선정 외주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청중 선정 방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선정 방법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4. 청중은 ICM이 개정한 선거구 명단을 반영, 토론회 개최 도시에서 30마일 반경에 거주 하는 자를 선정한다.
5. 성별, 나이, 인종, 사회적 계층 등을 반영한 청중 선택은 선거 가능 인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다. 청중 선택 과정은 투명하고, 선정 방법에 대한 각 정당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6. 청중 선택 시 최대한 80% 이상의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유권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7. 인구 통계학적 비율이 반영되어 ICM에 의해 최종 선정된 청중들은 정당 의석 비율에 근거를 두어 노동당 7, 보수당 7, 자민당 5의 비율로 추가적으로 세분화되어 선정된다.
8. 지지 의사를 밝히 청중 80% 이내에서 주관 방송국들은 소수 정당들의 지지자들을 청중으로 선정할 권리를 지닌다.

5) 3당 합의해 2010년 3월 1일 발표한 세부규칙의 원본을 번역한 내용임.(출처: ITV, Sky, and BBC. (2010). Programme Format Agreed By All Parties 1st March 2010. <http://www.itv.com/utills/cached/common/ProgrammeFormat2.pdf>)



9. 20%의 청중들은 반드시 투표의사를 지니고 있지만, 지지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청중들로 선정되어야 한다. ICM의 부동층 선택은 이러한 기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10. ICM이 선정한 청중 이외에도 방송국 편집 패널들에 의해 선택된 (청중 선정 이전의) 질문자들을 위한 소수의 청중석이 보장되어야 한다. 방송국들은 토론에 사용될 영국 전역에서 얻어진 질문 문항들을 얻을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11. ICM에 의해 선정된 청중들의 질문 이외에 토론에 반영할 수 있는 질문 문항의 수는 각각 최대 4개씩이다.
12. 청중의 결원에 대비한 여분의 청중 선정이 가능하다.
13. 청중 선정과 토론 수행과 관련된 보안 사항을 포함한 규칙의 초안에 근거를 두어 청중들의 명단을 발표한다. 초안은 각 정당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임.

## (2) 청중의 역할

1. 본 항의 목적은 각 정당 수반들 간의 토론-프로그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청중들의 의견을 직접적인 전달할 수 있는 효과의 극대화를 보장하는데 있다.
2. 각 방송국들은 토론의 질문을 선정할 패널을 선정해야 한다. 패널 구성원은 공개 하되, 패널 회의는 비공개 되어야 한다.
3. 패널의 선택은 각각 규정 준수를 감독할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패널의 명단은 이때 첨부된다.
4. 토론 패널의 선정 목적은 본 협의의 규칙 하에서 공정한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선정함에 있다.
5. 패널은 토론 시행 수주일 전에 비밀리에 회의를 가진다.
6. ICM이 선정한 청중들의 모든 질문들은 각 패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E-mail 질문들은 엄선된 질문들이 패널들에게 공개된다.
7. 질문 선정 과정 초기에는 각각의 패널들이 대중에 의해 제출된 질문 문항들을 엄선한다.
8. 패널들은 토론 당일을 포함한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질문 문항을 선정한다.
9. 각 토론의 패널의 수는 5명에서 7명이며, 필요시에는 질문 선정 투표를 주관할 의장을 선정할 수 있다.
10. 패널의 3인 미만 출석 시에는 정족수가 미달하게 된다.
11. 질문 문항 선정에 있어 패널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2. 각 질문들은 3당 당수 모두에게 연관 있어야 한다.

13. 어떠한 질문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당수에게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
14. 모든 질문들은 선거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되어야 한다.
15. 청중들은 방송에서 질문을 하기 전에 모든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16. 프로그램 분량의 절반은 동의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주어진 분량 내에서 단일 하부 주제(규칙 65번에 명단 기재)와 관련된 최대 3개의 질문이 선택되어질 수 있다.
17. 프로그램의 절반은 주제가 정해지지 않은 질문 내용으로 구성되어진다. 단일 주제에 관련해 최대 두 개의 질문이 선택될 수 있다.
18. 질문의 범위는 방송법과 공정과 불편부당의 책임의 준수를 반영해야 한다.
19. 패널들은 질문 선정에 있어 편집상의 독립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상의 중요 이슈, 각 정당의 선거 관련 정책들의 차별성, 유권자들의 관심, 수상의 역할과 관련된 이슈 등과 같은 요인들을 반영해야 한다.
20. 각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콘텐츠에 대한 심의 규정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상의 규칙들 하에서 패널들의 질문 선정 독립권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1. 질문 문항은 토론 개시 전까지 패널들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
22. 선정된 질문들은 프로그램 이전에 편집부 이외의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선 안 된다.
23. 청중들은 프로그램 도중 질문들을 하게 된다. 진행자는 각 정당의 수반들에게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한다. 진행자는 e-mail 질문을 읽을 수 있다.
24. 모든 질문들은 세 명의 정당 수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응답되어진다.
25. 청중들은 선정된 질문만을 할 수 있다.
26. 진행자에 의해 읽혀진 e-mail을 통해 시청자 반응이 공개 될 수 있다.
27. 시청자들이 정당 수반들의 선거 관련 이슈 토론을 시청할 시간적 여유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의 청중들은 토론 중간에 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처음과 마지막에만 박수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3) 프로그램의 구조

1. 프로그램은 연단 뒤에 서 있는 3명의 정당 수반들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2. 진행자는 연단/책상을 가지게 되며, 청중과 수반들의 시선이 허용하는 작은 공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3. 진행자는 각 정당 수반들을 소개 한다.

4. 프로그램의 전반부는 사전에 동의된 주제로 진행된다. 하지만 모든 정당들의 동의하에, 토론 관련 주제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빠진 경우, 진행자는 당수들에게 특정 주제로 들어가기 이전인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에 대한 반응을 묻게 된다.
5. 이런 경우 주제 관련 토론에 할당된 시간 내에 답변시간도 포함이 된다. 비록 응답에 대한 대응이 주제에 벗어날 지라도, 이는 주제에 할당된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
6. 각 당수들은 토론의 시작에 앞서 각각 1분간의 연설 시간을 가진다. 3명의 연설이 끝난 후 사회자는 동의된 주제와 관련된 처음 질문을 한다.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에 1분 30초의 연설 시간을 가지게 된다.
7. 각 당수들은 각 질문에 대한 1분간의 응답 시간을 가진다.
8. 각 당수들은 이후 상대방의 질문의 응답에 1분의 반론 시간을 가진다.
9. 진행자는 최대 4분의 당수들 간 자유 토론 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10. 각 질문에 대한 토론 시간은 프로그램 편집자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11. 프로그램 편집자는 4분간의 자유 토론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나, 논의의 공정성을 위해서만이 분량이 연장될 수 있다.
12. 질문 문항은 프로그램 분량의 처음 절반은 정해진 주제와 관련되어야 하며, 이는 방송 분량과 각 당수들에게 공정함을 보증해야 한다.
13. 사전에 정해진 주제에 대한 질문과 토론이 끝나면, 청중과 e-mail로 부터 온 것 중 패널들이 선택한 광범위한 질문(general questions)들에 대한 토론을 개최한다.
14. 방송 후반의 광범위한 질문의 내용은 정해진 주제의 질문 기간과 시간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각 당수들은 질문에 대한 1분의 응답시간을 가지게 되며, 응답에 대한 1분의 대응 시간을 가지게 된다. 진행자는 이후 최대 4분의 당수들 간의 자유 토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5. 연설, 질문에 대한 응답, 대응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여주는 시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토론자들과 진행자들에게는 보이지만, 화면과 청중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16. 발언의 순서는 각 정당들의 추첨에 의해 선택된 순서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17.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모든 당수들은 악수를 한다.

#### (4) 진행자의 역할

1.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각 당수들의 발언 시간을 준수하게끔 한다.
3. 프로그램 진행 시간 동안 모든 토론자들에게 공정한 자유 토론을 보증한다.
4. 프로그램 편집자의 진행이 공정하게 이뤄지게 보증한다.
5. 필요할 경우 사실에 근거한 해명이 이뤄지게끔 한다.
6. 당수들의 응답에 대한 비평이나 논평은 진행자의 역할이 아니다.
7. 토론자들은 진행자의 토론 규칙의 중재인으로써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이 동의된 규칙 하에서 이뤄짐을 보증해야 한다.

#### (5) 토론주제

토론 주제의 순서. 각 프로그램 전반부의 주제의 순서는 방송국들 간의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차 토론: 국내 문제(공공의료서비스; 교육; 이민; 치안, 가족; 헌법;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 정치개혁)
- 2차 토론: 국외 문제(국제 관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중동; 영국 국방; 국제 테러리즘; 유럽; 기후 변화; 중국; 국제 개발)
- 3차 토론: 경제 문제(공중 서비스의 재정; 과세; 부채; 무역 적자; 공중 재정; 불황; 경제 회복; 금융; 상업; 연금; 일자리)

#### (6) 세트

1.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당수들은 연단 뒤에 선다. 세 당수들이 서는 위치는 모든 정당들의 동의하에 정해진다.
2. 진행자는 연단/책상을 가지게 되고, 청중과 당수들의 시선이 닿는 작은 공간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다.
3. 각 방송사들은 각 방송만의 타이틀, 음악, 브랜딩 등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 (7) 청중 장면전환

1.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각 당수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토론과 당수들의 청중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고 듣는 것이다. 청중들은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이고 시청자들에게 보여야 하지만, 각 청중들의 개인적인 반응을 중점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2. 질문자가 질문을 하는 동안 클로즈-업 화면을 사용한다.
3. 당수들이 질문에 응답을 하는 동안 청중 개인을 비추는 클로즈-업 장면 전환이

사용 되어선 안 된다.

4. 그러나 당수 중 한 명이 청중 개인을 직접적으로 지칭할 때는, 개인의 클로즈-업 화면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질문자에게 직접적으로 응답을 할 때가 그것이다.
5. 프로그램 중간에 청중의 그룹-샷이나 와이드 샷이 있을 수 있다.
6. 프로그램은 토론 스튜디오 내부에 국한되어 진행된다.
7. 속보 띠가 토론 생방송 영상 도중에 나타나선 안 된다. 뉴스 채널(SKY News, BBC News channel)에서는 자막뉴스가 나타날 수 있으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과 관련된 속보는 방영되어선 안 된다.
8. 각 정당들은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에 관련된 이슈들을 협의하기 위해 방송국 대표와 각 정당 대표로 구성된 협상 패널들을 소집할 권리를 지닌다.

## (8) 질문선정패널

### ① ITV Selection panel

- Michael Jerney: 뉴스, 시사, 스포츠 담당 국장--패널 의장(panel chairman)
- Sameena Ali-Khan: ITV 중부 지역 뉴스 진행자
- Alexander Gardiner: 토론 프로그램 편집자
- Lucy Meacock: ITV Granada 지역 뉴스 진행자
- Jonathan Munro: 부편집장, ITV News
- Alastair Stewart: 토론 진행자
- Chris Wissun: Programme Compliance 위원장

### ② Sky News Selection panel

- Chris Birkett: 책임 편집장, Sky News--패널 의장(panel chairman)
- Adam Boulton: 정치부 편집장 & 토론 사회자
- Jonathan Levy: 책임 프로듀서, 정치부
- John McAndrew: 책임 프로듀서, 토론 프로그램.
- Penny Chrimes: 책임 프로듀서, The Boulton Factor
- Hannah Thomas-Peter: 정치부 프로듀서 & RTS 2009 올해의 젊은 저널리스트 수상자
- Daniel Austin: BSkyB 법무팀

### ③ BBC Selection panel

- Sue English: 정치 프로그램 국장 BBC News--패널 의장(panel chairman)
- Ric Bailey: Chief Adviser, Politics, Editorial Policy
- David Dimbleby: 진행자
- Daniel Pearl: 프로그램 편집자
- Jeremy Hillman: 경제 경영부 편집자.

## 6. 영국총선 TV토론 진행형식의 특이점

앞서 언급한 대로 영국의 토론은 전통적인 토론형식인 사회자 질문형과 미국의 타운 홀 방식과 프랑스의 자유토론 방식을 혼합해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선거 방송토론과 다른 영국 토론방식의 특이점으로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토론자가 무대 위에서 서 있는 상태(standing style)로 진행되었다. 둘째, 영상 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다양한 카메라 샷과 영상 테크닉을 사용했다. 셋째, 토론 참여자에 대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재답변이 끝나면 4분간의 자유토론 시간이 주어졌다. 넷째, 미국의 타운 홀 방식을 가미해 청중이 질문하도록 하였다.

### 1) 토론자 간 자유토론 방식 결합

청중의 질문에 대해 1분간의 답변과 1분간의 재반론이 끝나면 해당 쟁점에 대해 4분간 토론자의 자유토론을 하게 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유도했다. 자유토론을 통해 각 토론자의 입장 차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서, 유권자가 각 당 정책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3당 당수 간 쟁점에 대한 가감 없는 충돌을 유도해 토론의 역동성을 살리고 보는 재미를 배가시켰다. 자유토론 중 사회자는 토론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 시간 관리책임이 부여되었으나, 사실상 3당 당수들이 주어진 시간에 순서를 자유롭게 쓰게 하는 등 사회자의 역할과 권한을 최소화했다.

### 2) 타운홀 방식 결합

미국의 타운 홀 방식의 토론포맷을 가미해서 청중이 직접 질문을 던지게 해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제고했다. 청중의 질문이 다소 어눌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진행은 원활했다. 청중의 질문에 대한 토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자가 짚막하게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자민당 클레그는 청중과의 소통에 매우 신경을 써

토론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질문한 청중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도 하고 어디에 앉아있는지 다시 한 번 질문자를 찾아가며 토론하는 유권자를 배려하는 모습을 연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자극받은 다른 당수도 나중에 클레그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중을 성심성의껏 존중하며 대화하는 모습에서 유권자는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수도 London이 아닌 영국(England) 대륙의 북부 Manchester, 남부 Bristol, 중부 Birmingham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방식의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유권자들과 직접적인 스킨십을 나누는 듯한 인상을 지역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민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3) 토론자 스탠딩 형식

3당 당수가 토론 90분 내내 무대의 탁자 뒤에 서서 토론에 임했다. 서있는 상태는 당수들이 몸 전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며 손짓 등 제스처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토론 상대 당수, 청중, 사회자, 카메라 등 여러 가지 각도로 시선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토론자들이 힘이 들면 선 상태로 가끔 다리를 뒤쪽으로 구부려 피로를 푸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국가 지도자로서 신체적 건강 정도를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서서 토론하는 형식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일어난 자세는 토론자들의 몸 전체를 대상으로 카메라의 샷을 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되었다.

### 4) 카메라 테크닉과 영상화면 구성

2010년 영국 1차 토론, 2008년 미국의 2차 토론(타운 홀 방식), 2007년 한국의 대선 1차 토론 중 토론자 상호 토론 부분을 비교분석한 것(범기수, 2011)을 보면 영국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다양한 카메라 샷과 영상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참조>. 화면의 변환 빈도 측면에서 영국의 토론은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역동적으로 변환한다. 카메라 샷의 종류도 줌인, 줌아웃, 어깨 넘어 토론 상대 반응화면, 발언 클로즈업, 카메라 무빙, 무대 전체 화면, 토론자 어깨 넘어 청중화면 등등 거의 속도를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현란한 영상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규칙에 의하기 보다는 방송 연출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스스로 공정성 규칙 준수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현란한 영상 구성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누구도 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토론자들에 대한 다양한 리액션 샷은 그들이 발언을 하고 있건 하고 있지 않건

항상 카메라를 의식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1차 토론에서 상대의 공격에 대한 브라운의 비웃는 듯 한 표정이나 노려보는 표정 등이 가감 없이 방송을 타고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표 3〉 한. 미. 영 선거방송토론 영상구성 비교분석6)

분석대상		사용된 shot의 순서	화면 변환 빈도(종류)
국가	TV토론의 종류		
한국	2007 제17대 1차 대통령후보토론회 (사회자 질문형 + 토론자 간 상호토론형)	토론자 상호토론 中 5분 (28:08 ~33:08)	14회(2개)
미국	2008 대통령 후보 토론회 (town-hall format)	방청객 패널과 질문-답변 中 5분 (36:16~ 41:16)	30회(6개)

6) 출처 : 범기수(2011, 9). <선거방송토론 유권자 관심증대 및 시청률 제고 방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012년 양대 선거의 방송토론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pp. 52~53.



분석대상		사용된 shot의 순서	화면 변환 빈도(종류)	
국가	TV토론의 종류			
영국	2010 총리 후보 토론회 (town-hall format)	방청객 패널과 질문-답변 중 5분 (3:10~ 8:10)	사회자(B.S)→토론자1(Z.I)→전체(F.S)→방청객패널질문(B.S)→전체(F.S)→토론자2답변(B.S)→토론자1,2,3(3S)→토론자2,방청객패널(O.S)→토론자2(B.S)→토론자1,2,3(3S)→토론자2(B.S)→토론자1,2,3(3S)→토론자3(B.S)→토론자3,방청객패널(O.S)→토론자3(B.S)→토론자1,2,3(3S)→토론자3(B.S)→토론자1,2,3(3S)→토론자1(B.S)→토론자1,2,3(3S)→방청객패널(F.S)→토론자1(B.S)→토론자1(O.S)→토론자1(B.S)→토론자1,2,3(3S)→토론자1(B.S)→전체(F.S)→토론자3(B.S)→토론자1,2,3(3S)	28회(4개)

## 7. TV토론 시청률

ITV에서 방영된 첫 번째 토론회의 시청자 수는 9백 4십만 명, 위성방송 전용 채널인 Sky News-BBC News channel에서 동시 방영된-에서 방영된 시청자 수는 모두 4백만 명, BBC에서 방영된 세 번째 토론회 시청자 수는 8백 4십만 명에 이르렀다 (BBC News Online 2010a).

## 8. 토론 분석

### 1) 1차 토론 (First prime ministerial debate 15 April 2010) 분석

#### ① 진행 순서별 분석

##### 시작 연설

영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TV토론의 시작 연설은 자유민주당의 닉 클레그(Nick Clegg), 노동당의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보수당의 데이비드 케머론(David Cameron)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통적으로 영국인들은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양대 정당간의 '핑퐁정치'를 수용해왔다(김영일 외, 2010). TV토론에 참여하게 된 제3당인 자유민주당에게 보수당이나 노동당과 동급으로 맞대결할 수 있는 정책토론의 장이 제공된

상황은 국민들에게 그 존재를 강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클레그는 자민당이 기존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밝혔으며, 브라운은 “더블 딥” 불황을 막기 위한 노력과 NHS (National Health System), 치안, 교육 예산의 삭감을 막아야 함을 강조했다. 케머론의 경우 현 정권의 방만한 재정 지출과 과도한 과세, 높은 국가 부채 등과 같은 13년 동안의 집권당의 실정을 비판하며 보수당에의 지지를 호소했다.

## 이민 정책

브라운은 기존의 이민 정책(포인트 시스템, 이민자 직업 교육 센터)을 설명, 성과 및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을 했으나, 케머론은 노동당 집권 13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이민자 수를 비판하며, 보다 엄격한 이민자 출입국 관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레그의 경우 국경의 이민자 관리 강화, 이민자 지역 할당제와 같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이민 정책에 대한 정책 위주의 토론이 이어졌다. 케머론은 ‘13년간의 집권 (13 years of a government)’을 강조하며, 현 정권의 이민 정책이 실패했음을 집요하게 강조하였지만 브라운은 순수 유입인구 숫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 정권의 이민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클레그는 자민당의 정책에 대한 안내를 위주로 발언을 진행했으며, 케머론이 주장하는 이민자 제한 총원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 치안

케머론은 불안한 치안의 원인을 지나치게 관료적인 경찰조직과 엄격하지 않은 사법 제도로, 클레그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야기된 불충분한 경찰 인력과, 늘어나는 미성년 범죄자들이라고 답변하였다. 브라운은 공식적인 범죄율의 실질적 감소를 언급하며, 경찰관의 숫자는 유지하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임을 주장했다.

브라운은 보수당의 정책은 경찰력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투입을 못할 것이라는 점을 비판하며, 보수당의 청소년 범죄 증가에 대하여 노동당을 비난하는 캠페인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그만 둘 것을 요구했는데, 케머론은 이에 대해 노동당의 지나치게 많은 예산 편성과 방만한 관료주의적 예산 집행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사법 제도를 통해 효율적으로 치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케머론과 브라운 사이에 논쟁이 심화되자 사회자가 토론 중간에 개입되어 발언권과 각자의 입장을 정리했다. 둘 사이의 심화된 논쟁은 케머론에게 경찰 예산의 투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유발되었다. 두 후보 간의 논쟁 이후, 클레그는 보수당과 노동당의 메니페스트가 구체적인 시행 방법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고 두 후보 모두를 비판했다. 자유토론 시간

의 대부분이 브라운과 케머론의 논쟁으로 소모되어서 상대적으로 발언 기회가 적었던 클레그는 두 후보를 동시에 공격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는 공격을 받지 않으며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가할 수 있어서 시청자들에게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듯 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BBC News Online, 2010a). 주류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에 비해 인지도나 영향력에 있어서 열세한 자민당의 당수 클레그의 이러한 토론 전략은 기존의 양당 정치의 패러다임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오히려 참신하고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파악이 된다.

데이빗 케머론: 감사합니다! 예산과 공공 부문 예산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 부문의 예산을 마련할까에 대한 질문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반복될 것 같네요....(중략)....우리가 향후 단지 더 많은 돈을 써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하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고든 브라운: 단순히 돈을 많이 써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자: 토론은 두 분이 진행하시죠, 걱정 마세요.

고든 브라운: 지금의 이슈는 이겁니다. 경찰 예산을 계속 해서 투입하시겠습니까?

데이빗 케머론: 당연하죠, 예를 들면 말이죠....

고든 브라운: 경찰에 예산을 투입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의 메니페스토에선 아니라고 하던데요. 지금은 답변 시간이 아닙니다.

사회자: 케머론씨가 당신이 지적한 바를 답하게 해주세요.

고든 브라운: 답변 시간입니다, David.

데이빗 케머론: 문제는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 입니다. 언젠가 Hull 경찰소에 간적이 있는데 그들은 이미 5종류의 경찰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7만 3천 파운드짜리 Lexus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중략).... 우리의 경찰관들은 범죄자와 싸워야지, 서류와 싸워서 안 되죠. 이런 점이 우리가 바꾸려는 문제입니다.

닉 클레그: 저는 두 분이 나누고 있는 공공 부문에 투입하고자 하는 예산에 대한 논쟁을 듣고 꽤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에 두 정당들의 메니페스토를 읽었기 때문이죠. 두 정당 모두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명백히 밝히지 않았더군요. 두 정당의 메니페스토에선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았던데, 저희의 메니페스토에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 정치 비리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Legislation)의 적용을 통해 의회 내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회지출권한의 남용으로 여야 정당을 불문하고 다수의 하원의원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그 결과 하원의장이 사임하고 3명의 의원들이 기소된 사건이다(BBC News Online, 2010a).

스캔들에 대해서 브라운은 “충격적”이며 “신물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며 부정적인 표현을 썼다. 케머론은 스캔들을 “몹시 끔찍한 일”이라며 묘사하며, “시스템을 남용한 의원들을 위한 세금이라면 내지 맙시다(don't pay their taxes for MPs to abuse the

system)”라며 비판했다.

비교적 스캔들에 연류가 덜 된 자민당의 클레그는 현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강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하원의원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며, 자민당원들의 청렴성을 강조 했다. 브라운은 비리 의원 국민 소환제, 국민 의회 청원권(petition), 선호투표제를 위한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 복구를 호소했으며, 케머론은 하원 의석수 10% 삭감, 장관 급료 5% 삭감, 의원 예산 동결 등 의회 규모 축소와 투명성 확보를 주장했다.

닉 클레그 : 당신(브라운)은 무역 조합을 보호하고자 했고, 당신(Clegg)은 Belze의 Ashcroft 경을 지키려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으론 불충분합니다. 당신들에게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은 (변화를) 사실상 막았소. 이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중략)-----

데이빗 케머론 : Nick이 말한 사실에 대해 한 가지 분명히 짚어 봅시다. 나는 (그의 말에) 일종의 위선이라는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해 집시다. 자민당원 중에도 (지출 스캔들 관련하여)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잖소. 정당 현금 문제에 있어서는, 종소, 노조의 돈은 노동당으로 흘러가 왔고, 보수당은 지나치게 부유한 개인들에게 정치 현금을 의지하고 있소. 그리고, 그렇소, 자민당은 범죄 혐의로 도주 중인 사람에게서 받은 2백5십만 파운드의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지 않소. 자민당 혼자서 고고한 척(holier than thou) 하지 맙시다.

클레그는 브라운과 케머론이 내세우는 정책들은 이미 자민당에서 시행하고자 노력했던 정책들인데, 노동당은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보수당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민당의 노력을 막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케머론은 클레그가 “위선자 (holierthanthou)”라며 과거 자민당의 2백 5십만 파운드의 비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 했다. 클레그는 이에 대해 ‘몇 년 전 일’이라며 현재의 자민당의 후보들은 선거위원회에 의해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라 반박했다.

## 교육

케머론과 클레그 모두 현재 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관료화되어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관료화된 교육시스템을 예로 들어 케머론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연결 지어서 현 정부의 재정적자 상태에 대한 비판과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클레그는 학교 고유의 자율성의 중요성과 교육 예산의 추가적인 배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브라운은 교육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는 보수당의 정책이 교육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공 부문 예산의 삭감이 공공 서비스의 질의 저하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경제 위기(risk)로 이어질 것이라며 케머론의 예산 정책을 비판했다. 브라운과 케머론이 예산 문제로 설전을 벌이는 모습

에 대해 “그들이 더욱 더 서로를 헐뜯을수록, 저에게는 그들이 서로 똑같이 보이는군요.”라고 하며, 자민당의 교육정책과 예산정책을 소개함으로써 두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공격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두 후보를 동시에 공격하는 클레그의 전략이 교육 이슈에 대한 토론에서도 발견되었다.

## 재정 정책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 간의 입장이 가장 팽팽하게 대립되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경제관련 정책이다(BBC News Online, 2010a). 이 중 재정 적자 축소 방안에 대한 각 당이 가지고 있는 해법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여부가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예산 배정에 대한 내용이 다른 주제에 대한 토론 시간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중요한 이슈인 까닭에 자유 토론 시간에 후보들 간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었었다(BBC News Online, 2010a). 케머론과 브라운이 큰 정부와 작은 정부라는 거시 경제적 대립 프레임 속에서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보이며 자신들의 정책적 우위와 당위성을 내세우며 상대방 후보의 정책이 지니고 있는 단점들을 강조하며 각을 세웠다. 반면 클레그는 나머지 두 후보들에 대한 공격적 태도를 취하는 대신에 자민당의 정책적 두 정당의 정책과의 차별성을 강조함(핵무기 체계인 trident system 폐지를 통한 예산 확보)과 동시에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과 해결과정의 투명성을 언급함으로써 세 후보들 간의 논쟁을 정리하려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클레그는 질문 답변을 시작할 때, 질문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며, 질문자에게 직접 응답하는 듯 한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 두 후보 모두 질문자의 이름을 호명하며, 질문자에게 직접 응답하는 듯 한 인상을 남기려 했지만, 클레그는 다소 지루하고 딱딱한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보다 더 친근하고, 참신한 인상을 줄 수 있었다.

닉 클레그: 어디에 계세요, Robert?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아. 저기 오른쪽 뒤편에 계시네요. 카메라 뒤에. 지금은 당신이 보이네요. Robert, 저는 우리는 모든걸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해야만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후략)

## 국방

국방 문제에 대한 케머론과 브라운의 기본적인 입장은 거의 같은 까닭에 두 사람 모두 파병 군인들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의사 표현과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언급이 답변의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한 브라운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케머론은 이전 질문시간에 클레그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 (질문자의 위치를 확인) 재치를 발휘하며 친근한 인상을 남기는 시도를 했다.

데이빗 케머론 : 미안합니다. 청중들에서 Nick을 볼 수 없네요. 손 좀 들어 주실래요? 아..미안합니다. 당신도 뒤에...같은 문제네요. 카메라 뒤에 계시군요. 무엇보다도,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후략)

반면 클레그는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지적하면서, 핵무기 체계 Trident system의 폐지를 주장했다. 쟁점이 trident system으로 넘어오면서, 브라운과 케머론은 둘 다 trident system 존립의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클레그의 의견에 대한 반박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었다. 토론의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자, 사회자는 핵무기에 대한 세 후보의 의견과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토론을 정리했다.

사회자 : 케머론씨, 우선순위의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죠. 세 후보 모두가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자의 질문 내용대로 말이죠.

## 보건

뇌성마비와 간질을 앓아오던 아들(Ivan)이 2009년 2월 6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보건 정책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 왔던 케머론은(BBC News Online, 2010d)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브라운은 보수당의 NHS 지원 확대 방안은 법인세 폐지와 같은 세금 감면 정책 기조로는 자금 확보 가능성이 낮은 까닭에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클레그 또한 보수당의 NHS 지원 확대 방안의 낮은 실현가능성을 지적하며 보수당의 부자 상속세 감면 정책에 대해 비판하였다. 케머론은 보건 부문은 평균수명 연장, 암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공공부문 지출 축소에서 예외라며 응수했다. 자유토론 시간에는 NHS 예산안에서 세금 정책 문제로 토론의 주제가 옮겨가게 되었다.

닉 클레그 : .....(전략)..... 당신은 내일 재정적자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사람들, 특히 부자들에게 상속세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NHS에 투입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주실지 말씀해 보시죠.

사회자: 케머론 씨?

닉 클레그: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잘못된 점이.....

사회자: 케머론씨? 감사합니다, 클레그 씨.

데이빗 케머론: Nick 클레그는 170억 파운드의 세금 감면을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60억 파운드의 예산 낭비를 멈춰서 국민 연금 인상을 막자고. 저도 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을 1만 파운드로 올리고 싶어요. Nick. 좋은 생각이예요. 멋진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 마무리 연설

〈표 4〉 1차 토론 마무리 연설 요약

토론자	중 심 내 용
클레그	구태의연한 양당 정치에서 민자당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호소
브라운	경제 회복,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 연금 보험 인상과 같은 현 정권의 정책은 불가피 하며, 보수당의 정책은 이를 보장해 주지 못할 것임을 호소.
케머론	노동당의 과세, 재정 지출 정책은 경제 회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보수당의 정책이 국민의 생활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

## ② 1차 토론 평가

### 토론 스타일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토론에서 가장 손해 볼 사람은 데이비드 케머론으로 예상했다(Grice, 2010).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했고 고든 브라운에 비해 훨씬 더 TV정치에 적합하며 토론능력도 뛰어나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대중의 선입견은 실제 토론에서 작은 실수하나도 크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토론자는 토론 전부터 그런 이미지로 각인되는 걸 꺼려한다. 그에 비해 노동당 고든 브라운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딱딱한 이미지가 강해 대중의 기대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토론에 임했다. 낮은 기대수준 때문에 토론에서 사실상 잃을 것도 적다는 점에서 케머론에 비해 고든이 유리하다는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당수는 닉 클레그였다. 사실상 양당제의 형태로 오랜 전부터 굳어져온 정치지형에서 제3당으로서 주요 두 정당과 한 무대 위에 등장해 동등한 조건에서 유권자에게 정정당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막상 TV토론이 시작되자, 보수당 케머론과 자민당의 클레그는 각각 44세, 43세로 60세인 브라운에 비해 매우 젊다는 점 자체로 이미지가 중요한 TV매체의 속성 상 유리하게 작용했다. 또한 젊은 시절 럭비경기 중 부상으로 왼쪽 눈이 실명상태인 브라운은 시선처리가 약간 불안해 보이고 머리스타일도 다소 헝클어져 보인 것은 참신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다른 토론자에 비해 비언어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았다.

목소리도 브라운은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는 중저음이었다. 그에 비해, 젊고 쾌기 있

어 보이면서도 똑똑하고 유능한 대중적 이미지로 TV정치에 적합하다는 평가에 걸맞게 케머론은 유창한 언변으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하지만 닉 클레그는 케머론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졌을 뿐 아니라, 그에 비해 오히려 더욱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 클레그는 방송의 특성에 대해서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즉, 청중의 질문에 답변할 때 청중의 이름(first name)을 다정하게 부르며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듯 말하는 것, 카메라를 응시하며 시청자와 눈을 맞추듯이 이야기 하는 모습, 쟁점에 대한 설명을 어렵지 않게 풀어 설명하는 등 그야말로 ‘영국의 오바마’(A. Grice, 2010)로 평가될 만큼 토론에 능숙하게 대처했다. 나중에는 케머론도 클레그와 같이 질문자를 찾아 눈을 맞추며 말하려는 시도를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 스타일을 살펴보았을 때, 노동당 브라운 총리는 설명이 세부적이고 안정적이었던데 반해, 타 후보에 비해 더 피곤해 보이고 때로는 날카롭게 노려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양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말하려는 모습은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되는 TV 속성에 걸맞지 않았다. 1차 토론에서 브라운에게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게 된 데에는, “I agree with Nick”을 토론 중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이는 자민당을 끌어들이며 보수당을 공격하는 연합전선을 형성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였다. 사실 브라운의 이런 시도에 클레그는 토론 중 실제로 콧방귀를 뀌며 강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매우 어색한 모양새가 되었다.

토론능력에 대한 대중의 높은 기대수준에 걸맞게 케머론은 보수당의 정책에 대해 간단하고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였다고 평가되었으나(Grice, 2010), 클레그의 눈부신 약진에 빛을 잃고 말았다. 더구나 토론 중 핵무기 위험국가로 이란과 중국을 동격으로 말한 부분은 국제문제에 대한 국가수반의 자질을 평가하는 데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했다(BBC News Online, 2010a).

이상 1차 토론을 총평한다면, 노동당과 보수당 간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진 가운데 자민당은 상대적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손쉬운 승리를 거두는 어부지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동당과 보수당의 두 당수는 서로를 치열하게 공격하는 가운데 자민당을 자기편으로 끌어안으려는 시도가 엿보였고, 자민당은 상대 두 당을 싸잡아 공격하며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잠재적인 국정리더 또는 강력한 국정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던 토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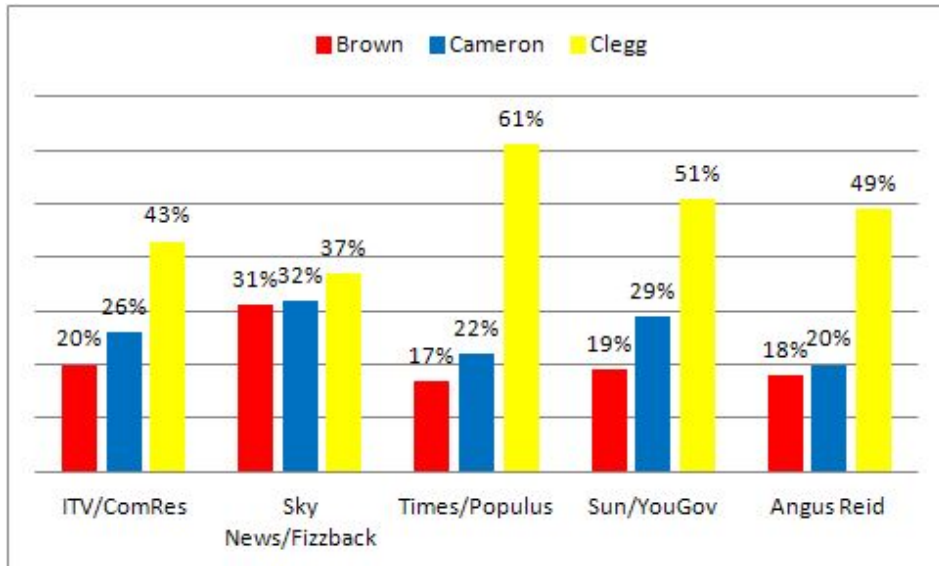
## 여론조사 결과

첫 번째 토론이 끝난 직후 YouGov/The Sun, ComRes/ITV, Sky News, Angus Reid, Populus의 여론조사 결과 닉 클레그가 확실한 토론의 승자로 부각되었음이 보여준다(그림 1 참조). 데이빗 케머론은 한 곳 이외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2등의 위치를 차지



했다(Isaby, 2010). 이와 같이 클레그의 TV토론을 통한 대약진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지율에서 보수당과 노동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놀라운 역전현상으로 귀결되었다.

<그림 1> 1차 토론 직후 토론 승리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ITV News/ComRes: 클레그(43%), 케머론(26%), 브라운(20%)<sup>7)</sup>  
 Sky News/Fizzback: 클레그(37%), 케머론(32%), 브라운(31%)<sup>8)</sup>  
 Times/Populus: 클레그(61%), 케머론(22%), 브라운(17%)<sup>9)</sup>  
 Sun/YouGov: 클레그(51%), 케머론(29%), 브라운(19%)<sup>10)</sup>  
 Angus Reid Public Opinion: 클레그(49%), 케머론(20%), 브라운(18%)<sup>11)</sup>

7) Reuter. (2010. 04.15). "Clegg judged election debate winner"  
<http://uk.reuters.com/article/2010/04/15/uk-britain-election-debate-polls-idUKTRE63E60120100415>

8) Sky News. (2010. 04.15.) "Clegg Up: Lib Dem Leader Wins TV Debate".  
[http://news.sky.com/skynews/Home/Politics/Sky-News-Instant-Leaders-Debate-Poll-With-Fizzback-Panel-Texts-Feedback-For-Faster-Results/Article/201003315603598?lpos=Politics\\_Top\\_Stories\\_Header\\_1&lid=ARTICLE\\_15603598\\_Sky\\_News\\_Instant\\_Leaders\\_Debate\\_Poll\\_With\\_Fizzback%3A\\_Panel\\_Texts\\_Feedback\\_For\\_Faster\\_Results](http://news.sky.com/skynews/Home/Politics/Sky-News-Instant-Leaders-Debate-Poll-With-Fizzback-Panel-Texts-Feedback-For-Faster-Results/Article/201003315603598?lpos=Politics_Top_Stories_Header_1&lid=ARTICLE_15603598_Sky_News_Instant_Leaders_Debate_Poll_With_Fizzback%3A_Panel_Texts_Feedback_For_Faster_Results).

9) Sky News. (2010. 04. 15). "Poll says Clegg is runaway winner"  
<http://news.sky.com/home/politics/article/15603598>

10) Sky News. (2010. 04.15). "Clegg Up: Lib Dem Leader Wins TV Debate". (주소는 각주 13 과 상동)

11) ARPO (2010. 04. 16). "Clegg Defeats Cameron".  
<http://www.visioncritical.com/public-opinion/3127/clegg-defeats-cameron-and-brown-in-britains-first-televised-debate/>

<그림 2> TV토론 이후 지지율 변화



< 출처: 김영일, 이정진, 김지(2010). 2010 영국총선의 분석과 향후 전망, p. 8. >

### 토론 후 언론보도

첫 번째 토론 이후 일주일동안의 언론 보도는 세 번째 약체로 시작했던 자민당의 급부상을 주로 다루었다. 몇몇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자민당이 보수당의 지지율과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따라잡았다고 나타났으며, 노동당의 경우에는 3위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Young, 2010). 심지어는 Sun지의 경우 월요일 아침 1면 기사에 클레그의 승리라는 기사를 내보냈다(Dunn, 2010). TV 보도에서도, 자민당의 정책 공약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중으로 다루었다. 갑자기 선거의 양상이 삼파전으로 전개된 것이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의 증가는 the Mail, the Times, the Daily Telegraph와 같은 보수당을 지지하는 신문들이 클레그의 부상에 영향 받아 풀뿌리 선거의 정치 내러티브를 부각 시키는 논조로 내보내는 신문과 자민당의 급부상에 찬물을 끼얹는 논조로 내보내는 신문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만들었다(Shirbon, 2010). 이러한 긴장은 점점 탄력을 받아 나갔다. “Cleggmania”라는 닉 클레그를 지지하는 여론이 형성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자, 우익 언론은 다가오는 두 번째 토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The mail은 자민당의 당수인 닉 클레그가 2002년 2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인해 다른 유럽 국가들이 더 나은 번영을 누림으로써 영국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Nazi 비방” 관련 발언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Shipman, 2010). 두 번째 토론 전날 밤 the Telegraph는 닉 클레그가 자민당 당수가 되기 전 3명의 사업가들로부터 개인 계좌로 정기적으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Winnett and Swaine,

2010). The Telegraph는 21일 닉 클레그의 통장 내역을 입수, 그가 2006년 자민당 후원 등록돼 있는 사업가 3명으로부터 최대 매달 250파운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클레그는 그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 그 돈은 직원들의 봉급을 위해 사용했으며, 기부 내역은 의회 장부에 기록되었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 했다. 하지만 두 번째 토론이 있는 날 아침 스캔들 기사는 공개되었다. The Telegraph의 특종이 미디어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때, 대다수의 언론인들은 the Telegraph의 일면 기사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오전 중반, 풍자 온라인 플래쉬 캠페인이 나타났었다.(Tweetminister, 2010) 수 만 건의 트위터들이 해쉬태그 '#nickcleggsfault'에 냉소적인 트윗 글들을 남기기 시작했다. 정오가 되어서는 "#nickcleggsfault"는 전 세계 실시간 인기 해쉬태그 3위에 랭크되었다. 갑자기 the Telegraph는 기사에 대한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닉 클레그의 기부 스캔들은 the Telegraph의 의도와는 달리 효과적으로 흠집 내기를 성공하지 못하고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 2) 2차 토론 (Second prime ministerial debate 22 April 2010) 분석

### ① 진행 순서 별 분석

#### 시작 연설

1차 토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던 브라운은 자신의 부진의 원인이 나머지 두 후보에 비해 이미지적인 불리함에 있다고 보고, 시작연설에서 TV토론은 인기 경연대회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하며 정치인의 이미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정책에 대한 판단을 통한 선택을 호소했다. 케머론은 보수당이 노동당보다 덜 '세금을 부과'하고, 덜 '관료적'이며, 덜 '재정을 낭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당에 비해 정책적인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1차 토론 이후 급부상한 클레그는 이라크 침공을 비판하며, 세계의 비핵화, 기후변화 등 민주주의와 인권, 법 개정 에 대한 민자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 대 EU 정책

대 EU 정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EU 가입을 주장하는 자민당과 노동당의 입장과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강조하면서 유럽과 거리두기를 도모하는 보수당의 정책적 입장 차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토론이었다.

클레그는 유럽 연합과 관련된 "근본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유럽연합과 공조유럽연합에서 보다 선두적인 위치의 영국이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브라운은 유럽 연합의 "합리적인" 사람들과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기후변화, 국제 범죄, 테러리즘, 경제 회

복에 있어서 영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보수당의 반 EU 정책을 비판했다. 케머론은 직접적으로 EU와의 공조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대신 유럽연합과의 공조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하므로, 파운드화의 유로존 가입과 같은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EU와의 공조를 반대했다.

1차 토론에서는 브라운과 케머론 사이의 논쟁 후 클레그가 두 사람을 함께 비판하고 자신들의 공약을 설명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전략을 자주 발견 할 수 있었는데, 2차 토론에서 브라운이 클레그의 전략을 수용해 케머론과 클레그의 논쟁 후 두 사람을 비판한 후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닉 클레그 : .....(전략)..... 당연히 유럽연합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팔짱만 끼고 불평불만만 늘어놓으며 방관자로 있으면서 유럽연합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케머론: 자민당이 하려는 바가 뭐냐면....

사회자: 고든 브라운이 먼저 답변을 하셔야 할 듯 한데요.

고든 브라운: 이 두 사내(guys)들이 제게 뭘 연상시키는지 아세요? 이들은 목욕할 때 서로 어린애 다툼(squabbling)하는 제 두 어린 아들들을 생각나게 하네요. 옥신각신하는... (칭중 웃음)

닉 클레그: 준비하신 좋은 멘트시네요. (That's a good line in rehearsal.)

사회자: 목욕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고든 브라운: EU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다툼(squabbling)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직업, 그리고 성장, 그리고 경제 회복입니다. ....(후략).....

브라운은 이후의 토론에서 1차 토론에서는 주로 케머론에 대해 비판했던 것과는 달리, “목욕탕에서 싸우는 어린애들”이라고 발언 등과 같이 케머론과 클레그를 두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그러한 발언에 클레그는 이에 대해 “준비된 대사(line in rehearsal)”이라며 순발력 있게 꼬집어서 응수했다.

## 국방 정책

1차 토론에서처럼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 핵무기 체계 trident system 존폐여부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각 후보들의 주장과 정책 내용에 있어서 크게 바뀐 점이 없다. 클레그가 직접적으로 이라크 전쟁이 불법이라고 언급한 점, 케머론이 현 정권의 군사 전략적인 실책에 대한 언급과 보다 친밀한 우방 외교를 강조하여, 브라운과의 차이를 드러낸 점이 국방 이슈에 대한 2차 토론에서의 특이 사항이다.

## 기후 변화 관련

기후 변화에 대한 토론의 쟁점은 핵에너지 발전과 외교적 접근으로 나뉜다. 기후 변화를 위한 산업적 육성방안과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발언할 때에는 세 후보 모두 각 정당들의 친환경 정책들을 소개하는 선에서 답변이 진행이 되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브라운은 자민당의 핵 반대 정책과 보수당의 풍력발전 반대 정책을 함께 비판하며, 외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말할 때는 클레그는 ‘반미주의자’, 케머론을 ‘반EU주의자’로 비난 하는, 상대 후보들을 동시에 공격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실시했다. 핵에너지를 반대하는 클레그와 핵에너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케머론과 브라운 사이의 논쟁은 케머론은 클레그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 핵에너지 찬성에 대한 입장만 밝혔기 때문에 브라운과 클레그 사이에서만 전개 되었다. 기후 변화 이슈에 있어서 케머론과 클레그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실시하기 보다는 정책의 소개 혹은, 브라운의 공격에 대한 방어적인 답변을 위주로 토론을 전개해 나갔다.

## 교황의 영국 방문

영국 성공회와 천주교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 외에도 스코틀랜드 성추행 사건과 주교 발언 파문 등으로 천주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영국에서 교황의 영국방문은 영국 내에 많은 찬반 여론을 형성했다(BBC News Online, 2010b). 세 후보들은 교황의 영국 방문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의 입장을 표명 했지만, 과학, 피임, 낙태, 동성애에 대한 교황의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전반적인 이 이슈에서의 답변 내용들은 정치 철학적인 차원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구체적인 정책-세금문제와 같은-에 대한 내용,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한 내용, 선거구 개편을 위한 국민 투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21일 Telegraph의 클레그의 정치헌금 스캔들에 대한 보도는 클레그가 통장 내역 공개를 함으로써 이미 해명이 되었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하는 한 예이다(Winnett & Swine, 2010). 클레그는 답변 첫머리에서부터 정치 헌금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사회자의 스캔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complete nonsense story)”라는 답변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기존 주류 정당과 비교해 도덕적으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자민당의 입장에서는 스캔들이 큰 위기가 될 수 있었지만, 정치 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 주목 시켜 오히려 기

회로 작용하였다.

브라운은 정치인들의 비리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케머론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국민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작은 정부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보수당의 정치적 이념을 밝히어 노동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이에 클레그는 두 사람의 논점이 주어진 질문에서 벗어났다고, 정치 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후 케머론과 브라운 사이의 논쟁은 정치적 이념에서 정책적 차원으로 옮겨져 케머론은 현 정권의 연금정책을 비판하며, 불공정함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브라운은 불공정함은 보수당의 상속세 감면 정책에서 현저히 드러난다고 반박한다.

## 노인 연금

이 이슈에 각 후보들의 토론 전략과 내용은 케머론의 “브라운은 예산 축소가 복지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겁주지 마라”와 브라운의 “우리의 복지 정책이 최고이며, 케머론은 예산 삭감으로 복지를 위협하지 마라”, 클레그의 “브라운은 재정적자를 확대 시킬 것이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복지를 제공할 것이다”로 정리될 수 있다.

국민 복지 예산에 대해 대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브라운과 케머론은 연금 정책에 대한 토론에서 열띤 논쟁을 나누었다. 케머론은 노동당이 배포하는 “전단지(leaflet)에서 거짓을 유포하고 있으며 절대 보수당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위협에 빠트리지 않을 것이라며, 브라운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라(shame on you)”라며 강하게 비판을 했다. 브라운은 전단지와 관련하여 “나는 그러한 전단지에 대한 권한이 있지 않다(I have not authorised any leaflet like that)”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클레그는 브라운의 난방비 지원 축소에 대한 비판에 현재의 복지 정책은 개편이 필수적이며, 실질적으로는 보수당이 복지를 증진 시킨 것은 아니라며 방어적 입장을 취했다.

세 후보 모두 노인 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기존의 소매 물가지수 연동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연계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간병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있는 같은 의견을 보였다.

## 연립 정부 (Hung parliament)

케머론은 연립정부(hung parliament)가 형성이 되면 최대한 협력을 하겠지만, 연립 정부에 대해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선 회의적인 입장이며, 브라운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클레그는 연립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밝히며, 연립정부가 형성될 경우, 소위 '재정적 안정성을 위한 의회(council for financial stability)'를 제안할 것이며, 재정, 경제적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할 것이며, 연립정부가 국민의 뜻이라면 단기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사회자가 토론 중간에 토론의 주제가 '협력'이 아니라, 연립정부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해서라며, 토론의 쟁점을 새롭게 제시해 주었다. 이후의 토론에서는 재정적자와 경제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각 정당들의 정책적, 이념적 차이를 드러내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이민 문제

2번의 토론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전개된 이슈가 바로 이민 문제이다. 이민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케머론과 이민 문제를 일자리 문제와 연결 지어 파악하고 있는 브라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클레그는 서로가 대립되는 입장 차이를 보이며 자유 토론 시간에 활발한 1대 1의 토론들이 진행 되었다.

케머론의 이민자 제한 총원제에 대해 클레그와 브라운 모두 EU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 대한 규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못하다며 제도의 허점을 끈질기게 공격했다. 이민 총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답변을 끈질기게 요구한 클레그의 질문에 "숫자로 국민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싶지 않소, 하지만 이는 중요한 문제요(I don't want to bore people with figures, but it is important.)"라며 노동당의 13년 집권 동안 늘어난 이민자수를 언급하며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클레그는 이날 토론에서 지난 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불법 이민자 문제를 제시했다.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사면 문제가 거론되자, 브라운과 케머론은 모두 '잠재적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불법 이민자 사면을 비판했다.

## 마무리 발언

〈표 5〉 2차 토론 마무리 연설 요약

토론자	중심 내용
브라운	Afghanistan 문제, 안보문제, 경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 케머론은 예산 삭감 정책을 주장함으로써 영국경제에 위험(Risk to the economy)이 될 수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영국을 고립시킬 것이라 비난. 클레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 영국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
케머론	브라운이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국민들을 겁을 주고 있다고 비판. 보수당의 13년 집권의 분명한 변화(clean break)를 위한 새로운 리더십과 새로운 정책들을 보수당이 제시해 줄 수 있음을 주장.
클레그	과거의 선택,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로의 선택, 영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가치들을 고수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영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

### ③ 2차 토론에 대한 평가

#### 토론 스타일과 전략

1차 토론에서 클레그의 일방적인 승리에 자극받은 브라운과 케머론은 서로를 공격하면서도 클레그를 매우 치밀하게 견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노동당 브라운은 훨씬 더 총리다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은 젊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오랜 정치 경험과 10년 간 재무장관과 3년 간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을 검증받아 왔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영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다른 두 당수보다 자신이 더 적합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1차토론의 패배를 의식한 듯, TV토론은 스타일과 PR이 중요하지만 자신은 그것에 연연해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국민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1차 토론에서 자민당을 끌어안으려는 모습에서 탈피해, 핵무장 해제와 같은 클레그의 주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공격("get real")하는 모습을 보였다.

케머론도 클레그에 대해 결정적인 한방을 날리지는 못했으나 1차 토론에 비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토론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특히 선거의 핵심 캐치프레이즈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소수정당인 자민당보다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보수당만이 그것을 수행할 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민당에게 던질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한편, 보수당의 연금정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담은 노동당의 선거전단을 거론하며 브라운 총리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직격탄을 날린 부분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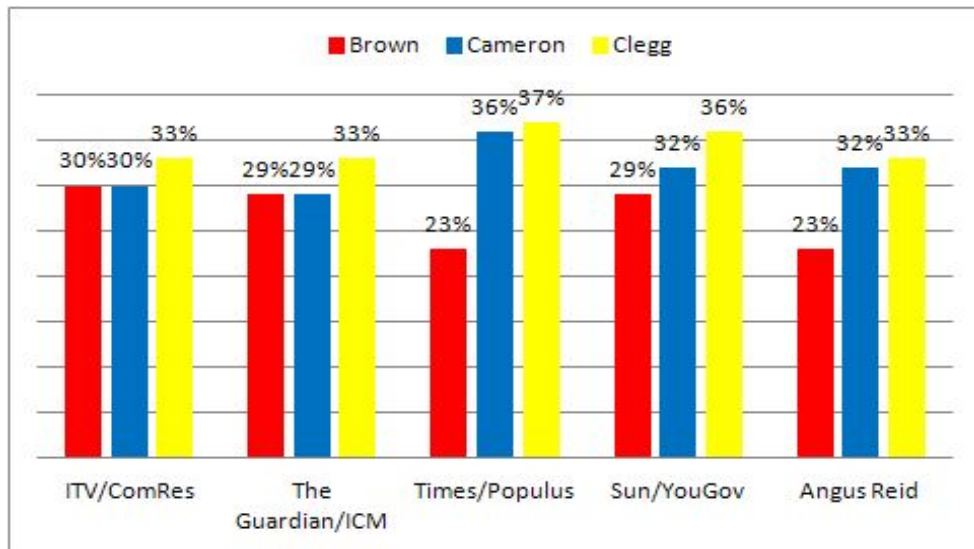


총평한다면, 1차 토론에 비해 브라운과 케머론은 선전을 펼쳐 일정 부분 만회했으나, 클레그의 우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브라운과 케머론, 둘 다 1차 토론에 비해 세련된 토론 스타일(카메라 응시, 청중과의 교감, 단정한 외모 등)을 보였고, 클레그를 적절히 공격하는 등 토론의 전략 측면에서 잘 대처했지만, 1차 토론에서 형성된 클레그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정치적 대안세력으로서의 약진하는 추세가 강도가 약해졌지만 계속 이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 여론조사결과

Sky News Debate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 닉 클레그와 데이빗 케머론은 공동 선두의 자리를 차지했으나, 3명의 토론자들에 대한 지지는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총 시청자들은 400만으로 밝혀졌으며, 210만 명의 시청자들이 Sky News를 통해 토론 기사를 접했다. BARB에 의해 집계된 시청자수는 212만 2천명이 Sky News를 통해 토론을 시청했으며, 58만 4천이 Sky3을 통해, 138만 8천명이 BBC News를 통해 토론을 시청했다고 한다.

〈그림 3〉 2차 토론회 직후 토론 승리자에 대한 여론조사<sup>12)</sup>



ITV News/ComRes: 클레그(33%), 케머론(30%), 브라운(30%)  
 The Guardian/ICM: 클레그(33%), 케머론(29%), 브라운(29%)  
 The Times/Populus: 케머론(37%), 클레그(36%), 브라운(23%)  
 The Sun/YouGov: 케머론(36%), 클레그(32%), 브라운(29%)  
 Angus Reid Public Opinion: 클레그(33%), 케머론(32%), 브라운(23%)

12) British Sky Broadcasting. (2010. 04. 23). "TV Debate: Clegg And Cameron Neck And Neck". [http://news.sky.com/skynews/Home/Politics/Leaders-Debate-Nick-Clegg-And-David-Cameron-Joint-Winners-In-Sky-News-Poll-Of-Polls/Article/201004415613588?lpos=Politics\\_Carousel\\_Region\\_0&lid=ARTICLE\\_15613588\\_Leaders\\_Debate%3A\\_Nick\\_Clegg\\_And\\_David\\_Cameron\\_Joint\\_Winners\\_In\\_Sky\\_News\\_Poll\\_Of\\_Polls](http://news.sky.com/skynews/Home/Politics/Leaders-Debate-Nick-Clegg-And-David-Cameron-Joint-Winners-In-Sky-News-Poll-Of-Polls/Article/201004415613588?lpos=Politics_Carousel_Region_0&lid=ARTICLE_15613588_Leaders_Debate%3A_Nick_Clegg_And_David_Cameron_Joint_Winners_In_Sky_News_Poll_Of_Polls).

### 3) 3번째 토론 (Final prime ministerial debate 29 April 2010) 분석

#### ① 진행순서별 분석

##### 토론 전 배경설명과 시작 연설

2차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머론과 클레그가 박빙으로 선두권을 형성한다고 밝혀졌다. 세 후보들 간의 격차는 첫 번째 토론 이후 이뤄진 여론조사의 결과보다 더 줄었다.

전문가들은 3차 토론의 주제가 ‘경제’라는 사실은 브라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sup>13)</sup>, 그가 영국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재무장관이며, 다른 두 후보에 비해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는 점은 그의 우세에 대한 예측을 뒷받침 해준다. 하지만, 마지막 토론이 시작되기 전인 4월 28일, 브라운이 사적인 자리에서 이민자 정책을 비판한 노동당 지지자인 은퇴한 중년여성 지지자를 “편견에 가득 찬 여자(bigoted woman)”라고 부르는 내용이 언론에 노출 되면서 발생한 논란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sup>14)</sup> 자민당은 2번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괄목할 만한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당수 클레그의 성공적인 토론 수행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반면 보수당의 당수, 케머론이 내세우는 “큰 사회(big society)” (“큰 정부”와 반대되는 개념인) 정책은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영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을 보여, 많은 논란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3차 토론의 시작 연설에서 케머론은 영국의 경제 위기를 개선할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1. 복지 의존도 개선, 2. 은행세 부과, 은행 규제 강화 3. 제조업 강화 4. 공공 서비스 개선, 유럽연합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 클레그는 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공정한 경제를 모토로 공정한 예산 삭감과 교육, 보건 부문 강화, 금융 시스템 개혁, 연금 개혁, 공정한 과세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브라운은 시작연설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대처한 경험을 통해 향후 영국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그는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보수당의 정책은 일자리, 삶의 질, 세액 공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재정 지출 삭감

클레그는 자민당의 메니페스토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며, 메니페스토에 따르면 공무원 급여인상 제한, 세금공제 제한, 국방 예산 삭감 등을 통한 150억 파운드의 예산 절감 효과가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13) Duncan Hall (2010. 4. 29). UK General Election 2010: Who Won the Third Leaders Debate?, Suite 101.com

14) Patrick Hilton (2010. 4. 29). The Build-Up to the Final Election Debate. Suite 101.com

극복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각 정당의 당수들과 영국 은행장, 영국 재정청장이 모여 현재의 재정 상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제안했다.

브라운은 2014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절반으로 감축 계획을 이야기하며, 급격한 감축보다는 비효율적인 지출 삭감을 통해 적자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건, 교육, 경찰과 같은 공공부문 지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2010년 경기회복에 실패할 경우 더블 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케머론은 신속한 재정 감축을 실시할 것을 인정하나, 노동당의 주장대로 보건, 교육, 경찰과 같은 공공부문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지만, 공공 부문의 감축 혹은 동결은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브라운은 보수당의 정책이 “옛날 토리당과 같다(Same old Tories)”며, 100만이 넘는 실업자를 만들었던 1930년대와 1980년대와 같은 경제 불황을 야기할 것이라며 케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케머론이 은행과 백만장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서 공정 사회 건설을 막을 것이라 비난했다.

케머론은 브라운이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을 착각하고 있는 듯 하다며, 노동당의 국민 연금 인상 정책이 경제를 위협할 것이며, 현재의 방만한 복지 정책으로는 예산 적자 규모를 더 키우며, 국민들의 복지 의존 병을 키워 노동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 반박했다.

클레그는 케머론과 브라운 모두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장했다.

## 세금 정책

케머론은 처음에는 세금 계획의 공정성에 대한 브라운과 클레그의 공격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치하다가, 브라운에게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말은 비참한(desperate) 상황에서 처한 사람이 하는 비참한(desperate) 이야기들입니다”라며 강력하게 반박을 했다. 그는 브라운이 공포심을 이용한다며 “부끄러워해야 한다(shame)”는 표현을 써서 2차 토론에서 언급한 ‘노동당의 거짓 팸플릿’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 시켰다. 그는 노동당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 연금 보험료 인상 면제의 기준인 2만 파운드에 2만 파운드를 버는 평범한 시민들을 보수당은 납세 대상자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보수당의 상속세 부과 대상 최저액 인상에 대한 비판을 1차 토론부터 3차 토론까지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보수당의 세금 정책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는 공정성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정성 프레임을 적용해 일관되게 케머론을 비판했다. 그는 클레그에 대해서는 자민당의 세금 공제 혜택 대상자의

축소에 대해서 비판의 각을 세웠다.

클레그는 보수당은 공정성이 결여된 세금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는 노동당의 비판에 대해 노동당 역시 공정성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13년의 노동당 집권 이후(after 13 year of Labour), 국민들은 불공평한 과세 시스템 속에 살게 되었으며, 자민당의 소득세 부과 대상 최저액 인상 정책 등으로 보다 더 공정한 과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보수당의 상속세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당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클레그는 케머론이 주장하는 상속세 정책의 정당화 논리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은행 규제 금융

경제 위기 발생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은행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처벌 문제와 은행 규제 개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케머론은 은행에 대한 강경한 조취를 취해서 영국은행에 은행을 규제할 권한을 되돌려 줄 것이며, 은행세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영세 은행들의 대출을 감독해서 은행들의 무분별한 투자를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클레그는 은행가들의 보너스를 철저히 규제할 것이며, 투자은행과 저축은행으로 분리를 통해 런던으로의 부의 집중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EU와 공조하여 금융 규제의 강화를 실시할 것을 언급했다. 브라운은 은행의 자본 구성의 재편성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며, 금융 질서의 국제적 협약을 통해 금융 질서의 재편을 언급했다. 또한, 국제 표준의 은행세 도입을 추진을 위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보수당의 법인세 감면 정책은 80년대 보수당의 실패한 정책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보수당의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한 비판에 케머론은 직접적인 응답을 피하며, 유럽연합과 분리된 화폐 정책 유지를 주장을 하자 브라운은 법인세 감면에 대한 케머론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강력하게 답변을 촉구 했다. 이에 케머론은 법인세 감면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보다 많은 대출을 주게 하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 응답을 했다.

### 국내 제조업 경기 부양 정책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으로써, 보수당의 ‘큰 사회(작은 정부)론’과 노동당의 ‘큰 정부론’이 직접적으로 대립되는 입장으로써, 브라운과 케머론의 정책적 대립이 주로 나타난 반면, 클레그는 나머지 두 정당과의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지 않은 상태로 자민당의 정책에 대한 소개 위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클레그는 녹색에너지 산업,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대중교통, 등과 같은 유망한 산업의 육성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방안과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의 확대, 은행을 규제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을 확대를 해결책이라 주장했다.

브라운은 보수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지역 개발 기구와 투자 공제액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핵심적 정책으로써, 케머론에게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케머론은 법인세 감면이 보수당의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오히려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주장하며, 그 예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 분야를 들었다. 그는 이 분야에서 영국이 부진한 원인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실패에 있다며, 경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 이민 정책

영국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총리 후보 토론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외국인 이민 문제였다. 여당인 노동당의 브라운은 호주식 점수제를 도입한 뒤로 저 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며 노동당의 이민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보수당의 케머론은 노동당이 집권한 13년 동안 외국인 이민자가 크게 늘었다며 노동당의 이민 정책은 실패작이라 몰아세우면서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여 이민자의 연간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자민당의 클레그는 케머론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상한선은 몇 명이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유럽연합의 일원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이민자 숫자에 상한선을 둘 수 없다고 받아쳤다. 유럽연합 회원국가의 국민은 유럽연합 어느 나라에서든지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클레그는 그러면서 현재 영국으로 오는 이민자의 대부분은 유럽연합권 출신이며 비유럽연합권 출신의 외국인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보수당의 상한성을 정하겠다는 주장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한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케머론과 브라운은 자민당이 주장하는 불법 이민자 사면에 대한 주장은 불법 외국인 이민자들을 불러들이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케머론은 클레그의 이민자 제한 총원제에 대한 끈질긴 비판에 불법 이민자 사면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응수했으며, 브라운은 두 후보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 주택 공급/집값 안정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써, 케머론은 25만 파운드 이하의 집을 처음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지세 폐지와,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유도하고 주택공급을 정책으로 내세웠고, 클레그는 25만 개의 빈집을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지방의회에 자신들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새로운 주택에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 그리고 빈 임대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 전환을 시키는 방안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브라운은 분할 지분(shared equity) 정책,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지세 감면 정책, 모기지 지원 확대, 지방 의회에 빈집을 거주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할 권한을 주어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세 후보들과 내세우는 정책들의 유사성이 컸던 까닭에 활발한 논쟁이 거의 없었던 이슈였지만, 새 주택에 대한 부과세 과세에 대해 클레그와 케머론의 입장이 달랐던 까닭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 복지 형평성

영국의 복지 의존 증후군과 실업 급여로 생활하고 있는 500만의 노동 가능 실업자에 대한 토론으로써, 핵심 쟁점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 의욕을 고취시켜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느냐 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클레그는 소득세 부과 대상 최저액 인상 정책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며,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을 했다. 그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나 노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철학적 문제와 같으며, 자민당의 급진적 세계 개혁안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케머론은 13년의 노동당의 집권 동안 500만이 넘는 노동 가능 실업 급여 수혜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지나친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복지 의존 증후군을 없애야만 복지 형평성이 바로 설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현재의 90만 명의 근로의지 상실 계층은 노동당 집권 초기인 1997년 보다 현재 40%가 상승했으며, 취업률의 상승은 허구라고 주장하며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 부과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강조 했다.

브라운은 현 정권이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25세 이하의 6개월 이상 실업자들에게 노동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보조금(incapacity benefit)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80년대 보수당이 만들어낸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를 언급하며, 노동당의 청년 노동 지원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최선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자민당의 세금 정책은 추측에 근거한 정책으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비판을 하며 노동당이 정책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했다.

## 마무리 연설

〈표 6〉 1차 토론 마무리 연설 요약

토론자	중심 내용
브라운	보수당과 자민당의 정책은 영국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 두 정당의 정책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노동당의 정책적 우위를 강조. “그들은 정부를 운영할 준비 가되어 있지 않다”며 자신의 경력적 우위를 강조함.
케머론	“노동당을 뽑는다면 이전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고, 자민당을 뽑는다면 불확실함에 미래를 거는 것이다.”라며 각 정당에 대한 포지셔닝을 선언. “보수당을 선택한다면 새롭고 신선한 정부, 청렴한 개혁과 국가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강조.
클레그	공정성을 자민당의 핵심 가치로 강조. 자민당은 공정한 세금,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청렴한 정치,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구하며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

## ② 3차 토론 평가

### 토론 스타일과 전략

2차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론에서 케머론과 클레그가 박빙으로 선두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브라운은 1차와 2차 토론의 패배를 만회해야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토론이 시작되었다. 특히 선거의 패배가 예상됨에 따라 그의 정치인생이 경각에 달려있어 더욱 사투를 벌여야 하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그나마 다행히도 3차 토론의 주제가 ‘경제’라는 사실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sup>15)</sup> 그가 영국에서 가장 오래 동안 재임한 재무장관 출신이고, 2008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영국총리로서 국제적 공조를 통해 극복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 토론 바로 전날, 한 중년여성을 편협한 여자(bigoted woman)라고 비판한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는 소위 “bigoted gaffe”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이 논란은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sup>16)</sup> 자민당은 1, 2차 토론에서 괄목할 만한 주목을 받았으나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수당과 노동당 사이의 애매모호한 지점에 서있고 비현실적인 대안제시를 한다는 비판이 많아 토론 논쟁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반면 보수당의 당수, 케머론이 내세우는 “큰 사회(big society)” (“큰 정부”와 반대되는 개념인) 정책으로 영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일으키겠다는 포부를 밝혀 노동당

15) Duncan Hall (2010. 4. 29). UK General Election 2010: Who Won the Third Leaders Debate?, Suite 101.com

16) Patrick Hilton (2010. 4. 29). The Build-Up to the Final Election Debate. Suite 101.com

과 대립각을 세우며 흥미 있는 정책적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사실 케머론은 매 토론마다 향상된 스타일을 보여 주었고 총리관저가 위치해 있는 ‘다우닝 스트리트(Downing Street)’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따라서 브라운에게는 정치생명의 연장해야할 절체절명의 위기를 딛고 역전골을 넣어야 하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하고, 케머론에게는 새로운 총리로 가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되어야 하고, 클레그에게는 1,2차 토론을 통해 얻은 대중적 인기의 안정화와 그 지속성을 키워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에 세 명의 당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토론이 될 것이라는 분석 속에서 마지막 토론이 시작되었다.

3차 토론에서의 각 당수의 전략과 스타일에 대해 총평한다면, 먼저 케머론은 새로운 집권당 총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토론이 되었다. 브라운의 날카롭고 끈질길 경제문제에 대한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적절하게 상대의 단점을 공격함으로써 차기 총리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BBC News Online, 2010c).

클레그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대들을 싸잡아 “또 시작이군요(their you two go again)”, “두개의 수구정당(two old parties)”이라고 하며 1,2차 토론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아웃복싱 전략을 구사했다. 3차 토론 주제인 경제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논쟁은 브라운과 케머론 간에 이루어졌고 그는 논쟁에서 거의 도전을 받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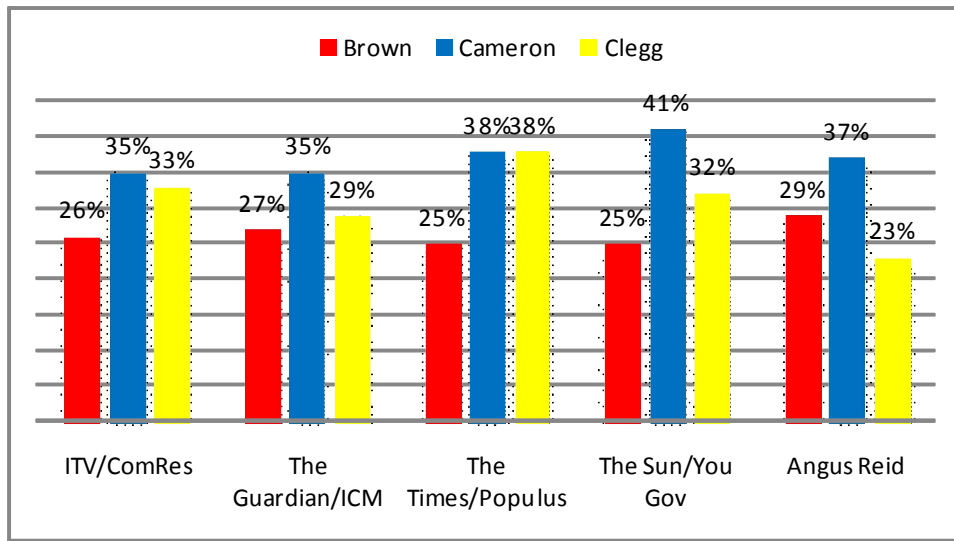
브라운은 경제전문가답게 모든 이슈에 대해 명확한 입장설명과 상대의 단점에 대한 공격으로 1,2차 토론에 비해 매우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케머론에 대한 확실한 일격을 날리지 못하고 마지막 토론은 끝나고 말았다. 다른 당수에 비해 정치경력과 국정운영경험 측면에서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이미지와 TV라는 매체에 부적합한 토론능력이 결국 그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되었다.

## 여론조사결과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케머론을 확실한 승자로, 브라운이 근소한 차로 2위로 나타났으나 클레그가 2위로 나타난 설문조사가 많았다. 한 설문조사 결과는 케머론과 클레그가 공동 선두로, 브라운이 2위로 나타난 조사도 있었다. BARB에 의해 집계된 토론의 시청자는 859만 6천명이며, 742만 8천명이 BBC 1을 통해, 61만 8천명이 BBC News로, 33만 7천명이 Sky News로, 21만 3천명이 BBC HD를 통해 시청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림 4〉 3차 토론회 직후 토론 승리자에 대한 여론조사



The Guardian/ ICM: 케머론(35%), 브라운(29%), 클레그(27%)<sup>17)</sup>  
 The Sun/You Gov: 케머론(41%), 클레그(32%), 브라운(25%)<sup>18)</sup>  
 ITV/ComRes: 케머론(35%), 클레그(29%), 브라운(26%)<sup>19)</sup>  
 Angus Reid: 케머론(37%), 클레그(29%), 브라운(23%)<sup>20)</sup>  
 The Times/Populus: 케머론(38%), 클레그(25%), 브라운(25%)<sup>21)</sup>

## 9. 결론

2010년 영국 총선은 TV토론 도입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이정표를 세우는 선거였다. 1960년 미국의 닉슨-케네디 토론이후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TV토론이 민주 정치 선진국인 영국에서 늦게나마 성사된 것이다. 비록 후발주자의 첫 번째 시도이긴 하지만 의회토론의 경험과 오랜 민주정치전통에 걸맞게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토론을 만들어 냈다.

다른 나라의 TV토론의 장점을 차용해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재가공한 뒤 새로운 방식의 토론회로 재창조했다. 즉, 전통적인 사회자 질문형 방식에 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17) YouGov. (2010. 04. 29). "Instant reactions: The final debate"

<http://today.yougov.co.uk/politics/instant-reactions-final-debate>

18) ComRes. (2010. 04. 30). "ITV News Instant Debate Poll 29 April 2010"

<http://www.comres.co.uk/page165453351.aspx>

19) Sky News. (2010. 04. 29). "Polls Suggest Cameron Wins Final Debate"

<http://news.sky.com/home/politics/article/15622529>

20) Populus Ltd. (2010. 04. 30). "Post Debate Poll - 29 April 2010"

<http://www.populuslimited.com/the-times-post-debate-poll-april-29-2010-290410.html>

21) The Guardian (London). (2010. 04. 29). "Election debate: David Cameron wins third leg"

<http://www.guardian.co.uk/politics/2010/apr/30/leaders-debate-david-cameron-wins-third-leg>

타운 홀 방식과 프랑스의 상호자유토론방식 등 세 가지 방식을 혼합한 토론형식을 취했다. 타운 홀 방식을 통해 유권자 청중단을 구성해 그들로 하여금 직접 3당 당수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고 당수들은 그들과 눈을 마주치며 답변하는 모습 속에서 유권자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토론자 간 상호자유토론을 결합해 쟁점에 대해 토론자들끼리 보다 활발한 충돌을 이끈 시도는 내용적으로는 심층성을 배가시키고 형식면에서는 역동성과 흥미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현란하다 할 정도로 다양한 카메라 샷과 화면 변환을 통해 토론장의 미묘한 분위기와 토론에 임하는 당수들의 자세나 얼굴표정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게 한 것은 무겁고 지루할 수 있는 토론을 지켜보는 시청자를 배려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다양한 리액션 화면 영상을 제공했지만 어느 누구도 공정성 측면의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듯이, 영국의 2010년 총선 TV토론은 성공적인 선거토론의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공정성, 유용성, 흥미성 두루 갖춘 성공적인 토론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원택. (1998). “영국 양당제의 역화와 자유민주당 지지의 증가에 대한 연구.” 『국제정치 논총』 . 38집 1호. 215-235.
- 김철환. (2010). “영국의 ‘소셜 미디어 총선’엿보기.” 블로터닷넷.
- 마이크 콕커렐. (1989). “영국의 TV 정치: 역대 수상의 TV에 얽인 이야기(상),(하).” 『신문과 방송』 218호. 39-48.; 220호 85-96
- 문성호. (2001). “인터넷은 선거운동 수단에 불과?” 『월간 말』 8월호. 156-159.
- 방송위원회. (2006). 영국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광고 규정. 『방송조사자료』 2006, (4), 40-45
- 범기수 (2011). 선거방송토론 유권자 관심증대 및 시청률 제고 방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2012년 양대 선거의 방송토론 활성화 방안” 세미나 자료집. 52-53.
- 서동구. (1992). “텔레비전 시대가 몰고 온 정치변화: 영국의 선거보도.” 『신문과 방송』 . 255호. 30-35.
- 조정관. (2004). 『인터넷 선거운동, 인터넷 정치현금, 디지털 정당의 실태와 발전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조희정. (2009). “네트워크 사회의 선거운동 전략에 관한 연구: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5권 2호. 89-121.
- 주영호. (1997). “영국과 미디어 정치.” 『저널리즘비평』 22호. 89-91.
- 최준영 외. (2010). 『다수결주의, 합의주의 그리고 한국국회운영 개선방안: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국회사무처.
- BBC News Online. (2010a). “Leaders clash in historic debate” 2010.04.15 . *BBC News Website*. Retrieved April 15, 2010. from [http://news.bbc.co.uk/go/pr/fr/-/2/hi/uk\\_news/politics/election\\_2010/8621119.stm](http://news.bbc.co.uk/go/pr/fr/-/2/hi/uk_news/politics/election_2010/8621119.stm)
- BBC News Online. (2010b). “Analysis: Punch but no knock-out” 2010.04.23 . *BBC News Website*. Retrieved April 23, 2010. from [http://news.bbc.co.uk/go/pr/fr/-/2/hi/uk\\_news/politics/election\\_2010/8638738.stm](http://news.bbc.co.uk/go/pr/fr/-/2/hi/uk_news/politics/election_2010/8638738.stm)
- BBC News Online. (2010c). “Analysis: Fiery clashes in TV leader debate” 2010.04.29. *BBC News Website*. Retrieved April 29, 2010. from [http://news.bbc.co.uk/go/pr/fr/-/2/hi/uk\\_news/politics/election\\_2010/8652354.stm](http://news.bbc.co.uk/go/pr/fr/-/2/hi/uk_news/politics/election_2010/8652354.stm)

- BBC News Online. (2010d). "David Cameron: Life and times of new UK prime minister" 2010.05.11 . *BBC News Website*. Retrieved May 11, 2010. from [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election\\_2010/8661964.stm](http://news.bbc.co.uk/2/hi/uk_news/politics/election_2010/8661964.stm)
- Duncan Hall (2010). "UK General Election 2010: Who Won the Third Leaders Debate?". April 29, 2010. *Suite 101.com*
- Dunn, T. N. (2010). "It's Lib Dems in Front." *The Sun*, April 19, 2010
- Grice, A (2010). "TV debate: Ninety minutes that could change Britain." 2010.04.15 *Independent Website* Retrieved April 15, 2010. from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tv-debate-ninety-minutes-that-could-change-britain-1945347.html?service=Print>
- Isaby, J. (2010). "Brown Trailing in the Post-Debate Polls." *Conservativehome Website*. April 15. Retrieved April 15, 2010, from <http://conservativehome.blogs.com/thetorydiary/2010/04/brown-trailing-in-first-twopostdebate-opinion-polls-.html>
- ITV, Sky, and BBC. (2010). "Programme Format Agreed By All Parties 1st March 2010." ITV Website. April 15. Retrieved April 29, 2010, from <http://www.itv.com/utis/cached/common/ProgrammeFormat2.pdf>
- Kiss, J. (2010). "ABC: Mail holds on to UK Newspaper" Website Lead. *The Guardian Website*. March 25. Retrieved May 24, 2010, from <http://www.guardian.co.uk/media/2010/mar/25/abce-february-2010>
- Patrick Hilton (2010). "The Build-Up to the Final Election Debate." April 29. 2010 *Suite 101.com*
- Shirbon, E. (2010). "Outsider Clegg judged winner in first UK TV debate." *The Reuter*. 2010.04.15.
- Shipman, T. (2010). "Nick Clegg's Nazi Slur on Britain." *The Daily Mail Website*. April 22. Retrieved April 22, 2010, from <http://www.dailymail.co.uk/news/election/article-1267921/GENERALELECTION-2010-Nick-Clegg-Nazi-slur-Britain.html>
- Tweetminster. (2010). "The Leaders' Debate." *Tweetminster Website*. April 15, 2010. Retrieved April 30, 2010, from <http://tweetminster.co.uk/posts/index/page:3>
- Winnett, R., and Swaine, J. (2010). "Nick Clegg, the Lib Dem Donors and Payments into his Private Account; Exclusive Donor Cash Mystery." *The Daily Telegraph*. April 22.

Young, T. (2010). "Tonight's Polls: Lib Dem Surge Holds Up." *The Daily Telegraph* Website. April 19. Retrieved April 19, 2010, from <http://blogs.telegraph.co.uk/news/tobyyoung/100035455/tonights-polls-lib-demsurge-holds-up>

<토론 스크립트 원문 출처>

First prime ministerial debate Script

<[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16\\_04\\_10\\_firstdebate.pdf](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16_04_10_firstdebate.pdf)>

Second prime ministerial debate Script

<[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23\\_04\\_10\\_seconddebate.pdf](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23_04_10_seconddebate.pdf)>

Final prime ministerial debate Script

<[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30\\_04\\_10\\_finaldebate.pdf](http://news.bbc.co.uk/2/shared/bsp/hi/pdfs/30_04_10_finaldebate.pdf)>

## 제3부 2007 프랑스 텔레비전 선거방송 토론 분석

박 태 순(미디어로드)

### 1. 프랑스 선거방송토론 제도 및 역사

#### 1) 선거 방송토론의 정치적 의미

2011년 1월 4일 공표한 CSA의 <선거기간에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에서 정치적 다원주의 원리와 관련된 권고(Délibération n° 2011-1 du 4 janvier 2011 relative au principe de pluralisme politique dans les services de radio et de télévision en période électorale)>는 선거에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활동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 2조는 투표일 6주 전부터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 편성자들은 다원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 방송을 함에 있어서 편성책임자는 후보자나 후보자 리스트, 개개인들, 정당 및 정치 집단들을 상대로 방송할 때 동등한 접근권과 출현을 보장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최고 행정 재판 기구인 콩세이유데따(Conseil d'Etat)의 법체계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정치 토론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관련한 사항들이 운영된다. 특히 한 후보자 혹은 후보자 리스트, 정당 혹은 정치집단에 대한 지지표현에 있어서 내용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등이 고려된다. 콩세이유데따의 법체계를 반영한 CSA의 이 권고사항은 방송 책임자들이 존중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보면, 먼저 후보자들, 정당 및 정치집단들에 대하여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선거가 있는 지역에 제공할 내용, 소견들이 명예를 존중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선언문이나 후보자의 글 혹은 지지자의 글들을 요약 선택할 때에는 잘 감독해야 한다. 셋째, 영상 이미지의 원본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감시해야 한다. 넷째, 정치인들에 관한 말과 이미지를 담은 시청각 자료의 활용을 잘 감독한다. 다섯째, 후보자 혹은 그 지지자들의 발언 시간과 관련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CSA와 조율한다. 이와같은 기준에서 CSA는 콩세이유데따와 함께 방송 분야에서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독하고 조율한다. 특히, 광고, 홍보, 여론조사 및 후보자들의 방송 접속권에 관한 사항들을 감시한다. 그러나 방송토론에 관한 사항은 아무 조항도 성문화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후보자들과 방송사들의 자율적 합의 속에서 후보자 방송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텔레비전 방송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상호 분리할 수 없는 동거관계를 맺어왔다<sup>1)</sup>. 모든 중대한 정치적 사건들은 반드시 텔레비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한편, 정치 혹은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보편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기제로 작동한다. 텔레비전을 통한 정치 행위는 드골 대통령으로부터 기원을 볼 수 있다. 드골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정책적 소견을 의회와 조정하기 보다는 직접 국민들과 접촉해서 동의를 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길 원했다. 그는 자신의 좋은 대안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달되고, 또한 수시로 텔레비전에 출현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기를 좋아했다. 특히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공영방송 채널들은 대통령의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유용한 도구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독점은 1965년 처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까지 지속되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장 르까누(Jean Lecanuet)와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 담론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텔레비전 선거 캠페인에서 토론은 중요한 정치 커뮤니케이션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줌 그리고 마주앉아(Zoom et Face à face)> 프로그램은 한 정치인을 초청해서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대표적인 정치 토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1968년 5월 혁명 이후, 사회 변혁의 노정에서 새로운 텔레비전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공영방송 ORTF는 <동등한 무기(Armes égales)>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선거방송 토론은 우리의 경우처럼 명확하게 제도화 되어있지 않다. 선거에 관련한 어느 법조문도 선거방송토론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60년대 이후 텔레비전이 중요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방송토론은 방송의 공적 기능을 위한 정치 프로그램의 한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1974년 이후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 후보자간 텔레비전 방송 토론이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정치 공론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치 후보자들의 텔레비전 방송토론은 텔레비전 채널의 고유한 편성권에 속함으로써 특정 정치 집단이나 권력기관 혹은 행정 기관에서 개입할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사회에서의 자율적 공론장 형성이라는 의식과 공론장으로서의 방송의 독자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가 그 기저에 깔려있음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방송토론은 대부분 시사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어왔다. 토론이 생활화되어 온 프랑스 사회에서 그리고 공영방송체제에서 방송 공적 기능이 강조되던

1) Roland Cayrol et Arnaud Mercier, Télévision, politique et élections, Dossiers de l'Audiovisuel, INA, n° 102, Mars/Abril 2002.

시기에, 시사프로그램은 정치 인사들을 초청하여 토론과 대담을 진행함으로써 중요한 정치적 공론장으로서 기능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 시사프로그램은 오늘날의 방송토론의 전형을 보여줌으로써 정치인들을 초청한 정치 토론의 기원을 이루기 시작했다. 정치토론은 후보자 양자 간 토론 형식, 여론조사를 통한 의제 설정 그리고 <질문-답변-반론>의 형식을 취한 전형적인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크리스티안 델포르트(Christian Delporte)<sup>2)</sup>에 따르면, 1974년과 1981년 대선 당시에 개최된 후보자 간 텔레비전 방송토론 이후, 프랑스의 선거후보자 텔레비전 방송토론은 정형화되기 시작했다. 두 번의 경험 이후, 대선 및 각종 선거 시기의 TV 토론의 제작 조건, 진행 방식 등이 정형화되어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송규제기구인 CSA는 텔레비전 방송토론에 대하여 아무런 규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선거 시에 공영방송과 더불어 방송토론을 성사시키기 위해 후보자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 대통령 후보 TV 방송토론의 역사

1974이후, 텔레비전은 대통령선거 제2차 투표에 진출한 두 후보를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토론회가 성사되었다. 1974년과 1981년에 지스까르 데스탱 대 프랑스와 미테랑, 1988년 미테랑 대 시락, 1995년 시락 대 조스팽, 2002년에는 시락이 극우정당 대표인 장마리 르 팡과의 토론회를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2007년 사르코지 후보와 로와얄과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은 2차 투표에 진출한 두 명의 후보자간 방송토론으로 진행되면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자 미디어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방송토론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최종 두 후보자 간에 치러야할 전통이 되었다. 프랑스 대통령 후보자 텔레비전 방송토론 역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 Christian Delporte, "Corps à corps ou tête-à-tête? Le duel politique à la télévision", *Mots*, n°67, 2001, pp. 70-91; Jean-Pierre Esquenazi, *Télévision et démocratie*, Paris, PUF, 1999; Jean Mouchon, "La dramaturgie des débats télévisés d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françaises", *Dossiers de l'Audiovisuel*, n°102, Mars-Avril 2002.



〈표 1〉 프랑스 대통령 후보자 텔레비전 방송토론 역사 개괄

년도	후보자	사회자	시청자 수
1974년 5월 10일	- 발레리 지스가르 데스탱 (Valéry Giscard d'Estaing) - 프랑스와 미테랑 (François Mitterrand)	- 알랭 듀아멜 (Alain Duhamel) - 자끄린 보드리에 (Jacqueline Baudrier)	약 2,500만 명
1981년 5월 5일	- 발레리 지스가르 데스탱 - 프랑스와 미테랑의 토론	- 장 브와소나 (Jean Boissonnat) - 미셸 코따 (Michèle Cotta)	3천만 명
1988년 4월 28일	- 프랑스와 미테랑 - 자끄 시락(Jacques Chirac)	- 엘리 바니에 (Elie Vannier) - 미셸 코따 (Michèle Cotta)	3천만 명
1995년 5월 2일	- 자끄 시락 -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 알랭 듀아멜 (Alain Duhamel) - 귀이욤 듀랑 (Guillaume Durand)	1578만 명
2002년	자끄 시락이 장마리 르 팡과 토론회를 거부하여 성사되지 못함	극우정당 FN의 당수 장 마리 르 팡이 2차 투표에 진출함에 따라 자끄 시락 과 대결하게 됨	
2007년 5월 3일	- 니콜라스 사르코지 (Nicolas Sarkozy) - 세골렌 로와얄 (Ségolène Royal)	- 빠트릭 푸아브르 다르보 (Patric Poivre d'Arvor) - 아를렛 샤보 (Arlette Chabot)	3천만 명

(1) 1974년 지스가르 데스탱과 프랑스와 미테랑의 토론

최초의 방송토론은 1974년 5월 10일 발레리 지스가르 데스탱(Valéry Giscard d'Estaing)과 프랑스와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간에 벌어졌다. 양 후보들은 토론 세부 방식에 합의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토론 주제, 날짜, 진행시간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들을 협상을 통해 합의하였다. 토론 날짜는 미테랑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

표일 9일전에 진행하기로 합의 했으며, 토론진행시간은 지스까르 데스탱의 의견대로 1시간 30분으로 정했다. 토론 사회자는 양자가 동의하여 두 명의 언론인을 선택했는데 알랭 듀아멜(Alain Duhamel)과 자끄린 보드리에(Jacqueline Baudrier)가 맡게 되었다. 사회자의 역할과 권한은 최소화하여 논쟁을 부추기거나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토론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오직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한 토론 순서 관리와 각 토론 주제별로 양 후보들의 발언시간이 동등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도록 하였다. 토론장은 공영라디오 방송국인 <메종 들 라 라디오(Maison de la Radio)>의 한 스튜디오로 정하여 진행하였으며, 양측에서 참관인을 비롯하여 50명만이 스튜디오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조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정하였으며, 오직 양후보와 사회자들만이 카메라에 담도록 하였다. 중계는 공영방송 채널인 TF1, Antenne2, FR3 그리고 라디오가 공동 생중계하였다. 두 후보자간의 방송토론을 시청한 시청자는 약 2,500만 명에 이르렀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토론회는 양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다. 당시 미테랑은 다수당과 정부의 재정을 비판하였다. 당시 지스까르 데스탱은 재정장관으로 있었다. 지스까르 데스탱은 미테랑을 과거의 사람으로 미래를 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였다. 각각의 발언시간은 45분으로 엄격히 제한되었다. 이 첫 토론회부터 동등시간이 엄격히 적용되었으며, 각 후보의 시간을 측정하는 시계가 설치되어 시청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후보들은 처음 10분 동안 기조연설을 하였다.

## (2) 1981년 지스까르 데스탱과 프랑스와 미테랑의 토론

1981년 5월 5일 토론 역시 프랑스와 미테랑과 발레리 지스까르 데스탱 간에 벌어졌다. 지스까르 데스탱이 미테랑에게 토론을 제안하였고 미테랑은 수락을 위해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였다. 후보자들은 각기 자신이 선택한 연출자, 예를 들어 지스까르 데스탱은 제라르 호르조(Gérard Herzog), 프랑스와 미테랑은 세르지 모아띠(Serge Moati)의 도움을 받아 상호간에 유리한 서로 다른 토론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74년도의 토론 실패를 거울삼아 미테랑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사안들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공영텔레비전방송의 특성상 친 정부적일 수 있는 방송기자가 아닌 언론 및 라디오 방송기자를 선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중에서 양자 동의한 2명의 기자를 사회자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 브와소나(Jean Boissoinnat)와 미셸 코따(Michèle Cotta)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다. 후보들은 상호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토론에 임하도록 규정하였다. 카메라 영상 포맷은 미테랑의 제안에 따라 한 후보가 발언할 때 상대의 모

습을 비추는 반응 샷(reaction shot)은 금지하고 미디엄 샷(medium shot)과 얼굴 클로즈 업(close up)을 하도록 하였다. 카메라 작업은 두 후보가 제안한 2명의 연출자와 방송사에서 지명한 총 연출자가 함께 공동 작업하기로 하였다.

당시 약 3000만 명의 시청자가 방송토론을 시청하였다. 이 토론회 때 처음으로 책무규정(les règles du cahier des charges)이 정해졌다. 이 규정은 미테랑의 자문인 세르즈 모아띠(Serge Moati)와 로베르 바덴테(Robert Badinter)가 만들었으며, 21개의 규정을 세웠다. 그러나 막상 토론이 진행되면서 상호 합의했던 규정들과는 좀 다르게 흘러갔으며, 상호 마주 앉은 후보자들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자가 상호 토론은 중지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토론이 흥미를 잃게 되었다.

### (3) 1988년 4월 28일 토론 프랑스와 미테랑과 자끄 시락(Jacques Chirac)의 토론

1988년 4월 28일 토론은 재선에 출마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과 당시 수상인 자끄 시락 간에 이루어졌다. 사회는 엘리 바니에(Elie Vannier)와 미셸 꼬따(Michèle Cotta)였으며, TF1과 France2가 생중계하고, France3, La Cinq, M6가 녹화 중계하였다. 이 토론의 시청률은 69.5%로 약 3천만 명이 시청하였다. 시청각최고위원회(CSA) 따르면, 미테랑이 우세했다는 의견이 32%, 시락이 우세했다는 의견이 24%였으며, 무승부라는 의견이 21%,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23%로 나타났다.

토론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복지 및 유럽 문제 등을 국정 및 유럽 정세에 관한 것이었으며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카메라 영상은 양 후보 모두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1988년과 동일한 방식으로하기로 하였다. 토론은 언론인인 미셸 꼬따(Michèle Cotta)와 엘리 바니에(Elie Vannier)가 언급한 ‘듣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말하는 사람만 보이는 토론’이라는 컨셉으로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진행되어 치열한 논쟁의 모습을 볼 수 없는 토론이 되었으며, 각 후보는 발언시간 동안 오직 자신의 모습만을 비쳐지는 카메라 속에서 토론을 하였다. 시청자들은 기대를 저버린 토론에 많은 불만을 갖게 되었다. 미테랑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2년 동안 동거정부의 수상으로 있던 시락에 대해 30분 동안 ‘수상’이라고 부름으로써 자신의 명령을 받는 자임을 상기시켰다. 이러한 시락의 토론 전략으로 시락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비취졌으며, 결국 시락은 2인자 일뿐이라는 인상을 남기는 토론이 되었다.

#### (4) 1995년 자끄 시락과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의 토론

1995년 5월 2일 방송토론은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과 자끄 시락(Jacques Chirac)간에 이루어졌다. 토론은 민영방송 TF1과 공영방송 France2가 제안하였으며, 토론주제와 사회자, 토론시간 등에 관한 사항들은 양 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사회는 알랭 두아멜(Alain Duhamel)과 귀이운 듀랑(Guillaume Durand)이 이었으며, 토론시간은 두 시간, 주요 의제는 국제정치, 정치제도, 재정, 고용대책, 사회보장, 이민, 보건 문제 등이었다. 카메라 영상 기법은 클로우즈 업, 미디엄 샷, 풀 피겨 샷(full figure shot)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 후보의 발언 시에 상대 후보의 모습을 담은 리액션 샷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토론은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되었으며, TF1, France2, Arte 그리고 라디오 방송들이 생중계하였으며, M6, La Cinquieme, TV5 등이 녹화방송 하였다. 시청자는 약 1578만 명 정도였다. 두 후보는 서로 비방하지 않기로 하여 매우 정중한 토론이 되었으며, 토론 형식은 개성 없이 이전과 별 차이가 없어 시청률하락의 원인이 되었다. 주요 논쟁점은 리오넬 조스팽은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시락은 7년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토론이었다. SOFRES의 조사에 따르면, 시락이 우세했다는 의견이 41%, 조스팽이 우세했다고 하는 의견이 34% 이었으며, 무승부가 19%, 잘 모르겠다고 하는 의견이 6% 정도였다.

한편, 2002년 대선에서는 2차 결선 투표에 공호자끄 시락과 극우정당 프롱 나쇼날(Front National)의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이 진출하였는데, 국민운동연합(UMP) 후보이자 전임 대통령인 자끄 시락이 방송토론을 거절함으로써 토론이 성사되지 못했다. 따라서 2007년 대통령 후보자 방송토론은 1995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방송토론이 되었다.

## 2.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방송토론

### 1) 2007년 선거 과정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자끄 시락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따라 5년 임시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였다. 프랑스 헌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2007년 대통령 선거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진행되었다. 제1차 투표는 2007년 4월 22일 실시되었으며, 12명의 후보자들이 최종 출마하여 진행되었다. 투표율은 83.77%에 이르렀다.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자도 50%이상의 최다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하게 되었다. 2차 결선 투표에는 제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한 사회당(PS)의 세골렌 로와얄 후보와 국민운동연합(UMP)

의 니콜라스 사르코지 후보가 2차 대결 하게 되었다.

〈표 2〉 1차 투표 후보자 득표율 현황

정당	득표율	후보자
UDF	18,57 %	François Bayrou
LC	04,08 %	Olivier Besancenot
Sans étiquette	01,32 %	José Bové
PCF	01,93 %	Marie-George Buffet
LO	01,33 %	Arlette Laguiller
FN	10,44 %	Jean-Marie Le Pen
CPNT	01,15 %	Frédéric Nihous
<b>PS(사회당)</b>	<b>25,87 %</b>	<b>Ségolène Royal</b>
<b>UMP(국민운동연합)</b>	<b>31,18 %</b>	<b>Nicolas Sarkozy</b>
PT	0,34 %	Gérard Schivardi
MPF	02,23 %	Philippe de Villiers
Verts	01,57 %	Dominique Voynet

사르코지와 로와얄 간의 2차 투표는 5월 6일 일요일에 실시되었다. 그리고 5월 10일 헌법위원회는 46.94%(16,790,440표)를 득표한 세골렌 로와얄을 누르고 53.06%(18,983,138표)의 득표한 니콜라스 사르코지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표 3〉 2차 결선 투표 결과

정당	06/05/2007	Candidat 2007
사회당	46,94 %	Ségolène Royal
UMP	<b>53,06 %</b>	<b>Nicolas Sarkozy</b>
유권자 수	44 472 733	-
투표자 수	37 342 004	.
유효투표 수	35 773 578	.
당선자 표 수	18 983 138	.
당선자와 2위와의 득표차 수	1 096 349	.

한편, CSA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2006년 11월 7일 선거 방송에 관한 두 가지 원칙, 즉 동등기회와 평등의 원칙을 제시하는 명령(recommandation)을 공표하였다. CSA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이 선거기간 동안 총 2500시간 분량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도록 규정하였다<sup>3)</sup>. CSA는 이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원주의와 관련한 규정들을 준수하면서 라디오와 텔레비전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 활동을 다루고 있는지를 감독하였다. 무엇보다 후보자들의 발언시간과 노출시간에 대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공영 텔레비전 채널들인 France Télévision(France2, France3, France5, RFO), 공영 라디오 채널인 Radio France(France Inter) 그리고 RFI가 제 1차 선거 시기인 2007년 4월 9일부터 20일 사이에 1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제2차 선거 시기인 4월 30일부터 5월 4일 사이에는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송출했다. CSA는 텔레비전 방송들이 각 대선 후보 선거 캠프를 방영할 경우 방송 시작 날짜, 기간, 실제적인 선거 캠프 취재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할을 권고하였다. CSA는 모든 선거기간 동안 방송 채널들의 선거 방송에 대하여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동등하고 균형 있는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하였다. 대통령 후보자간 방송 토론 역시 이러한 기초 하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CSA는 후보자간 방송토론의 실무차원에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3) CSA, Rapport d'activité 2007, <http://www.csa.fr/rapport2007/>

〈표 4〉 2007 프랑스 대통령 선거 TV 방송토론 개괄

항 목	내 용
토론 제목	“ 2007 LE DEBAT” (2007년, 대토론)
방송일시	2007년 5월 3일 21시부터 23시 39분까지
토론 장소	블로뉴 빌랑꾸르(Boulogne-Billancourt)에 있는 SFP(La Société française de production : 공영 프로그램 프로덕션)
제작 주체	민영방송 TF1, 공영방송 France2
사회자	- TF1의 남성 앵커, 파트릭 푸아브르 다르보(Patric Poivre d'Arvor) - France 2의 여성 앵커, 아를렛 샤보(Arlette Chabot).
후보자	- 우파정당, 국민운동연합(UMP)의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 사회당(PS)의 세골렌 로와얄(Ségolène Royal)
주요 4대 의제	① 대통령, 권력 그리고 정부 개혁 ② 고용과 사회 안전 ③ 교육과 가족 ④ 유럽과 국제

## 2) 방송 토론 과정4)

2007년 대통령 후보 선거방송토론은 5월 3일 21시부터 대통령 후보 제 1차 투표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사회당의 세골렌 로와얄(Ségolène Royal) 후보와 국민운동연합당(UMP)의 니콜라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후보 간에 토론이 이루어졌다.

### (1) 방송토론 준비

로와얄은 미국식 토론을 희망했었다. 집권당은 2007년 4월 24일 CSA와 프랑스의 전통적 방식으로 토론하는 것에 동의했다. 당일 CSA에 사회당 쪽에서는 로와얄과 자끄 랑(Jack Lang)이 참여한 반면 UMP에서는 클라우드 귀앵(Claude Guéant), 프랑스 루브리에(Frank Louvrier), 장 끌라우드 고다르(Jean-Claude Goudart) 등 대통령 대변인들이 참석하였다. 이로 인해 UMP가 원하는 고전적 프랑스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결정

4) Raphaëlle Bacqué et Ariane Chemin, Sarkozy-Royal, le plateau télé, Le Monde, 2 mai 2007  
Guillaume Fraissard, Débat sous haute surveillance, Le Monde, 2 mai 2007  
François Vignolle, Les dessous d'un face-à-face très médiatique, Le Parisien, 2 mai 2007 등 세 가지 신문을 정리한 것임.

되었다.

각 후보자들은 방송토론을 위한 전문팀을 꾸려 토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로와얄은 나타리에 라스또앵(Nathalie Rastoin)의 자문을 받으며 작업을 했다. 그녀는 로와얄의 선거 캠프 책임자들에게 사르코지의 약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사르코지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들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결국, 토론에서 와얄이 매우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원인이 되었다.

다른 한편, 사르코지는 주로 기술적 차원에서 토론을 준비하였다. 사르코지 스태프들 역시 로와얄과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당의 주요 인물들의 토론을 분석하여 사회당의 주요 기조들과 인물들의 사회, 정치적 의식들을 파악하였다. 사르코지는 사회당을 탈당한 에릭 베손(Eric Besson)과 베르나르 따삐(Bernard Tapie)를 토론 자문으로 영입하여 사회당의 내부 생리를 분석하고 대비하였다. 이들 두 캠프의 방송토론 준비 팀들은 수차례에 걸친 회합을 통해 가능한 모든 예상 질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준비의 최종 목적은 대통령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2차 투표에 진출한 2명의 대통령 후보 간 토론은 목요일에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두 후보들이 토론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화요일에 토론을 위한 회합을 가졌다. 한편, 두 후보는 공영방송 France 3에서 5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특집방송을 기획하여 두 후보를 초대하였기 때문 이틀 동안 또 다른 텔레비전 방송에 출현하게 되었다.





## (2) 토론장

토론은 블로뉴 빌랑꾸르(Boulogne-Billancourt)에 있는 SFP(La Société française de production)<sup>5)</sup>의 1000 m<sup>2</sup>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토론 스튜디오는 디자인은 텔레비전 방송 전문가인 필립 데제르(Philippe Désert)가 담당했는데 무엇보다 연극무대 식으로 디자인했다. 나무재질로 된 토론 탁자는 원형으로 설계되었으며, 회색과 검은색으로 치장되었다. 두 후보자간의 거리는 2m 20cm이다. 의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12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었으며, 실내온도는 23도로 맞춰놓았다. 토론장 바닥은 회색과 고동색으로 칠해졌으며, 매우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세팅이 되어 생방송의 생생함을 살리고자 하였다. 필립 데제르(Philippe Désert) 방송 총연출을 맡았다. 후보자들은 청중과 카메라를 응시하는 미국식 토론이 아니라 프랑스 전통 방식인 탁자에서 마주앉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탁자 위는 특수 아크릴로 덮여져 탁자를 두드릴 때 나올 수 있는 소음을 방지하였다. 그리고 바닥에는 두툼한 회색 양탄자를 깔아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 사회당의 로와얄 후보는 화면의 왼편에 자리 했고, UMP의 사르코지 후보는 화면의 오른편에 자리를 잡았다. 후보자의 의상은 중엄하고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로와얄은 검은 치마, 검은 재킷, 하얀 외투를 착용했으며, 사르코지는 어두운 회색 양복, 파란 셔츠, 넓은 넥타이를 착용하였다.

## (3) 방송 준수사항

양 후보자간의 방송제작준수사항(Le cahier des charges de la réalisation)은 토론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졌다. 방송제작준수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규칙은

- ① 카메라 촬영 시 후보자 전신이 노출되는 풀샷(plan de coupe)은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카메라는 발언하는 후보자 만을 영상으로 담는다.
- ③ 다른 후보자에 대한 반응샷은 촬영하지 않는다 등.

반응샷은 양 후보자간 매우 민감한 사항이었다. 1988년 미테랑과 시락간의 토론에서 미테랑이 발언할 때 반응샷에 의해 비취진 시락의 불안정한 모습이 그대로 전국에 생방송됨으로써 매우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전례가 있었다. 그 이후 후보자들은 반응샷을 매우 꺼리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후보자들은 탁자 위부터 촬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5) <http://www.euromedia-france.com/>. SFP(La Société française de production)는 프랑스에서 시청각 콘텐츠 및 영화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처음에는 공기업으로 출발하였으나, 2001년 민영화 되어 유럽 미디어 텔레비전 그룹(Groupe Euro Media Télévision)이 인수하였다. SFP는 오락, 게임, 픽션, 스포츠 등 모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약 13만 제곱미터의 대지 위에 설립되었다.

각 후보자의 하체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각 후보자들의 자리는 추첨을 통해서 결정되었다. 로와얄은 화면의 왼쪽에 그리고 사르코지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한편, 1981년 이후 지속적으로 방송토론을 제작해 왔던 제롬 르봉(Jérôme Revon)이 방송 총책임을 맡았다. 그러나 그가 혼자서 방송의 모든 것을 총 지휘하는 것은 아니었다. 방송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UMP의 자문위원 1명 그리고 사회당의 자문위원 1명이 방송준사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였다.

#### (4) 사회자 선정

방송토론을 생중계하기로 한 민영방송 TF1과 공영방송 France 2는 두 명의 언론인 명단을 제안하였다. TF1의 남성 앵커 파트릭 푸아브르 다르보(Patrick Poivre d'Arvor) 그리고 France 2의 여성 앵커 아를렛 샤보(Arlette Chabot). 이 두 언론인은 1974년 첫 토론 이루어진 이후 가장 인기 있고 선호하는 언론인이다.

#### (5) 방송 중계<sup>6)</sup>

두 대통령 후보자간 방송토론은 민영방송 TF1과 France 2가 생중계하였다. 그리고 두 방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방영하였다. 그리고 하원의회 방송인 LCP Assemblée는 수화방송을 덧붙여 이 방송토론을 재방영하였다. 프랑스와 독일의 문화/예술 방송인 Arte는 독일어 번역을 추가하여 [www.arte.tv](http://www.arte.tv)에서 재방송하였다. 또한 두 후보자들에 대한 네티즌들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와 의견들을 개진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였다. 한편 모바일 통신회사인 오랑즈(Orange)는 모바일을 위해 방송토론을 생방송으로 중계하였으며, 이틀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방송토론 요약 영상을 게재 하였다. 고기능 모바일 폰을 소유한 오랑즈의 고객들은 Orange World가 송출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었다.

## 2) 토론 진행 및 내용

### (1) 토론 진행 및 의제

사르코지와 로와얄간은 후보자 방송토론은 1981년 지스카르 데스탱과 미테랑이 상호간의 협약을 통해 사회자 선정 등의 토론 형식과 토론할 의제를 선정했던 전통을 이어 받아 동일한 형식과 절차를 걸쳐 성사되었다. 저녁 9시부터 시작한 토론은 2시간 39분간 진행되었다. 토론 규칙은 양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동

6) <http://www.politique.net/2007050205-debat-royal-sarkozy-preparation-methodique.htm>

일시간, 동일 질문을 원칙으로 하였다. 동일 질문은 오직 두 사회자가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각 후보자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토론이 양 후보자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회자가 제시한 의제 범위 안에서 상호간 토론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답변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되 총 토론시간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시간 총량제로 운영하였다. 중간에 사회자가 토론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엄격한 기계적 평등이 강조되진 않았다. 따라서 로와얄은 총 74분 20초간 발언하였으며, 사르코지는 72분간 발언시간을 가졌다. 총 토론시간 2시간 39분 중에 두 후보의 발언 시간이 146분 20초 이었으며, 나머지 4분 40초를 두 사회자가 발언하였다. 따라서 사회자의 역할과 발언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토론의 중심이 두 후보자에게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두 사회자는 토론 의제를 크게 4가지 대 주제로 나누어 개략 35분씩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특정 주제에 대한 논쟁이 길어지고, 논제 순서도 토론 분위기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지고 진행됨으로써 후보자간의 논쟁이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다.

- ① 대통령, 권력 그리고 정부 개혁
- ② 고용, 사회 안전 등 경제와 사회문제
- ③ 교육, 가족, 연구, 문화 및 환경 등 제반적인 사회공동체의 문제
- ④ 유럽과 국제관계

위의 4가지 대 주제는 약 8가지 세부 주제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각 후보의 최종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을 끝맺음 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대한 발언 시간의 경우, 제한 시간을 엄격하게 두지 않고 최대한 후보자간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표 5〉 토론 세부 주제

순서	세부 주제
입론	- 로와얄 인사말 - 사르코지 인사말
제 1 주제	사회 범죄·치안, 공공 치안 기관에 대한 예산 확대 및 고용
제 2 주제	경제·실업 및 주 35시간 근무
제 3 주제	퇴직·연금 및 조세 제도
제 4 주제	환경, 원자력
제 5 주제	교육

제 6 주제	장애인
제 7 주제	유럽 및 국제 정세
제 8 주제	각 후보자 상호간의 평가
마무리 발언	- 사르코지의 마무리 발언 - 로와얄의 결언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전에 남성 사회자 프아브르 다르보는 경직된 분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각 후보자들에게 토론에 임하는 마음 상태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이에 로와얄 후보는 ‘매우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간략하게 소감을 밝힌 반면, 사르코지는 ‘프랑스 국민이 두 번째 투표에서 우리 두 사람을 선택하고 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토론 마지막에 다다르면 두 후보가 프랑스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고 신중하게 발언을 하였다.

## (2) 토론 내용 및 쟁점

### ① 제 1 주제 토론 쟁점 및 분석 : 대통령, 권력 그리고 정부 개혁

까뜨린 사보 질문 : 당선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 당신들은 5년제 대통령이 되는 새로운 세대에 속한다. 어떤 모습의 대통령을 보여 줄 것인가?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은 어떤 권력을 행사해야하는가? 당신은 어떤 견재 권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 • 사르코지

대통령 5년제는 그리 새로운 세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중요한 문제는 (극우 정당 당수) 장마리 르 뺑(Jean-Marie Le Pen)이 2002년에 (사회당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 선거 2차 결선 투표에 진출했던 일과 2005년 유럽연합에 관한 국민투표의 거부이다. 이제 과거와 같은 정치를 해선 안된다. 프랑스 대통령이 그 결과들에 대하여 깊은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나는 정말 책임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국가적 문제들을 자주 설명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나는 요직임명을 측근인사로 하지 않고 경쟁으로 할 것이며, 정부부처를 바꿀 것이다.

- 로와얄

나는 오늘날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프랑스를 끌어내기를 원한다. 무엇보다 국가 부채문제이다. 프랑스 국민 개인당 2만 유로 이상의 빚을 안고 있다. 2백 50만 이상의 노동자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 퇴직자들은 구매력을 상실하였다. 경력이 많은 여성은 퇴직은 평균 850유로, 경력이 적은 여성은 평균 622유로의 연금을 받는다. 여성들은 일시적 실업이 많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부채는 110억 유로에 달하고 있다. 실업자는 3백만 명에 이르러 2002년보다 30%가 증가했다. 사르코지는 2002년 ‘관용 제로’를 외쳤다. 프랑스 국민은 폭력과 범죄의 증가에 불안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범죄와 폭력을 줄이는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 실업과 고물가 그리고 불평등과 싸우고 책임 있는 정치를 만들겠다. 새로운 정치 시스템과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 사르코지 당신은 오늘날 프랑스가 처한 이 상황에 중요한 책임이 있음을 느끼는가? (사르코지는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음)

- 분석

기조 발언에서 사르코지는 국가 통지자로서의 대통령의 위상과 사회 변화에 따른 책임성에 대하여 발언을 하였다. 거시 담론을 중심으로 과거의 문제 보다는 미래적 시각으로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로와얄은 과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프랑스 사회의 위기를 직시하도록 발언하였다. 특히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프랑스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제시하면서, 집권당의 일원이며, 내무부 장관이자 수상 이었던 사르코지의 책임성을 부각 시켰다.

이후 지속된 후보자간의 논쟁에서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반드시 시락 정부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문제이며, 사회 범죄는 자신이 내무부 장관할 때 줄었음을 상기 시킨다. 이에 로와얄은 여성 경찰이 밤에 귀가 중에 성폭력을 당한 사례 그리고 공공 병원에서의 열악한 노동 상황을 설명하면서 공공 서비스의 위기와 공무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상황, 그리고 지역 분권화의 문제 등 매우 다양하고 산만하게 문제를 제시한다.

로와얄의 사르코지 비판으로 촉발된 논쟁은 로와얄의 지속적인 비판적 발언과 비어로 사르코지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따금 감정적 대립에 따른 말싸움이 일어났다.

Ségolène Royal :	Parfaitement ! (완벽하네요!)
Ségolène Royal :	Cela ne m’amuse pas, mais avez-vous une autre solution ? (그 정책은 흥미롭지 않다, 다른 해결책은 없는가?)
Nicolas Sarkozy :	Cela ne vous amène à rien de dire cela... (당신을 재미있게 하고자 그 정책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니.. )
Ségolène Royal :	Laissez-moi la responsabilité de mes prises de paroles si vous le voulez bien.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내 의견에 대해 책임성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
Nicolas Sarkozy :	Je ne me permets pas que critiquer, mais je faisais simplement remarquer que si vous parlez de tout en même temps, on ne va pas pouvoir approfondir. (나는 단순히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깊이가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해왔다)

② 제 2 주제 토론 쟁점 및 분석 : 경제·실업 및 주 35시간 근무

빠뜨릭 푸아브르 다르보 질문 : 나는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고 싶다. 1974년 이후, 첫 번째 오일쇼크 그 이듬해 최종 두 대통령 후보 간에 첫 대토론이 있었다. 좌나 우나 모든 후보는 말했다. “나는 일자리 만들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사르코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당신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나?

• 사르코지

오늘날, 프랑스는 25년 이래 가장 적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나는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줄어들었다.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와얄과 나는 본질적으로 대책이 매우 다르다. 사회주의자의 논리는 일자리를 마치 과자처럼 나누자는 것이다. 로와얄은 35시간 이상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경우가 없다. 35시간은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며, 어떤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즉, 봉급수준의 저하이다. 이는 프랑스 국민의 구매력일 약화시킨다. 이는 성장을 저해한다. 나는 다른 전략을 제안한다. 즉, 시장 발전 전략이다. 하나의 노동은 또 다른 노동을 창출한다. 내 계획은 23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 **로와얌**

나는 35시간 노동에 대해 당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본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준다. 이를 채택한 기업들은 이를 폐지하길 원치 않는다. 이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길러준다. 나는 노조와 기업인 단체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에게 국가의 공적 역할의 개혁을 이 사회 민주주의 개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나는 샐러리맨들이 노조와 결합하길 원한다. 조합주의는 노조에 의해 강화될 것이고, 책임감을 높일 것이다. 사회적 파트너십은 더욱 확산되고, 35시간은 중요하다. 나는 기업들이 젊은이 50세 이상을 고용하기 희망한다. 기업들이 추가로 고용할 경우 약 50억 유가 소요될 것이다. 나는 보다 광범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사회 보장은 무엇보다 안전한 봉급의 보장과 안전한 구매력의 보장이다. 경제적 성장은 저소득자들의 구매력을 위한 분배에 달려있다. 이것이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 **분석**

고용 창출과 35시간 근무시간 간의 관계성에 대해 양 후보 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로와얌 주장의 근간은 ‘사회적 나눔’을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차원에서 35시간 근무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까지 제시하였다. 반면에 사르코지는 35시간 근무는 노동자의 봉급 수준일 낮게 할 뿐이며, 일자리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일자리는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지고, 낮은 봉급은 낮은 구매력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시장의 약화 그리고 일자리 약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에서 두 후보 간의 사회 및 정책적 가치에 대한 시각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사회 통합적 의미와 경제적 발전 논리의 대립이 그것이다.

③ 제 3 주제 토론 쟁점 및 분석 : 교육, 가족, 연구, 문화 및 환경 등 제반적인 사회공동체의 문제

빠뜨릭 푸아브르 다르보 질문 : 보건, 주거, 퇴직, 이것들은 매우 명확한 토론주제이다.
---

- **사르코지**

퇴직의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를 보장해야한다. 프랑스와 피용(François Fillon)법은 공무원과 민간기업 봉급자들 간의 균형을 규정하였다. 나는 이법의 적

용을 보장하겠다. 로와얄은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이냐고 말한다. 퇴직 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혁신이 있다. 약 300만의 저소득 퇴직자가 있다. 나는 이들을 위해 연금을 25%를 증액하겠다. 나는 재정을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로 주거에 대해 프랑스인 2명중 1명은 집을 소유하고 있다. 스페인은 80%, 영국은 76%가 주거를 소유하고 있다. 1200만 프랑스인이 집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나는 2007년 주거 구입을 위한 저렴한 이자로 주택융자를 하겠다. 나머지는 국가가 지불하겠다. 마지막으로 나는 공공보장기금을 만들겠다. 병원을 가고자 할 때, 이를 빌려주겠다. 보건에 있어서, 우리사회는 노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인간성 상실이다. 질병을 대비한 정책을 집행하겠다.

• 로와얄

사르코지, 당신은 구체적인 재정보호 방안이 없다. 당신은 저소득 은퇴자의 연금 증가를 위해 특별한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이 개혁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지를 말하지 않는다. 퇴직 연금의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는 세대간의 사회적 통합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백만의 저소득 은퇴자들을 가난에 빠뜨리는 문제이다.

• 분석

퇴직 연금 문제는 국가 재정과 기금 확충문제와 연결되어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사르코지는 집권당의 입장에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반면에 로와얄은 사르코지의 정책적 모순에 대하여 비판하는 태도로 토론에 임했다. 지속된 로와얄의 언어적 자극에 사르코지는 인내심을 보이면서도 이따금 불편한 마음을 표출하였다.

Nicolas Sarkozy : Vous voulez que je réponde tout de suite ?  
(당신은 내가 즉각 대답하기를 원하나?)

Ségolène Royal : Non, car on ne peut pas se plaindre de la dette et additionner les dépenses...  
(아니다. 빚에 대해 불평할 수는 없으며,--- )

Nicolas Sarkozy : Voulez-vous que je réponde maintenant, madame ?  
(내가 지금 대답하기를 원하나, 부인?)



Ségolène Royal : Non.

(아니다.)

Nicolas Sarkozy : Vous mettez combien sur le fonds ?

(당신은 그 기금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Ségolène Royal : Je vous donne déjà les principes...

(나는 당신에게 이미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로와얄은 토론의제를 이 주제, 저 주제로 넘나들면서 의제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기도 하였다. 그밖에 원자력 에너지, 학교 교육 환경, 교사 임용 등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후보자간 감정대립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Nicolas Sarkozy : Calmez-vous et ne me montrez pas du doigt avec cet index pointé !

(조용히 좀 하시오, 숫자를 가르키는 손가락질을 나를 향해 하지 마시오)

Ségolène Royal : Non, je ne me calmerais pas !

(싫다, 나는 조용히 하지 않겠다.)

Nicolas Sarkozy : Pour êtr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il faut être calme.

(공화국 대통령이 되겠다면, 조용히해야 할 것이다.)

Ségolène Royal : Non, pas quand il y a des injustices ! ---

(아니다. 부정이 한 것이 있을 때...)

#### ④ 유럽과 국제관계

빠뜨릭 푸아브르  
다르보 질문 : 유럽에 관한 의제로 넘어 갈 수 있는가? 프랑스에서 국민투표가 실패한지 2년이 지났으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아를렛 샤보 질문 : 유럽은 중요한 주제이다. 고장난 유럽 건설을 위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프랑스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거부를 한 상태이다.

- 로와얄

유럽 헌법에 대한 거부는 모든 정치적 책임에 대한 표현이다. 나는 프랑스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유럽은 아직 안전하게 되어 있지 않다. 국민투표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조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입증 돼야 할 것이다. 나는 투자, 연구, 환경 그리고 실업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럽을 증명하기 위해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견을 구하고 유럽이 진정으로 강력한 유럽이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유럽이 필요한 프랑스의 남, 여가 필요하다. 터어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서 프랑스의 입장을 정리해야한다. 통치자는 국민투표가 보여준 추가적인 모든 일들을 수행하고, 국민투표에 의해 검증받아야한다. 여전히 많은 국민의견과 토론이 필요하다.

- 사르코지

프랑스 국민은 유럽헌법에 투표하지 않았다. 이 헌법은 국민이 거절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유럽은 새로운 국가의 가입이 필요치 않다. 예를 들어 터어키 문제, 만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터어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다. 유럽은 공동체적 호감과 생각을 수용해야한다. 공통의 이민 정책에 대한 원칙 필요하다. 터어키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유럽 정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는 유럽 정치의 죽음을 의미한다. 터어키는 유럽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작은 국가이다.

- 분석

사회자가 유럽에 관한 주제로 넘어 가고자 했으나, 로와얄 후보는 다시 장애 어린이 문제를 들고 나와 사르코지와 논쟁일 불러일으켰다. 이후 샹보가 다시 유럽에 관한 논제를 제시함에 따라 토론이 시작하였다. 토론은 유럽의 위기와 터어키의 유럽 가입에 대대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사르코지는 터어키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해 명확히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에 로와얄은 보다 신중한 국민 조사가 필요하고, 국민투표에서 나타는 정책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국민투표로 유럽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토론에서는 사르코지가 터어키에 대한 로와얄의 애매한 입장을 비판하면서 명확히 의견을 밝히라고 공격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속어들이 오고갔으며, 말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Nicolas Sarkozy :	Votre position, c'est non à la Turquie. (당신의 입장은 ? 터어키는 아니다)
Ségolène Royal :	Pour l'instant, c'est une pause. (지금 ?, 그것은 중단하자는 것이다)
Nicolas Sarkozy :	Cela peut changer ? (변할 수 있다고 보나?) - 국민들의 생각
Ségolène Royal :	Cela peut changer. (변할 수 있다)
Nicolas Sarkozy :	Moi cela ne changera pas. (나는 변할 수 없다고 본다)
Ségolène Royal :	La parole a été donnée. (이미 이야기를 했었다)
Nicolas Sarkozy :	Non, la parole n'a pas été donnée. (아니, 말한적이 없다)
Ségolène Royal :	Un processus de discussion est engagé.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책무다)

### 3. 토론 결과 및 정치 커뮤니케이션적 의미

#### 1) 두 후보의 토론 평가 및 결과

토론 중에 로와얄은 많은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경제 현황, 조세, 연금, 정부기구 및 공무원, 교육기관, 청소년, 이민, 유럽 문제 등 프랑스가 내외적으로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토론의 태도를 보면, 로와얄이 공격적이고,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태도를 보인 반면, 사르코지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품위를 강조하면서 여성 후보인 로와얄의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주장과 입장은 사르코지가 보다 치밀하고 명확하였으며, 종종 로와얄에게 정책 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로와얄은 다양한 소주제를 동시적으로 발언하곤 하였으며, 종종 모호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주식 소득에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얼마?’ ‘어떤 기금에 대하여?’ 등과 같이 매우 애매모호한 질문을 던지고 어떤 해답도 주지 않았다. 원자력에 관한 주제에서 로와얄은 프랑스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17%가 원자력

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원자력 의존도가 75%에 달하여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론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 로와얄은 사르코지가 쉽게 흥분하도록 자주 비난을 하였는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다. ‘부도덕하다’ ‘거짓말이다’ 등의 원색적 비난을 하였다. 로와얄의 공격에 사르코지는 간결하게 답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원치 않는다, 마담 로와얄, 그것은 모든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 등과 같은 표현을 쓰면서 논제에서 벗어난 감정적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 토론은 두 후보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로와얄은 자료들을 잘못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녀가 공언한 많은 이야기들은 반향을 주지 못했다. 사르코지는 자신이 대통령선거에 임하면서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하여 조용하고, 정중하고, 명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였으나 이따금 핵심적 논제와 다른 엉뚱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생중계된 사르코지와 로와얄 간의 방송토론은 총 20,064,720명이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민영방송 TF1이 12,979,720명 그리고 공영방송 France 2가 7,085,000명으로 나타났다<sup>7)</sup>. 방송토론은 또한 12개의 무료채널과 유료채널을 통해서 프랑스 전역뿐만 아니라 프랑스령 그리고 해외로 방송되었다. 케이블, 위성방송 그리고 TNT(지상파디지털방송) 및 다수의 라디오 방송들이 재방영을 하였는데, TF1, France 2, France24, NRJ12, MTV, 국회방송(La Chaîne Parlementaire : LCP), I-Télé, BFM TV, LCI, TV5 등을 통해 토론을 시청한 시청자 수는 총 20,461,000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루뱅대학(l'Université de Louvain)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르네 자이안(René Zayan)에 따르면<sup>8)</sup>, 각 후보자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약 13% 정도, 70%는 얼굴, 제스처가 10%, 7%는 억양과 목소리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사르코지의 실수는 손에 쥔 볼펜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었다. 볼펜을 만지는 모습은 마치 걱정이 있는 것처럼 불안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로와얄의 실수는 토론 초반에 시나리오에 따라 가볍게 던진 이야기들로 인해 사르코지가 발언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말을 가로 막는 여성, 그것은 마치 남자처럼 보이고,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매우 공격적으로 보였다.

후보자의 시선 처리 경우, 상대인 로와얄에 대한 사르코지의 직선적인 시선들은

7) <http://www.ladepeche.fr/article/2007/05/03/21283-Debat-Sarkozy-Royal-plus-de-20-millions-de-telespectateurs.html>

8) <http://vinteur.over-blog.com/article-10467782.html>

article créé à partir d'une vidéo diffusée sur le site internet de TF1-LCI

발언시간의 30%를 차지하였다. 사르코지는 발언 마지막 순간에는 사회자들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자신의 발언이 끝났음을 예고하는 동시에 의견의 명확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다. 로와얄의 경우, 발언을 할 때 상반신을 앞으로 드러내어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다. 또한 사르코지가 발언할 때는 종종 팔짱을 끼고 있음으로 해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신호를 보여주곤 하였다.

띠에리 베델(Thierry Vedel), 세비포(Cevipof)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이자 교육자는 두 후보자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사르코지와 로와얄이 공통으로 사용한 전략은 상대방의 냉철한 모습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베델은 명령형의 문장이 자동적으로 발화되면서 상대를 흥분하게 하고, 흥분에 또 흥분을 유발하는 모습들을 관찰하였다. 베델은 사르코지가 로와얄의 논리적 실수에 대해 분석을 하면서 말을 맺으면서도 실수를 직접 지적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토론 초반에 사르코지는 로와얄에게 말을 할 때, <마담(Madame)>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매우 정중하게 보인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마담>이라는 말에서는 겸손함은 사라지고, 조소적, 역설적 의미를 지니기 시작하였다. 다만, 사르코지가 조금의 겸손함을 보일 때는 로와얄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그 말을 할 때였다. 사르코지가 사회자 푸아브르 다르보를 향해 시선을 돌릴 때, 그 바라보는 방식이 로와얄을 격이 있는 지도자 혹은 후보자로 바라보는 것 보다는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토론 이후, 정치 평론가들은 승자를 결정하기 보다는 로와얄과 사르코지 간에는 명확히 다른 스타일 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로와얄 지지자들은 로와얄이 보다 집중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한 반면, 반대자들은 로와얄이 공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사르코지의 경우, 지지자들은 토론주제에 대해 매우 잘 준비되어 있었으며, 적절한 토론을 하였다고 평가 한 반면, 반대자들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갔다고 평가를 하였다.

로와얄은 사르코지를 규칙적으로 곤경에 빠트렸고, 발언시간도 사르코지보다 3분이나 더 길게 하였다. 사르코지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싫습니다. 나는 조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응하였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공화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고 응수하였다. 이에 사르코지 지지자들은 냉정을 잃어버린 로와얄이 토론에서 졌다고 평가하였다. 반면에 로와얄 지지자들은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 갔다고 평가 하였다.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 기관에 따르면, 토론이 끝난 이후, 유권자들의 의식은 큰 변동이 없었다. 평론가들은 그 이유가 많은 유권자들이 이미 후보자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았다.

〈표 6〉 사르코지와 로와알의 여론조사 지지도

	Sarkozy	Royal
4월 22일 - BVA	53 %	47 %
4월 25일 - IFOP	52 %	48 %
4월 26일 - TNS-Sofres	51 %	49 %
4월 26일 - CSA	52 %	48 %
4월 30일 - LH2	52 %	48 %
4월 30일 - IFOP	53 %	47 %
5월 2일 : 텔레비전 토론회		
5월 3일 - OpinionWay	54 %	46 %
5월 3일 - CSA	54 %	46 %
5월 4일 - TNS-Sofres	54,5 %	45,5 %
5월 4일 - IFOP	54 %	46 %
5월 4일 - IPSOS	55 %	45 %
5월 4일 - BVA	55 %	45 %
<b>최종 투표결과</b>	<b>53,06 %</b>	<b>46,94 %</b>

## 2) 2007년 대통령 토론의 정치 커뮤니케이션적 의미

1995년과 2002년의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2007년 대통령 후보자 텔레비전 방송 토론에서 사회자로 참여한 스타 저널리스트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사회적 문제, 정당의 기본 프로그램, 국제사회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역할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sup>9)</sup>. 오히려 후보자들 간의 충돌을 조정하고, 발언시간과 발언순서들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기계적 역할로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후보자간의 논쟁이 토론의 중심이 되어 방송을 위한 토론을 넘어서 후보자간 토론을 위한 방송의 포맷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긍정적 모습 이면에는 후보자 상호간의 과도한 직접적인 논쟁으로 인해 유사 발언이 반복되고 주제를 넘어선 자극적 말들이 자주 표출되었다. 이는 정치토론이 후보자간의 스포츠 경쟁, 물러설 수 없는 죽음의 격투기를 연상케 하는 토론의 탈정치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온통 곳곳에서 해대는 기본적인 질문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될 것인가?>하는 논제가

9) Mathias Reymond, Présidentielle 2007 : le non-débat des médias, le 24 avril 2006

모든 토론의 기본 전제가 되고, 수시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질문이 이루어지면서 시청자들이 전체 국가 어젠다를 바라볼 수 있는 토론으로서 대통령 후보 토론에 미달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방송토론은 개인화된 정치, 정치적 상징을 인신화(Incarnation)한 후보자들 간의 스포츠식 싸움을 즐기는 정치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미디어라는 탈정치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 프로젝트나 국가 비전을 위한 정책 제안 보다는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가,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하는 것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텔레비전 방송토론은 스타리즘과 이미지 중심의 미디어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정치 행위에 머물게 된다.

#### 4. 결 론

프랑스의 대통령 후보 토론은 프랑스의 특수성에 따라서 다른 국가와는 형식과 절차에 있어서 일정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선거를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두 번 진행함에 따라 2차 결선 투표에 진출한 2명의 후보 간에 방송토론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1차 투표에는 10여명 정도의 많은 후보가 출마하기 때문에 후보 간의 방송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매우 자율적으로 토론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방송토론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규정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공공 조직도 없다. 다만 후보자들 간의 자율적인 협약과 방송사의 협조로 진행된다. 이로써 후보자간 방송토론은 하나의 정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토론 내용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계적 중립성과 형식보다는 후보자간의 자율적인 토론에 무게를 두고 진행된다. 사회자는 절차, 순서 그리고 시간 규제를 위한 조정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두 후보 간의 논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을 위한 토론’ 보다는 ‘토론을 위한 방송’이라는 선거 방송토론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방송토론에 대한 두 후보자의 권한이 강함에 따라 후보자간 합의가 안되는 경우 토론이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토론에 있어서도 후보자 선호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대통령 후보의 방송토론은 선거법이 정하는 제도화된 선거 운동이라기보다는 후보자, 방송사 그리고 유권자간에 암묵적으로 맺어진 관행과 하나의 정치 문화라는 의미가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를 검증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를 두고 있

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후보자 방송토론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도화 되어, 공식적인 선거운동의 방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따라서 프랑스와는 달리 후보자 방송 토론이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제 선정, 명확한 규칙 등으로 인해 토론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형식화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방송토론이 이를 주체하는 기관을 위한 토론인지, 방송을 위한 토론인지 혹은 진정으로 후보자와 유권자를 위한 토론인지가 매우 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자율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이라는 속성과 공론장이라는 본 취지에 맞도록 보다 유연한 방송토론 관행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대통령 후보자 방송토론 문화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Christian Delporte, “Corps à corps ou tête-à-tête? Le duel politique à la télévision”, *Mots*, n°67, 2001, pp. 70-91; Jean-Pierre Esquenazi, *Télévision et démocratie*, Paris, PUF, 1999; Jean Mouchon, “La dramaturgie des débats télévisés des élections présidentielles françaises”, *Dossiers de l’Audiovisuel*, n°102, Mars-Avril 2002.
- CSA, Rapport d’activité 2007, <http://www.csa.fr/rapport2007/>
- Guillaume Fraissard, Débat sous haute surveillance, *Le Monde*, 2 mai 2007
- François Vignolle, Les dessous d’un face-à-face très médiatique, *Le Parisien*, 2 mai 2007.
- Le cahier des charges de la réalisation, 2007.
- Mathias Reymond, Présidentielle 2007 : le non-débat des médias, le 24 avril 2006
- Roland Cayrol et Arnaud Mercier, Télévision, politique et élections, Dossiers de l’Audiovisuel, INA, n° 102, Mars/Abril 2002.
- Raphaëlle Bacqué et Ariane Chemin, Sarkozy-Royal, le plateau télé, *Le Monde*, 2 mai 2007. <http://www.euromedia-france.com/>
- <http://www.ladepeche.fr/article/2007/05/03/21283-Debat-Sarkozy-Royal-plus-de-20-millions-de-telespectateurs.html>
- <http://vinteur.over-blog.com/article-10467782.html>
- article créé à partir d’une vidéo diffusée sur le site internet de TF1-LCI
- <http://fr.wikipedia.org/wiki/D>

## 제4부 독일의 선거방송토론

최영돈 (서울 시립대학교)

### 1. 서론

#### 1) 들어가기

“우리는 우리의 사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대중매체를 통해서 안다”(Luhmann, 1996: 6, Volkmann, 2002: 87 재인용).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의 이 말은 현대의 이른바 ‘정보사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대중매체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의 중요성은 실제로 우리가 사회의 제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를 직접적인 체험 없이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해 진다(쉬만크, 2011: 236).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대중매체는 민주주의가 기능적으로 작동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 민주시민교육 연방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에 따르면 민주주의에서 대중매체는 특히 “정보의 기능”, “의사형성의 기능” 그리고 “통제와 비판의 기능”을 지닌다.<sup>1)</sup> 즉, 대중매체는 정치과정에 있어서 사실에 의거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성숙한 판단과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감시견”(Watchdogs)으로서 미디어는 국민의 정치적 의지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조달하며, 이러한 정보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요약·평가하는 사회적 임무를 지닌다.<sup>2)</sup> 이로써 대중매체는 국민과 국민이 선출하는 정치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인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며, 대부분의 국민들도 직접적인 체험보다는 미디어만을 통해서 정치인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텔레비전의 기능은 다른 대중매체와는 현격하게 구별된다. 즉, 텔레비전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매체보다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 사람들 중에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평소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인들은 텔레비전이라는 영상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국민들

1) [http://www.bpb.de/die\\_bpb/04309502558076112983648580539468,0,0,Funktionen\\_der\\_Massenmedien\\_in\\_der\\_Demokratie.html#art0](http://www.bpb.de/die_bpb/04309502558076112983648580539468,0,0,Funktionen_der_Massenmedien_in_der_Demokratie.html#art0)

2) [http://www.bpb.de/suche/?all\\_search\\_action=search&all\\_search\\_text=heft+309](http://www.bpb.de/suche/?all_search_action=search&all_search_text=heft+309)

에게 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 주요 선거운동은 거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보고서에서 의도된 연구 목적은 독일 선거방송토론의 어제와 오늘을 거울로 하여 한국 선거방송토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무엇보다 독일 선거방송토론의 발전과정을 시대적으로 통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역사적인 맥락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2009년 독일 연방의회선거운동 기간에 개최된 선거방송토론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당초의 계획에 상응하지 않는 것이며, 특히 많은 시간과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그러나 독일 선거방송토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조망을 개괄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해주는 연구가 국내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독일 선거방송토론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내의 몇몇 선행 연구들은 이 보고서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의 역할을 하였다(심영섭, 200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4; 김무곤, 2008).

연구진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난관은 독일에서 발표된 관련 문헌들을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 있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자료들을 인터넷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인터넷 자료조사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각각의 주제영역들이 독일 선거방송토론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향후 국내의 후속연구들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3) 연구내용 및 방법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보고서는 1990년 통독 이전과 이후의 독일 선거방송토론을 다루고 있다. 2장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독일 선거방송토론을 1960년대의 태동단계, 1970-80년대의 발전단계 그리고 1990년대의 휴지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방송토론의 거부사례가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3장에서는 먼저 독일 선거방송토론의 참가자격 및 토론자 수를 결정짓는 관련 법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선거방송토론의 관련 조직으로 2002년에 구성된 수상토론위원회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2002년과 2005년 독일의 선거방송토론에 있어서는 수상토론위원회의 공식 평가를 비롯하여, 수상후보 양자 TV 토론의 중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2009년의 선거방송토론 분석에서는 중점적

으로 다루어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이외에 소수 정당대표들의 3인 TV토론이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한국의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몇 가지 발전적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간략하게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의 연구는 한국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국내 자료를 제외하면, 독일 인터넷사이트에서 접근이 가능한 독일 선거방송토론에 관한 문헌, 주요 기관의 보고서, 논문, 언론자료와 제1공영방송 ARD와 제2공영방송 ZDF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방송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상자료는 유튜브([www.youtube.de](http://www.youtube.de))를 이용하였다. 독일어 영상자료는 연구자가 녹취록을 작성한 후에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다른 모든 번역도 연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2. 통독 이전의 선거방송토론 (1969-1987)

### 1) 들어가기

제35대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960년 9월 26일에 열렸던 닉슨과 케네디의 TV토론 이후, 독일에서는 1961년 제4회 연방의회선거운동 기간부터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사민당 수상후보를 시작으로 제1야당의 수상후보가 재임수상에게 양자 TV토론을 제안하는 전통이 생겨났다.<sup>3)</sup> 그러나 제14회 연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던 1998년까지 37년 동안 양자 TV토론의 제안을 받아들인 재임수상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대신 1972년부터 1987년까지 독일의 다수정당제에 따라서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정당의 수상후보 및 대표가 참가하는 TV합동토론회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졌다(Scheurle, 2009: 78). 제1공영방송 ARD<sup>4)</sup>와 제2 공영방송 ZDF가 공동주관했던 이 선거방송토론의 공식제목은 1972년에는 ‘선거 4일 전’(Vier Tage vor der Wahl) 그리고 1976년부터 1987년까지는 ‘선거 3일 전’(Drei Tage vor der Wahl)이었는데, 독일에서는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엘레판텐룬데’(Elefantenrunde)라는 수식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60년대 말부터 독일 언론기자들의 은어로 유행하기 시작한 이 용어는 코끼리가 육지동물 중에서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간다는 점에서 선거방송토론에 참석하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무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명사 ‘엘레판트’(Elefant, 코끼리)와 소수의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갖는 회합을 의미하는 명사 ‘룬데’(Runde)의 합성어이다. 한국어로는 ‘거물 정치인들의 원탁토론’으로 의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엘레판텐룬데’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보고서에서도 원어발음을 차용해서 사용하기로 한다.<sup>5)</sup> 또한 ‘엘레판텐룬데’는 연방의회선거가 종료된 일요일 오후 6시 이후 첫 공식 잠정득표율이 발표된 직후에 ARD와 ZDF가 공동주관하여 선거에 참가한 모든 정당의 대표 혹은 최고위원들이 선거결과와 차기 정부연정에 관해 토론을 벌이는 선거특집방송을 지칭하기도 한다. 독일 선거방송토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개괄적 소개를 목적

3) <http://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일은 참고문헌 참조.

4) ARD(Arbeitsgemeinschaft der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 제1 공영방송은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각 연방주에 있는 공영방송사들의 연합체이다. 1950년에 나치시대를 거울삼아 국가의 방송독점을 차단하기 위해 7개의 공영방송사들이 연합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에는 9개의 공영방송사들로 구성된다. 이와는 달리, 제2공영방송사 ZDF(Zweites Deutsches Fernsehen)는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 연방주의 주도 마인츠(Mainz)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하나의 독립법인이다. 1963년 4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http://de.wikipedia.org/wiki/ARD>).

5) 그 이유는 번역 시 독일어의 은유적 표현 ‘Elefant’와 한국어의 ‘코끼리’ 사이에 의미상의 등가(equivalence)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독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Elefantenrunde’(엘레판텐룬데)에서 연상하는 것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코끼리 원탁토론’이라는 표현에서 연상하는 것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으로 하는 이 장에서는 연방의회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TV합동토론회만 고려되었다.

## 2) 1960년대: 태동단계

독일에서 텔레비전이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정착되던 1960년대는 독일 선거방송 토론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다. 제1회 연방의회선거가 있었던 1949년에는 전후 점령연합국의 지원으로 텔레비전 방송이 재정비되어 실험단계에 있었으며, 4년 후인 1953년에도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연방의회선거운동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비록 1952년 12월 25일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당시 공영방송연합 ARD의 중심을 이루던 함부르크의 북서부독일방송(NWDR)에서 전후 최초의 텔레비전 정규 방송을 시작했지만, 초창기의 방송시간은 하루에 2시간을 넘지 않았다.<sup>6)</sup> 더욱이 1950년대 중반까지 텔레비전은 소수 부유층에 한정된 지위상징(Status symbol)으로 일반 근로자들은 구입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sup>7)</sup> 이와는 달리, 1960년대부터는 이미 19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가속화된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의 양적·질적 향상에 힘입어 보도 및 토크쇼 형식의 다양한 TV정치매거진이 활성화되었으며, 빠르게 대중화되어가던 텔레비전 보급은 사회계층의 경계를 넘어서 전후 독일사회의 다양화되어가는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의 주된 매체로 자리를 잡아갔다 (Maurer, 141).<sup>8)</sup>

특히 1963년 4월 25일에는 ZDF가 개국 3주 만에 정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한 정치매거진 ‘저널리스트들이 묻고, 정치인들이 답변한다’(Journalisten fragen, Politiker antworten)가 전파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 방송은 1970년대와 80년대 연방의회선거운동의 정점을 이루었던 TV합동토론회의 모태를 이룬다 (Rosumek;Ackermann, 2007: 115). 정치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했던 이 방송의 기획구상과 진행은 당시 수도 본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일간신문 ‘슈투트가르트 차이퉁’(Stuttgarter Zeitung)의 정치부기자 라인하르트 아펠(Reinhard Appel)이 담당했다. 아펠은 1961년과 62년에 연방기자회협회(BPK) 이사를 겸하면서 방송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전후 독일사회의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했던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했던 것이다.<sup>9)</sup> 아펠이 강조했듯이, 이 방송의 목적은 영향

6) <http://web.ard.de/ard-chronik>

7) 1953년 당시 서독에서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은 300가구에 불과했다. 1956년까지 텔레비전 한 대의 가격은 사양에 따라서 1000-4000마르크까지 다양했는데, 독일국민 80% 이상의 한 달 소득은 400마르크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급격한 기술발전과 이른바 경제기적의 효과로 1957년부터 1000마르크 이하의 텔레비전이 대량생산되어 할부구입이 가능해지면서 급속도로 변화를 거듭해 갔다. 그 결과 컬러방송이 시작된 1967년에는 50% 이상, 그리고 1975년에는 93%의 가구가 적어도 한 대의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었다(<http://de.wikipedia.org/wiki/Fernsehen>).

8) 1960년대 독일 텔레비전방송은 정치와 사회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TV매거진의 활성화로 특징된다.

9) [www.br-online.de/download/pdf/alpha/a/appel\\_reinhard.pdf](http://www.br-online.de/download/pdf/alpha/a/appel_reinhard.pdf)

력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텔레비전을 통해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투명한 민주사회를 건설하고자 했던 전후 독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월 1회 방영된 이 방송은 아펠의 경험을 토대로 공동기자회견 상황을 본보기로 하여 정부관료,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각 정당의 대표 및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4명의 정치인들이 패널로 출연한 2명 혹은 4명의 유력 일간지 편집국장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른 정당 참석자의 답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방송은 인터뷰방송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에 공동기자회견 형식을 벗어나지 않았다.<sup>11)</sup> 따라서 답변자간의 직접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문기자들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토론을 유도하지 않고 오직 질문자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다. 자리배정은 ‘기’자로 이루어졌는데, 중앙 모서리부분에 위치한 사회자의 우측에는 정치인, 좌측에는 신문기자들이 자리하여 답변자와 질문자가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앉았다.<sup>12)</sup>

무엇보다 이 방송은 1957년부터 연방의회선거운동 기간에 정당광고를 위하여 공영방송사에 대해 방송시간의 청구권을 지니는 각 정당의 정치인들에게 추가로 정당 정책 및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독일 선거방송토론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겠다.<sup>13)</sup> 정당 정치인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1961년 6월 6일 제2 공영방송사 ZDF의 설립을 위해 연방주정부간에 체결된 ‘ZDF 국가협약’(ZDF-Staatsvertrag) 제6조 2항이 적용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연방의회 혹은 적어도 세 곳의 연방주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정당은 적절한 방송시간에 정치현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닌다.<sup>14)</sup>

위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ZDF는 1965년 제5회 연방의회선거를 2주 앞둔 9월 2일에 당시 연방의회를 대표하던 4개 정당, 즉 기민당(CDU), 사민당(SPD), 기사당(CSU) 그리고 자민당(FDP) 대표를 초청하여 앞서 언급한 아펠의 방송에서 선거특별방송을 개최하였다. 즉, 방송에 초청될 수 있는 자격은 원내진출 정당에 국한되었

10) 위의 출처.

11) <http://www.zeit.de/1973/18/schmierentheater>

12) <http://www.zdf.de/ZDFmediathek/suche>, 검색어: Helmut Kohl

13) 1957년 9월 3일, 제3회 연방의회선거를 2주 앞두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선거에 합법적으로 참가하는 모든 정당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한 정당광고의 방송시간을 공영방송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결과로 1957년에는 전후 독일에서는 최초로 텔레비전을 통한 정당들의 선전방송이 ARD의 채널을 통해 전파를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한 정당들의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텔레비전의 대중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중반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른바 ‘영화차’(Filmwagen)가 주로 사용되었다. 영화차란 8mm 영사기를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정당선전영화를 상영했던 버스나 화물차를 말한다. 예컨대 1965년 기민당의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수상은 선거운동기간에 60대의 영화차를 동원했다(<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6274017.html>).

14) <http://www.zeit.de/1973/18/schmierentheater>

으며, 이 원칙은 1964년에 설립된 극우정당 독일민족주의당(NPD)의 방송출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ZDF 감사위원회의 기본방침이기도 했다.<sup>15)</sup> 1965년 9월 2일에 방영된 ZDF 선거특별방송에는 초청을 거부한 콘라트 아데나우어(Konrad Adenauer) 수상을 대신하여 기민당을 대표한 오이겐 게르스텐마이어(Eugen Gerstenmaier) 연방회의의장,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후보, 기사당의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Franz-Josef Strauß) 대표 그리고 자민당 대표 에리히 멘데(Erich Mende)가 참석했다.<sup>16)</sup>

제6회 연방의회선거가 있었던 1969년에는 1965년과 마찬가지로 ZDF에서 선거특별방송으로 제작된 아펠의 방송에 처음으로 재임수상이 참석했다. 이 방송은 9월 25일 오후 9시 35분부터 한 시간 동안 방영되었다.<sup>17)</sup> 참석자는 기민당의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어(Kurt Georg Kiesinger) 수상, 사민당 수상후보 빌리 브란트 외무장관, 기사당 대표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ß) 재무장관 그리고 자민당의 발터 쉘(Walter Scheel) 대표였다.<sup>18)</sup> 질문을 위한 패널로는 4명의 독일 일간지 기자와 인근 유럽국가에서 4명의 신문기자들이 참가했다.<sup>19)</sup> 특히 이 선거특별방송은 정치·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자민당의 발터 쉘 대표가 약 3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본 방송에서 연방의회선거 이후 사민당과 정부연정을 구성할 의사가 있음을 처음으로 공표했기 때문이었다(Jakob, 2007).<sup>20)</sup> ZDF의 ‘저널리스트들이 묻고, 정치인들이 답변한다’는 텔레비전이 여론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960년대에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운동의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텔레비전 방송이었다.<sup>21)</sup>

### 3) 1970-80년대: 발전기

1969년을 계기로 1972년에서 1987년까지는 ARD와 ZDF의 공동주관으로 연방의회선거운동 마지막 주에 재임수상을 비롯하여 모든 원내진출 정당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선거방송토론회가 이루어졌다. 또한 1976년과 1980년에는 연방의회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놓고 ZDF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부터 60분 동안 ‘시민들이 묻고, 정치인들이 답변한다’(Bürger fragen, Politiker antworten)라는 시민포럼형 토론방송을 생중계 했다(〈표 2〉 참조). 이 방송은 라인하르트 아펠이 앞서

15) 위의 출처.

16)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6274076.html>

17)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5562600.html>

18) <http://www.tagesspiegel.de/medien/weg-vom-duellchen/1600274.html>

19)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5562600.html>

20) 기민/기사연합은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원년부터 1965년까지 자민당과 연정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1966년에는 자민당과의 연정을 파기하고 사민당과 연정을 체결하고 있었다.

21) <http://www.zeit.de/1973/18/schmierentheater>



언급한 그의 방송시간에 제목만 바꾸어서 기획한 것이었다. 1976년에는 각 정당의 수상후보들이 한 명씩 일주일 간격으로 방위산업체, 탄광, 시민회관, 제철소에서 근로자, 시민 그리고 선거권을 지닌 18세 이상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으며, 1980년에는 4개 신문사 사옥에서 그 곳의 기자 및 해당 신문구독자들이 각각 한 명의 수상후보에게 질문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표 2〉 참조).

1972년 연방의회선거 이전에는 모두 세 차례에 걸친 TV합동토론회가 방영되었다(Rosumek;Ackermann, 2007: 116). 토론자는 1969년 최초의 사민당 소속 연방수상이 된 빌리 브란트,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제1야당의 역할을 맡은 기민당 라이너 바르첼(Rainer Barzel) 수상후보 그리고 자민당의 발터 쉘외무장관과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기사당 대표였다.<sup>22)</sup> 1차 엘레판텐룬데는 선거한 달 전인 10월 18일에 ‘선거 전 독일’(Deutschland vor der Wahl)이라는 제목으로 ARD가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메인저녁뉴스에 이어서 오후 8시 20분부터 오픈엔드(Open-End) 형식으로 4시간 동안 생중계 되었다.<sup>23)</sup> 2차 엘레판텐룬데는 선거 2주 전인 11월 2일에 라인하르트 아펠의 방송에서 오후 9시 55분부터 역시 4시간 동안 생중계 되었다.<sup>24)</sup> ARD와 ZDF가 공동주관한 3차 엘레판텐룬데에서는 별도의 패널 없이 1,2차 토론회의 사회자들이 교대로 주제를 제시했으며,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직접토론이 이루어졌다(Breuer, 2006). 3차 선거방송토론은 58%라는 놀라운 시청률을 기록했다(Rosumek;Ackermann, 2007: 117). 세 차례 모두 청중은 없었다. 1972년의 토론형식은 1976년부터 1987년까지 선거방송토론의 근간이 되었다(Wilke/Spiller, 2006). 즉, 방송종료 시간은 열려있었으며, 평균 2-4시간이 소요되었다. 진행방식에 있어서도 예컨대 답변은 2분 30초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규칙이 있었지만(Kuhn, 2007: 56), 1970년대와 80년대 엘레판텐룬데의 영상자료는 토론규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sup>25)</sup> 오히려 후보자들이 토론방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에는 토론자들이 통계자료 등 보조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토론 중에 흡연을 하는 장면은 오늘날의 독일과는 대조를 이룬다. 특히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수상은 자타가 공인한 열렬한 애연가였다.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983년까지 엘레판텐룬데에서 정당별 후보자들

22)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2805515.html>

23)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2891260.html>

24)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2787493.html>

25) ARD는 2009년 9월 21일 오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독일선거방송토론 다큐멘터리 ‘수상직을 둘러싼 투쟁 - 독일 TV에서 방영된 가장 긴장감 있는 엘레판텐룬데’를 방영했다. 원래 이 방송시간에는 메르켈(기민당)과 슈타인마이어(사민당)의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이후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초청된 엘레판텐룬데가 ARD와 ZDF 공동주관으로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메르켈 수장과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이 출연을 거부하여 합동토론회가 편성에서 제외되고, 그대신 위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이 방송의 원제는 ‘Kämpfe ums Kanzleramt - Die spannendsten Elefantenrunden im deutschen Fernsehen’이다. 영상자료 출처: [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

의 자리는 중앙의 사회자를 좌우로 여당과 야당으로 양분되어 배치되었지만, 1987년에는 정치진영과 무관하게 연방의회 의석수에 따라 여당과 야당의 대표들이 시계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며 나란히 앉았다.



〈그림 1〉 엘레판텐룬데 자리배치  
1980.10.2

시계방향:

야당(기민/기사 수상후보 슈트라우스, 기민당 대표 헬무트 콜) → 사회자(ARD 칼 바이스, ZDF 라인하르트 아펠) → 여당(사민당 헬무트 슈미트 수상, 자민당 대표 한스 디트리히 겐서 외무장관)

\* 사진출처: 연구자에 의한 ZDF 영상자료 캡처<sup>27)</sup>



〈그림 2〉 엘레판텐룬데 자리배치  
1987.1.25

시계방향:

기민당(헬무트 콜 수상) → 사민당(요하네스 라우) → 기사당(슈트라우스) → 자민당(마르틴 방에만) → 녹색당(유타 디트푸르트) → ARD/ZDF 사회자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음)

\* 사진출처<sup>26)</sup>

1980년대부터 녹색당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연방주를 시작으로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등의 연방주의회에 진출함으로써 1983년에는 녹색당 대표의 TV합동토론회 참석을 둘러싸고 녹색당과 공영방송사 간에 신경전이 있었다. 녹색당은 당시 선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엘레판텐룬데에 참석하기 위하여 ZDF본사가 위치한 마인츠의 행정법원에 TV합동토론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했고, 해당 법원은 녹색당이 연방의회를 대표하게 될 경우에만 엘레판텐룬데에 초청될 자격을 지닌다는 판결을 내렸다(Maurer;Reinemann, 2003: 14). 1983년 제10회 연방의회선거에서 녹색당이 연방의회를 대표하게 됨으로써 1987년에는 ARD와 ZDF의 엘레판텐룬데 ‘선거 3일 전’에 유타 디트푸르트(Jutta Dithfurth) 여성대표가 참석하게 되었다. 이로써 선거방송토론회의 참가자는 5명으로 늘어났고 정치진영에 따른 기존 여당과 야당의 전통적인 2:2 자리배정은 불가능했다. 당시 독일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현재의 독일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기존의 전통 정당에게 녹색당 또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야당 진영의 자리배정이 모호 했던 것이었다.

26) 사진출처: [http://www.welt.de/politik/article1382519/Jutta\\_Ditfurth\\_ueber\\_Ulrike\\_Meinhof.html](http://www.welt.de/politik/article1382519/Jutta_Ditfurth_ueber_Ulrike_Meinhof.html)

27) 사진출처: ZDF 영상자료 연구자 캡처. <http://www.zdf.de/ZDFmediathek/suche>, 검색어: Helmut Kohl

토론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1970년대와 80년대의 엘레판텐룬데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바로 재임수상과 제1야당 수상후보의 치열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6년과 1980년의 선거방송토론에서 헬무트 슈미트 수상과 헬무트 콜의 신경전은 독일 선거방송토론의 전설이 되었을 정도이다. ZDF의 관련 영상자료를 근거로 1980년 10월 2일 3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ARD와 ZDF의 선거방송토론회 ‘선거 3일전’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기로 한다. 먼저 국가부채에 관한 정부자료를 헬무트 콜이 인용하던 도중에 헬무트 슈미트 수상과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sup>30)</sup>

슈미트 ⇨ 콜: (의자에 여유롭게 등을 기댄다. 왼손으로 담배 한 가치를 집어 들면서 헬무트 콜에게 타이르듯 말한다) “콜 대표, 당신은 비기독교적인 왜곡인용자(ein unchristlicher Zitatfälscher)<sup>28)</sup>입니다!” (여유로운 미소를 보낸다) (“Sie sind ein unchristlicher Zitatfälscher, Herr Kohl!”)

콜 ⇨ 슈미트: (흥분된 표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자료를 계속 읽겠습니다!” (“Blamieren Sie sich so gut Sie können! Ich lese meinen Text weiter!”)

슈미트 ⇨ 콜: (담배를 피우며 여유로운 표정으로) “콜 대표, 내 생각에 당신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err Kohl, ich glaube, Sie reden etwas, was Sie nicht genau verstanden haben.“)

콜 ⇨ 슈미트: (질책어린 강한어조로, 하지만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이제 정말 당신에게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드물게 사회주의식으로 엘리트인 척하려는 오만함(sozialistisch-pseudoelitäre Arroganz)<sup>29)</sup>, 그 오만함을 당신은 함부르크 지역구에서나 부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백만의 독일 텔레비전 시청자들 앞에서는 아닙니다. 정말로 제발 독일 연방수상에게 어울리는 행동을 해 주십시오!” (Ich muss jetzt Ihnen wirklich sagen. Diese ungewöhnliche sozialistisch-pseudoelitäre Arroganz, die können Sie in Hamburger Ortsverein praktizieren. Aber nicht vor einem deutschen Fernsehpublikum von vielen Millionen. Benehmen Sie sich wirklich bitte, wie es dem deutschen Bundeskanzler zukommt!“)

두 명의 사회자는 중재의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긴장감도는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헬무트 콜의 발언이 끝나자, ZDF의 사회자 라인하르트 아펠은 긴장된 어조로 분위기를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토론의 내용을 지적한다.

28) “비기독교적”이란 헬무트 콜이 속해 있는 기민당(기독교민주당)을 비꼬는 표현이다.

29) “사회주의적”이란 슈미트 수상의 사민당(사회민주당)을 비꼬는 말로, 헬무트 콜은 이 표현으로 슈미트 수상의 말(“비기독교적”)에 응수한 것이다.

30) ZDF 홈페이지 자료화면. (<http://www.zdf.de/ZDFmediathek/suche>, 검색어: Helmut Kohl, 동영상: 2010.3.30). 연구자의 국역: 독일어 경칭 ‘Herr’(영어의 Mr.에 해당)은 번역 시 한국사회의 실제 언어사용을 반영하여, 맥락에 따라서 ‘대표’ 혹은 ‘씨’로 번역되었음. 상황과 상대방에 상관 없이 성인 남성들 사이에 항상 존칭으로 사용되는 독일어의 ‘Herr’와는 달리, 현재까지 한국사회에서 이름 뒤의 ‘씨’는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반드시 존칭으로만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라인하르트 아펠(ZDF) ⇨ 칼 바이스(ARD): 바이스 씨, 평소에는 대면하지 않고 포스터와 혹은 개별 공식발표를 통해서만 서로를 공격하는 대표후보자들이 모인 여기 이 자리에서” (순간 멈칫하다가 말을 이어간다) “여러 가지를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제게 조금 아쉬웠던 것은 정보내용이... 기대했던 범위 내에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Es ist wohl verständlich..., Kollege Weiss, dass hier jetzt bei einer solchen Zusammensetzung von Spitzenkandidaten, die sonst nur über Plakate und, ob Einzelkündigung, ohne sich Augen auch zu sehen, gegeneinander angreifen, hier...äh...Verschiedenes direkt sagen. Auf der anderen Seite...b...bin ich ein bißchen unglücklich, dass... der Informationsgehalt...äh...doch dabei nicht im wünschenswerten Umfang groß genug ist.”)

1980년 선거방송토론 후 언론과 시청자들은 객관적인 정보 보다는 상대방을 폄하하고,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인 인신공격이 난무했다는 평가를 했다.<sup>31)</sup> 또한 방송을 주관했던 ARD에서는 선거방송토론의 진행방식을 놓고 각 연방주 공영방송사의 편성국장 비공개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다. 주간 시사지 ‘슈피겔’(Der Spiegel)은 방송 열흘 뒤인 1980년 10월 13일에 “우리는 위신을 잃어가고 있다”(Wir verlieren unser Ansehe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토론자들의 무절제함과 증재능력을 상실한 두 사회자를 비판했다. 특히 이 기사에는 앞에서 언급한 ARD 소속 방송사의 편성국장 비공개회의 녹취록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자성적 발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sup>32)</sup>

남서방송(Südwestfunk) 한스 그레스만: “우리 스스로 언론기자들의 도산을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입니다.”

서부독일방송(WDR) 부편성국장 클라우스 H. 카스도르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부독일방송 테오. M. 로흐: “완곡하게 표현해서 근본적인 실수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게 토론방송의 진행을 위임했다는 인상을 주었다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독일방송(Süddeutscher Rundfunk) 에밀 오버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참기만 한다면, 국민과 우리들의 동료인 인쇄매체 기자들 앞에서 우리의 위신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기존의 4자 TV합동토론의 형식에서 벗어나, 두 명의 후보자가 참가하는 공동기자회견 형식의 선거방송토론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Scheurle, 2009). 선거방송토론의 시청률 또한 1972년의 58%에서 1983년에는 36%로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였으며, 1987년에도 37%에 머물렀다(Maurer; Reinemann, 2003: 15).

31) [http://www.phoenix.de/historische\\_debatten/2005/08/25/0/35941.html](http://www.phoenix.de/historische_debatten/2005/08/25/0/35941.html)

32)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320117.html>

#### 4) 1990년대: 휴지 단계

1990년부터 헬무트 콜 수상이 정례 TV합동토론회를 비롯하여 연방의회선거 이전에 기획된 모든 토론방송에 참가를 거부함으로써 1987년 이후 ARD와 ZDF의 선거방송토론 ‘선거 3일 전’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sup>33)</sup> 또한 콜 수상은 자신의 재임 기간인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 동안 양자 TV토론에 대한 사민당 수상후보들의 제안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990년대 독일에서는 연방의회선거 이전에 단 한 차례의 선거방송토론도 개최되지 않았다.

#### 5) 선거방송토론 거부사례

양자 TV토론에 대한 제1야당 수상후보의 제안과 재임수상의 거부는 단지 콜 수상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61년에 사민당 수상후보였던 빌리 브란트가 제4회 연방의회선거에 즈음하여 기민당의 콘라드 아데나우어 수상에게 양자 TV토론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매개로 작용했던 것이 1960년 9월 26일에 개최된 닉슨과 케네디의 미국 대선 TV토론이었다. 케네디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른바 ‘대토론’(The Great Debate)은 독일에서도 녹화 방영되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sup>34)</sup>, 전후 독일의 정치인들에게는 선거운동에서 텔레비전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지니는 커다란 잠재력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방송사들도 높은 시청률을 올리는 선거방송토론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의 급격한 대중화 속에서 빌리 브란트는 케네디 효과를 철저히 자신의 선거운동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최초의 전후 독일 정치인이었다. 1961년 연방의회선거에서 사민당 언론홍보담당관이었던 클라우스 슈츠(Klaus Schütz)는 케네디의 미디어 이미지를 수상후보인 브란트에게 전이(轉移)시키려는 선거운동전략을 세우고 미국의 대선캠페인 및 닉슨과 케네디의 TV토론을 관찰하기 위하여 2주 동안 미국에 머물기도 했다(Rosumek·Ackermann, 2007: 108). 심지어 1960년 11월 하노버에서 열린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수상후보로 선출된 브란트의 연설문에는 케네디의 대통령후보 수락연설문의 한 부분이 독일어로 직역되어 사용되기까지 했다(Rosumek;Ackermann, 2007: 108).<sup>35)</sup> 이렇듯 닉슨과 케네디의 TV토론이 당시 독일

33) <http://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34) 자유베를린방송(SFB)은 닉슨과 케네디의 모든 TV토론을 축소 편집하여 독일어자막과 함께 1960년 10월 11일에서 24일까지 세 차례로 나누어 방영했다 (<http://web.ard.de/ard-chronik/>, 검색어: 11.10.1960, 검색일: 2011.7.5).

35) 이와 관련하여 독일 언론인 한스 울리히 캠프스키는 일간지 ‘쾨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의 한 사설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슈츠가 추가한 것은 단 한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은 전당대회 참석자들이 모두 기립박수를 보낼 정도로 그들에게는 감동적인

연방의회선거운동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으며, 브란트뿐만 아니라 그의 양자 TV토론의 제안을 받은 아데나우어 수상도 -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특히 -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텔레비전의 영상매체적 특징과 그 효과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자 TV토론을 거부했던 것이다(Rosumek;Ackermann, 2007: 115). 1961년 당시 브란트는 48세, 아데나우어는 85세였다.

1965년 제5회 연방의회선거운동 기간에도 브란트는 기민당의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수상에게 양자 TV토론을 제안했지만, 에르하르트 수상 역시 이를 거절했다.<sup>36)</sup> 엄밀하게 말해서 선거방송토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ARD는 1961년부터, 그리고 ZDF는 1965년부터 연방의회선거 당일 저녁시간에 선거특집방송을 방영하기 시작했다(Wied 2007: 220). 1965년 ARD는 오후 8시 15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58분까지 선거특집방송을 진행하면서, 각 정당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선거결과에 대한 특별대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방송에 나오지 않자, ARD는 원래 정당대표들이 앉아있어야 할 자리를 비어둔 상태로 정치인들에 대한 시위방송을 내보낸다. 사회자는 빈 의자를 일일이 가리키며 어떤 자리에 어느 정당의 대표가 앉기로 되어 있었는지를 시청자들에게 설명한다 (〈그림 3〉 참조).

“여러분들은 여기에 네 개의 빈 의자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빈 의자 정치입니다. 구상되고 기획된 것은, 저기는 기민당의 주요 대표가 자리를 해야 했고, 저기는 사민당의 주요 대표가, 저기는 자민당의 주요 대표, 저기는 직접 출연하거나, 아니면 전파를 통해 뮌헨으로 기사당의 주요 대표가 연결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강조해서 말한다) 즉, 여기서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의회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의회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에서는 격렬하게 맞서고, 선거 이후에는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Sie sehen hier vier leeren Stühle. Das ist die Politik der leeren Stühle. Gedacht und geplant war, dass dort ein prominenter Vertreter der CDU, dort ein prominenter Vertreter der SPD, dort entweder körperlich oder durch Schalter nach München elektronisch ein prominenter Vertreter der CSU. Es sollte nämlich demonstriert werden, wie parlamentarische Demokratie, demokratischer Parlamentarismus manifest gemacht werden kann! Im Wahlkampf hart auseinandersetzen, nach dem Wahlgang sich vernünftig zusammensetzen. Vor den Kameras hat es sich nicht zusammengefügt.”)



〈그림 3〉 ARD 1965년 연방의회선거 후 특별방송

\*사진출처: 연구자에 의한 ARD 영상자료 캡처<sup>37)</sup>

것이였다. 그들은 빌리 브란트가 그 순간 이미 미국의 존 F. 케네디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된 효과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재인용, Rosumek;Ackermann, 2007: 109).

36) <http://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2011.7.12.)

37) ‘Kämpfe ums Kanzleramt’ (ARD 2009년 9월 17일 방송), 영상자료 출처: [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

1969년에는 기민당의 키징어 수상이 브란트가 제안한 양자 TV토론은 물론, 그 대안으로 제시된 TV합동토론회의 참석도 거부했다.<sup>38)</sup> 이 TV합동토론회는 ZDF 라 인하르트 아펠의 방송 ‘저널리스트들이 묻고, 정치인들이 답변한다’를 통해 9월 25 일에 생중계로 방영될 예정이었지만, 키징어 수상측은 “재임수상이 다른 정당들의 대표와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발언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연방수상에게 어울리지 않는다”<sup>39)</sup>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고, 그 대신 부루노 헤크(Bruno Heck) 기민당 원내 총무를 참석토록 하였다.<sup>40)</sup> 아펠은 키징어 수상의 자리를 비워둔 채 합동토론회를 강행하려 했고, 언론과 여론의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 선거방송토론의 영향력을 인식한 키징어 수상은 결국 방송 시작 몇 시간을 남기고 참석을 결정했다.<sup>41)</sup>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독일에서 텔레비전이 선거운동의 중요한 도구로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빌리 브란트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으며, 이미 이 시기부터 독일의 선거운동은 인물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1972년 제7회 연방의회선거운동 기간에는 빌리 브란트가 재임수상으로 기민당의 라이너 바르첼 수상후보의 양자 TV토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공식적인 거절이유는 정당중심적인 독일의 선거제도에서 양자 TV토론은 적합한 선거운동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sup>42)</sup> 제8회 연방의회선거가 있었던 1976년에는 헬무트 슈미트(사민당) 수상이 기자회견에서 헬무트 콜(기민당)의 양자 TV토론의 제안을 거절했다.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 2002년 1월 18일자에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재임수상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든, 도전자에게는 양자 TV토론을 성사시키는데 항상 어려움이 따랐다. 예컨대 거만함 때문에 콧대 높은 슈미트라고도 불렸던 헬무트 슈미트는 당시 자신의 상대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민당 수상은 기민당의 도전자를 차갑게 외면하고 그의 전형적인 폄하적 표현으로 답했다. ‘내가 왜 그와 단 둘이서 벌이는 양자 TV토론에 응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1976년의 일이었다. 상대자는 헬무트 콜 이었다.”<sup>43)</sup>

다른 이유는 당시 사민당과 연정정부를 구성하고 있던 자민당의 대표 한스 디트리히 겐셔(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관(부수상)이 슈미트 수상이 자민당을

38) 위의 출처.

39) 위의 출처.

40)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5562600.html>

41) <http://www.tagesspiegel.de/medien/weg-vom-duellchen/1600274.html>

42) <http://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43) <http://www.faz.net/artikel/C30189/woerter-see-fernsehduell-30113726.html>

배제하고 양자 TV토론에 응할 경우 사민당과의 연정을 파기할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었다.<sup>44)</sup> 따라서 슈미트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콜과의 양자 TV토론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히고, 4개 정당 대표의 TV합동토론회를 제안하게 되었다. 1976년 9월 3일에는 여론조사기관 ‘엠니드’(Emnid)가 슈미트와 콜의 양자 TV토론 개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기민당(CDU)을 지지하는 남성 유권자들 중 63%는 양자토론을 원했고, 개신교(Protestant) 소상인들의 70%는 합동토론회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5)</sup> 또한 알렌바흐(Allenbach)의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슈미트 수상은 양자토론에서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박력 있게 비취지지만, 은퇴한 농경인들에게는 독선적인 인상을 줄 것이며, 반면에 콜의 공신력은 토론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sup>46)</sup> 1980년에도 슈미트 수상은 자민당의 ‘권유’로 기민/기사연합의 수상후보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80년에도 여론조사기관 ‘엠니드’에 따르면 독일 유권자의 54%가 TV합동토론회를 원하고 있었으며, 43%가 슈미트와 슈트라우스의 양자토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7)</sup> 자민당과 연정정부를 구성하던 헬무트 콜 수상도 자신의 재임기간인 1983년에서 199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사민당 수상후보와의 양자 TV토론을 거절했으며, 통독 원년인 1990년부터 1998까지는 정당의 증가에 따른 토론자의 증가를 우려하여 연방의회선거 이전에 이루어지던 TV합동토론회도 모두 거부했다.<sup>48)</sup> 이제까지 보았듯이 독일에서는 1961년부터 연방의회선거에 즈음하여 양자 TV토론에 대한 논의가 의례적으로 있어왔으며, 1987년까지 ARD와 ZDF가 공동으로 주관했던 TV합동토론회는 예외 없이 양대 거대정당 수상후보들의 양자 TV토론을 둘러싼 신경전 끝에 개최되었던 것이다.

44) <http://www.tagesspiegel.de/medien/wenn-sie-da-hingehen-geht-die-fdp/344234.html>

45)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1146993.html>

46) 위의 출처.

47)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323370.html>

48) <http://blog.zeit.de/zweitstimme/category/wahlkampf/tv-duelle/page/2/>



〈표 1〉 통독 이전의 선거방송토론 (1969-1987)

선거일	방송일	방송사	방송제목	방송시간	정당별 참석자 (*강조: 연방수상)				
					기민당(CDU)	사민당(SPD)	기사당(CSU)	자민당(FDP)	녹색당(Grüne)
1969. 9.28	9.25	ZDF	저널리스트들이 묻고, 정치인들이 답변한다	21:35	*쿠르트 게오르크 키징어	빌리 브란트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발터 쉘	-
1972. 11.19	10.18	ARD	선거 전 독일	20:20	라이너 바르첼	*빌리 브란트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발터 쉘	-
	11.02	ZDF	저널리스트들이 묻고, 정치인들이 답변한다	21:55					
	11.15	ARD ZDF	선거 4일 전	20:20					
1976. 10.13	09.30	ARD ZDF	선거 3일 전	20:15	헬무트 콜	*헬무트 슈미트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한스 디트리히 겐서	-
1980. 10.05	10.02	ARD ZDF	선거 3일 전	20:15	헬무트 콜	*헬무트 슈미트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한스 디트리히 겐서	-
1983. 3.06	03.03	ARD ZDF	선거 3일 전	20:15	*헬무트 콜	한스 요헨 포겔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한스 디트리히 겐서	-
1987. 1.25	01.22	ARD ZDF	선거 3일 전	20:15	*헬무트 콜	요하네스 라우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마르틴 방에만	유타 디트후르트

출처: 연구자 재구성

1969: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5562600.html>  
 1972: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2805515.html>  
 1976: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1136385.html>

1980: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316646.html>  
 1983: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024025.html>  
 1987: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3523104.html>

〈표 2〉 ZDF 선거특집 ‘시민들이 묻고, 정치인들이 답변한다’ (1976년, 1980년)

선거일	방송일	방송시간	참가자 (*강조: 연방수상)	장소
1976.10.13	9.2	21:15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사민당)	메쉴슈미트 벨코브 블롬 (Messerschmidt -Bölkow-Blohm) 방위산업체 (오토부룬/Ottobrunn 소재)
	9.9	21:15	*헬무트 슈미트 (사민당)	자르탄광 주식회사 (Saarbergwerke AG) (자르부뤼켄/Saarbrücken 소재)
	9.16	21:15	한스 디트리히 겐서 (자민당)	시민회관 (뷔헬/Brühl 소재)
	9.23	21:15	헬무트 콜 (기민당)	제철소 (지겐/Siegen 소재)
1980.10.5	9.4	21:15	프란츠 요셉 슈트라우스 (사민당)	베스트팔렌 블라트 (Westfalenblatt) 신문사 (빌레펠트/Bielefeld 소재)
	9.11	21:15	*헬무트 슈미트 (사민당)	뉘른베르거 나흐리히텐 (Nürnberger Nachrichten) 신문사 (뉘른베르크/Nürnberg 소재)
	9.18	21:15	한스 디트리히 겐서 (자민당)	슈투트가르터 차이퉁 (Stuttgarter Zeitung) 신문사 (슈투트가르트/Stuttgart 소재)
	9.25	21:15	헬무트 콜 (기민당)	라이니셰 포스트 (Rheinische Post) 신문사 (뒤셀도르프/Düsseldorf 소재)

출처: 연구자 재구성

1976: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1147155.html>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1146968.html>  
 1980: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327011.html>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331022.html>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1147063.html>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1157546.html>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328940.html>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333057.html>

### 3. 통독 이후의 선거방송토론 (2002-2009)

#### 1) 들어가기

2002년 제15회 연방의회선거운동 기간에는 1987년 이후 중단되었던 선거방송토론이 15년 만에 재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0-80년대와 비교할 때,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연방의회선거 이전에 방영된 선거방송토론의 형식은 아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① 양자 TV토론: 기민/기사, 사민당
- ② 소수 정당 최고대표 3자 TV토론: 동맹90/녹색당, 자민당, 좌파연합
- ③ 합동 TV토론: 위의 모든 정

위의 분류는 일차적으로 선거방송토론을 주관해온 공·민영방송사의 방송편성계획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형식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런 상황도 발생했다. 예컨대 합동 TV토론의 경우, 수상후보를 대신해서 다른 최고위원이 참여하는 경우(2002년 사민당)도 있으며, 양대 거대정당의 수상후보가 모두 불참하는 경우(2009년)도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관방송사들이 방송편성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방송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 또한 2장에서 언급했듯이 연방의회선거가 종료되는 일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첫 번째 정당별 공식 잠정득표율이 발표된 직후에 시작되는 TV토론도 넓은 의미에서는 선거방송토론의 범주에 포함된다. ‘베를리너 룬데’(Berliner Runde)라는 제목으로 ARD와 ZDF가 공동주관하여 동시에 생중계하는 선거 후 합동 TV토론에서는 양대 거대정당의 수상후보와 소수 정당의 대표후보들이 선거결과와 특히 차기 입법회기 동안의 정부연정 구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선거결과의 일차적인 윤곽이 드러난 후에 향후 4년간의 정책에 책임을 지는 정부연정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 후 합동 TV토론도 유권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제공의 의미를 지닌다. 선거 후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TV토론은 유일하게 1960년대 말부터 중단 없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형식이다. 양대 거대정당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은 공·민영방송 4사(ARD, ZDF/RTL, Sat.1)가 주관해오고 있으며, 소수 정당의 최고대표 3자 TV토론과 합동 TV토론은 두 공영방송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탁연구의 취지상 양자 TV토론만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실제적인 연구대상인 2009년 양대 거대정당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을 제외한 2002년과 2005년의 양자 TV토론은 연구자가 의도한 연구 설계의 연대기적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개괄적으로만 다루어진다.

## 2)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독일에는 선거방송토론의 개최를 직접적으로 명문화한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다(김무곤, 2008). 이미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독일의 공·민영방송사들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한하여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정당에게 선거광고를 위한 방송시간을 할애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닐 뿐이다. 즉, 방송사가 방송시간의 제공에 대한 정당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방송사와 무관하게 제작된 정당광고에만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의 개최여부와 초청대상자는 전적으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초청된 정치인이 방송사의 초청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둘째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사와 방송사의 초청에서 제외된 정당 간에 신경전이 일어나기도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1980년대 초에는 녹색당이 ARD와 ZDF가 연방의회선거 이전에 공동주관한 '엘레판텐룬데'에 참가하기 위하여 두 공영방송사와 법적 공방을 벌였고, 자민당 대표이던 겐서 외무부장은 자민당이 초청되지 않은 양대 거대정당 수상후보의 양자 TV토론 개최를 연정파기를 내세우기까지 하며 저지했다.

## 3) 자민당의 법정 소송

2002년에는 독일 정당법에 명시된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근거로 자민당의 귀도 베스트벨레 대표가 9월 8일에 공영방송 ARD와 ZDF가 공동으로 주관한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재임수상과 기민/기사연합의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의 2차 TV토론에 참가하기 위하여 법정 소송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소송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에 명시된 방송자유의 원칙에 우위를 두어 공영방송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소수 정당들이 제외된 양대 거대정당 수상후보의 TV토론이 위헌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의 전례를 남겼다. 자민당과 두 공영방송사의 법적 공방은 그 과정에 있어서 양대 거대정당의 선거운동에 뒤지지 않는 언론과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었으며, 유권해석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 학계 및 언론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관련 학계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다른 유권해석을 포함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여기서는 - 인터넷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 2002년 당시의 언론보도, 법원판결문 그리고 관련 학술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법원의 유권해석 및 관련 학술연구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건발단의 연대기적 개괄

• **1월 17일, 22일자 ‘슈피겔’ (Der Spiegel):** 2002년 1월 17일에 슈뢰더는 슈토이버와 함께 ZDF의 정치토크쇼 ‘베를린 미테’(Berlin Mitte)에 출연한 자리에서 자신은 헬무트 콜 전 수상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고 제1야당 수상후보와의 양자 TV토론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밝힌 후, 공·민방송사에서 각각 한 차례의 TV토론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였다(Breuer, 2006: 63). 슈토이버도 긍정적인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양대 거대정당 수상후보의 양자 TV토론이 공식적으로 표면화되었다.<sup>49)</sup> 소수 정당들의 반응은 거셴다. 특히 자민당 원내총무는 유권자의 표심을 두 후보자에게 집중시키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당시 적녹연정(사민당, 동맹90/녹색당)의 부수상 이었던 요시카 휘셔(Joschika Fischer) 녹색당 대표도 슈뢰더와 슈토이버 “두 후보 간의 토론은 일차적으로는 연방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거대정당들이 절대과반수의 득표율을 획득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수 정당들이 연방의회선거의 결과를 결정지게 될 것”<sup>50)</sup>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 **4월 27일자 ‘디벨트’(Die Welt):** 4월 25일에 민영방송사와 공영방송사의 수상 후보 양자 TV토론 일정이 각각 8월 25일과 9월 8일로 공식 발표되자, 자민당 대표 베스터벨레는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다른 정당들이 결정적인 선거방송토론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정당의 기회균등에 반(反)하는 것”<sup>51)</sup>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하루 전에 베스터벨레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도 양대 거대정당 수상후보의 양자 TV토론은 위헌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sup>52)</sup>

• **5월 12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5월 12일에 만하임에서 열린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귀도 베스터벨레는 슈뢰더와 슈토이버의 TV토론에의 참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민당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수상후보로 선출되었다.<sup>53)</sup>

• **6월 26일자 ‘네츠차이퉁’(netzzeitung.de):**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자민당은 ARD와 ZDF가 정당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기회균등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학자 마르틴 모르로크(Martin Morlok)의 평가서를 동봉하여 7월 1일까지 자민당의 수상후보가 두 공영방송사의 주관 하에 9월 8일로 예정되어

49)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a-177605.html>

50)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178293,00.html>

51) [http://www.welt.de/print-welt/article386571/FDP\\_erwaegt\\_Klage\\_gegen\\_TV\\_Duell.html](http://www.welt.de/print-welt/article386571/FDP_erwaegt_Klage_gegen_TV_Duell.html)

52) <http://www.faz.net/artikel/C30189/fdp-westerwelle-und-das-tv-duell-der-finale-akt-30261785.html>

53) <http://www.faz.net/artikel/C30189/wahlkampf-westerwelle-erster-kanzlerkandidat-der-fdp-30117875.html>

있는 슈뢰더와 슈토이버의 양자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sup>54)</sup>

• 7월 2일자 ‘디 벨트’: 최후통첩 기한이 만료된 7월 1일, ARD 보도국장은 자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최종적인 공식입장을 발표했다.<sup>55)</sup>

• 7월 7일자 ‘슈피겔’, 7월 9일자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7월 9일에 자민당은 쾰른과 마인츠에 있는 행정법원에 ARD의 대표격인 서부독일방송(WDR)과 ZDF를 상대로 9월 8일 TV토론에 대한 긴급 가처분을 신청했다.<sup>56)</sup> ARD와 ZDF는 이미 해당 법원에 방어진술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그 내용은 자민당 대표가 수상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정당이 ARD와 ZDF의 편성국으로 하여금 정치토론방송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외부세력의 개입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기획의도”<sup>57)</sup>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sup>58)</sup> 8월 25일에 1차 TV토론을 주관했던 민영방송사 RTL과 Sat.1는 고소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방송은 대부분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보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더 자유롭기 때문에 자민당이 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었다.<sup>59)</sup>

## (2) 정당과 공영방송사의 법적 권리 및 법원의 유권해석

자민당이 긴급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법학자 모르로크의 평가서는 귀도 베스터벨레 자민당 수상후보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서 정당에 대한 동등한 대우(Gleichbehandlung)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는 정당법 제5조 1항 그리고 기회균등(Chancengleichheit)을 보장하는 기본법 제3조 1항과 제21조 1항을 포함하고 있다.<sup>60)</sup> 먼저 정당법 제5조 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권력의 담지자가 제반 정당에게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혹은 다른 공적 급부(öffentliche Leistung)를 제공할 경우, 모든 정당은 동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공적 급부의) 제공 범위는 정당의 중요성에 따라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까지 차이를 둘 수 있다. 특히 정당의 중요성은 국민을 대표하는 지난 선거의 결과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교섭단체로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정당에 대한 (공적 급부의) 제공 범위는 최소한 다른 정당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54) <http://www.netzeitung.de/1/195668.html>

55) [http://www.welt.de/print-welt/article397651/TV\\_Duell\\_Westerwelle\\_wird\\_von\\_ARD\\_und\\_ZDF\\_nicht\\_eingeladen.html](http://www.welt.de/print-welt/article397651/TV_Duell_Westerwelle_wird_von_ARD_und_ZDF_nicht_eingeladen.html)

56) WDR와 ZDF의 본사가 각각 쾰른과 마인츠에 있기 때문이다.

57)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204230,00.html>

58) 위의 출처.

59) <http://www.faz.net/artikel/C30189/medienwahlkampf-fdp-klagt-gegen-ausschluss-vom-tv-duell-30140839.html>

이와 연관해서 모르로크는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의 두 수상후보에게 집중되는 양자 TV토론방송은 “공권력에 의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혜택이며, 이러한 혜택은 정당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sup>61)</sup>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독일 기본법 제3조와 제21조에서 “기회균등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자의금지(恣意禁止, Willkürverbot)가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 경쟁의 규칙, 특히 선거권의 규칙에 의해 전제된 평등원칙”<sup>62)</sup>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기본법 제3조와 제21조에는 아래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제3조: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1조: (1)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기여한다. (이하 생략)

양자 TV토론에 있어서 자민당 대표의 참가를 거부하는 공영방송사측의 주장은 독일 기본법 제5조 1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방송자유(Rundfunkfreiheit)의 원칙으로 대표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누구나 자신의 견해를 말, 글씨 그리고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하며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의 출처로부터 저지당하지 않고 정보를 얻을 권리를 지닌다. 언론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물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실시되지 않는다.

위의 법조항에 근거하여 ARD와 ZDF측이 법원에 제출한 방어진술서는 아래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첫 째, 텔레비전방송 ‘수상후보의 TV결투’는 편집적으로 제작된, 방송사가 책임을 지는 방송이다. 이 방송은 이 방송에 의해서 유발될 수도 있는 광고효과에도 불구하고 선거광고 방송으로 분류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법 제5조 1항에서 사용된 공적 급부(öffentliche Leistung)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sup>63)</sup>

둘 째, 위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실제로 연방수상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질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항고인이 현존하는 정치적 힘의 관계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것은 기회균등의 보장에 대한 정당의 권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sup>64)</sup>

이제까지 보았듯이 문제의 핵심은 자민당측이 주장하는 동등한 대우 및 기회균등의 원칙과 공영방송사가 지니는 방송편성의 자유가 서로 상충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법학자 모르로크는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수상후보 양자 TV토론과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자유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sup>65)</sup> 이러한 자민당의 기대와는 달리, 2002년 7월 19

60) <http://www.zeit.de/1973/18/schmierentheater>

61) <http://www.faz.net/artikel/C30189/tv-duell-die-fdp-will-klagen-30139255.html>

62) 위의 출처.

63)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

64) 위의 출처.

65) <http://www.faz.net/artikel/C30189/tv-duell-die-fdp-will-klagen-30139255.html>

일에 쉰 행정법원 제6재판부는 자민당의 긴급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기각이유는 정당의 선거광고방송의 경우처럼 정당이 방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경우에만 정당은 공영방송사에게 방송시간의 청구권을 지닌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회균등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사가 방송시간을 정당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할 자유를 지닌다는 점에서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66)</sup> 자민당은 뮌스터 고등법원에 항고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8월 14일에 자민당 대표가 차기 입법회에서 연방수상으로 선출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자민당의 항고를 기각했다.<sup>67)</sup> 이어서 8월 23일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원심을 받아들여 긴급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자민당의 의도는 관철되지 못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ARD와 ZDF가 주관하는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이 광고의 효과를 지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광고방송으로는 분류할 수 없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정당법 제5조에서 사용된 공적지원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sup>68)</sup> 또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연관해서도, 공영방송사의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은 9월 8일로 예정이 되어있고, 선거일인 9월 22일까지 2주 동안 자민당 대표가 선거와 관련된 공·민영방송사들의 다른 인터뷰방송이나 토론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편성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방송에 있어서 방송자유 원칙이 기회균등의 원칙에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다.<sup>69)</sup>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사가 정당에게 방송시간을 제공해야할 의무를 지니는 정당의 선거광고방송과는 달리 선거방송토론은 방송사의 책임 하에 편집적으로 제작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에 대한 자유를 지닌다. 즉, 선거방송토론은 기본법 제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방송자유 원칙에 의해서 보호된다. 토론자 선정에 있어서도 자민당은 현실적으로 연방수상에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양대 거대정당의 수상후보만을 초청한 방송사의 기획의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66)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

67) <http://www.faz.net/artikel/C30189/oberverwaltungsgericht-westerwelle-darf-nicht-zum-tv-duell-30218266.html>

68)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

69) 위의 출처.

### (3) 법원의 유권해석에 대한 학계의 시각

연방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은 독일의 관련 학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자르란트(Saarland)대학의 미디어법학과 크리스토프 그뢰플(Christoph Gröpl) 교수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이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한 학자들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2002년 10월 4일 자르란트대학에서 열린 학회에서 발표한 「‘베스터벨레 사건’: 연방의회선거 이전의 ‘텔레비전 결투’에 대한 미디어법적 고찰」(Der „Fall Westerwelle“: Eine medienrechtliche Betrachtung von „Fernseh-Duelle“ vor der Bundestagswahl)이라는 논문에서 특정 텔레비전방송이 “주제, 참석자, 방송형식, 준비과정 그리고 방송시간대 결정에 있어서 방송사 편성국의 단독 책임 하에 결정”<sup>70)</sup> 될 경우에만 방송사가 편성적으로 제작한 방송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이 방송사의 단독 책임 하에 편성적으로 제작된 방송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sup>71)</sup> 그는 2002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의 준비과정에서 슈뢰더 수상측과 슈도이버 후보측의 영향력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 선거방송토론이 전적으로 해당 방송사들의 책임 하에 제작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전체적으로 그뢰플 교수의 논문은 유권해석상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당의 기회균등에 대한 권리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기본법 제3조 1항 및 제21조 1항과 관련하여 기회균등의 의미를 방송자유와 결부시켜서 그 의미를 약화시켰고, 이를 특수하게 평등법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전략시킨 유권해석의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sup>72)</sup> 또한 정당법 제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차등적 기회균등(abgestufte Chancengleichheit)에 관한 규정을 선거 이전에 국민의 민주적 의지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에 적용시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뢰플 교수는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들에게도 유사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선거방송토론의 형식이 정당의 개입 없이 결정되고, 선거일을 충분히 남겨놓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73)</sup>

이제까지 보았듯이 사건의 발단은 다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정치제도와 양대 거대정당의 수상후보에게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양자 TV토론의 형식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제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치제도와 의원내각제 및 다수정당제로 대표되는 독일의 정치제도는 직접

70) [www.uni-saarland.de/fileadmin/user\\_upload/.../10-Westerw-HP.pdf](http://www.uni-saarland.de/fileadmin/user_upload/.../10-Westerw-HP.pdf)

71) 위의 출처.

72) [www.uni-saarland.de/fileadmin/user\\_upload/.../10-Westerw-HP.pdf](http://www.uni-saarland.de/fileadmin/user_upload/.../10-Westerw-HP.pdf)

73) 위의 출처.



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또한 한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는 미국의 대선과는 달리, 독일 연방의회선거에서는 정당이 국민투표의 실질적인 대상이라는 것이 자민당을 비롯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그뢰플 교수와 같은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또한 드레스덴(Dresden) 공과대학의 볼프강 돈스바흐(Wolfgang Donsbach) 교수(커뮤니케이션학)는 2002년 11월에 발행된 학술지 '민주시민교육'(Die politische Bildung)에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에 반대하는 여섯 가지 이유: Sechs Gründe gegen Fernsehduelle」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sup>74)</sup>

① 독일의 정치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화 중심의 선거운동: 돈스바흐 교수가 양자 TV토론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 앞서 언급된 그뢰플 교수의 경우처럼 - 두 명의 수상후보를 선거운동의 중심에 세우는 토론형식과 독일의 정치제도가 상호 호환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한 명의 대통령이 선출되는 미국의 대선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부터 - 과거 나치시대의 역사적 교훈으로 - 한 명의 특정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이 국민투표의 실질적인 대상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돈스바흐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인물화된 독일선거제도의 궁극적인 원인을 강조하면서, 인물화된 선거운동에서는 불가피하게 포퓰리즘의 요소가 강하게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② 선거운동의 포퓰리즘적 인물화: 두 번째는 선거운동에 있어서 인물화중심의 포퓰리즘적 요소는 장기적으로 정당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돈스바흐 교수는 무엇보다 양자 TV토론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포퓰리즘적 인물화가 독일 정치의 중심을 이루는 정당을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③ 소수정당의 불이익: 세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된 자민당의 경우에서처럼 소수정당이 구조적인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선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정당이 동일한 기회와 권리를 지녀야 한다. 돈스바흐 교수는 선거 이전에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하는 선거방송토론이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5개 정당 중에서 2개 정당의 대표들로만 한정된다면 나머지 세 정당은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한다. 즉, 두 정당의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소수정당들은 선거운동의 외곽지대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74) [www.kas.de/wf/doc/kas\\_1043-544-1-30.pdf](http://www.kas.de/wf/doc/kas_1043-544-1-30.pdf)

④ 판단기준의 변화: 네 번째로 돈스바흐 교수는 정치공동체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은 유권자인 시청자들이 후보자를 결정할 때 현혹된 기준을 지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후보자가 대표하는 정당의 정책프로그램이나 후보자의 논증보다는 TV카메라 앞에 비춰지는 ‘토커’(Talker)로서의 후보자의 능력이 유권자들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⑤ 미디어보도의 영향: 다섯 번째 이유는 TV토론에 이어지는 미디어보도가 TV토론을 시청한 유권자들은 물론, TV토론을 시청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돈스바흐 교수가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익일에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 의하면 TV토론을 시청하지 않은 유권자 중 48%가 누가 TV토론을 이겼는가라는 질문에 확고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TV토론을 시청하지 않은 유권자 중에서 30%가 슈뢰더가 이겼다고 응답했으며, 18%는 슈토이버 그리고 무승부 혹은 답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2%였다.

⑥ 유동적인 진행방식: 2002년 1차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은 엄격하게 정형화된 진행방식의 틀 안에서 후보자간의 직접토론 보다는 두 사회자의 질문에 의한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토론방송의 지루함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경직된 진행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슈뢰더 수상측의 요구에 2차 TV토론에서는 1차 TV토론과 같은 엄격한 진행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토론형식의 변화는 능동적인 슈뢰더 수상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반면, 수동적인 슈토이버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 4) 수상토론위원회

수상토론위원회(Kommission zu den Kanzlerdebatten)는 2002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의 개최에 즈음하여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공익연구기관 아돌프 그리메 연구소(Adolf-Grimme Institut)의 소장이었던 베르트 게블러(Bernd Gäbler)를 주축으로 구성되기 시작한 비영리 독립조직이다.<sup>75)</sup> 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신문기자들을 중심으로 5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구성은 4년에 한 번 조직될 때마다 다소 변동이 있다. 위원회의 구성목적은 수상후보 TV토론 및 미디어 선거운동의 과정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관찰하고 분석·평가하여 “공론을 위한 비판적 견해와 담론을 위한 제언 그리고 (수동적인) 시청자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유권자들을 위한 사고의 단초”<sup>76)</sup>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독일 수상토론위원

75) <http://idw-online.de/pages/en/news51345>

76) 위의 출처.

회의 원형은 미국의 대통령토론회(Commission on Presidential Debate)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의 수상토론회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의 준비과정에는 참가하지 않고, 오직 중립적인 관찰자의 입장만 견지한다. 원래의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위원회처럼 수상토론회위원회가 토론방송의 형식과 규칙의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었지만, 주관방송사와 정당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Breuer, 2006). 수상토론회위원회는 악셀슈프링어 출판사(Axel Springer Verlag)의 베를린 본사 회의장에서 수상후보 TV토론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토론방송 직후에 위원들이 모여서 평가토론회를 갖는다. 평가토론회는 협력업체인 독일라디오방송(Deutschlandfunk)에 의해서 생중계로 방송되며, 인터넷으로도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다. 최종 공식평가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며, 이에 관한 기사는 익일 협력신문사의 지면을 통해 보도된다.<sup>77)</sup>

〈표 3〉 수상토론회위원회 조직 및 협력단체 (2002-2009)

소집연도	구성원		협력업체
	이름	소속	
2002	베르트 게블러 (Bernd Gäbler)	아돌프 그리메 연구소 (Adolf-Grimme-Institut)	독일라디오방송 (Deutschlandradio) 독일 텔레콤 (Deutsche Telekom) 일간지 타게스샤우 (Tagesschau)
	루츠 하흐마이스터 (Lutz Hachmeister)	독일 텔레비전상 (Deutscher Fernsehpreis) 심사위원장	
	크리스티네 란트프리트 (Christine Landfried)	함부르크대학 정치학과 교수	
	클라우스 레게뷔 (Klaus Leggewie)	기센(Giessen)대학 미디어학과 교수	
	롤란트 샤희 (Roland Schatz)	본(Bonn) 미디어분석 연구소	
2005	베르트 게블러	프리렌서 출판인	독일라디오방송 일간지 디 차이트
	루츠 하흐마이스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정책 연구소 (Institut für Medien- und Kommunikationspolitik)	
	클라우스 레게뷔	기센대학 정치학과 교수	
	리하르트 멩그 (Richard Mengr)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 (Frankfurter Rundschau) 기자	
	엘리자베스 니야르 (Elisabeth Niejahr)	일간지 디 차이트 (Die Zeit) 기자	
2009	루츠 하흐마이스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정책 연구소	독일라디오방송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연방주 베를린 대표부
	위르겐 카우베 (Jürgen Kaube)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기자	
	수잔 나이만 (Susan Neiman)	아인슈타인 포럼 (Einstein Forum)	
	토마스 슈미드 (Thomas Schmied)	일간지 디 벨트(Die Welt) 기자	
	베르트 울리히 (Be궁 Ulrich)	일간지 디 차이트 기자	

\*출처: 이 보고서에 사용된 다양한 자료에서 연구자 재구성

77) <http://politik-digital.de/edemocracy/wahlkampf/bundestagswahl2002/tv4.shtml> (2011.7.21)

## 5) 2002년 수상후보 양자 TV 토론

### (1) 개최 현황

#### ① 방송일정 및 사회자

2002년 제15회 연방의회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논란과 관심 속에 독일 역사상 최초로 양대 거대정당 수상후보의 양자 TV토론이 개최되었다. 2002년 1월 중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수상이 제1야당 기민/기사연합의 수상후보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 바이에른 연방주수상과 ZDF의 정치 토크쇼 ‘베를린 미테, Berlin Mitte’에 초청된 자리에서 두 차례의 양자 TV토론에 견해를 같이함으로써 이루진 결과였다.<sup>78)</sup> 1차 토론은 선거 4주 전인 8월 25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75분 동안 양대 민영방송사 RTL과 Sat.1의 공동주관 하에 동시에 생중계되었다. 1차 TV토론의 사회자는 RTL 편성국장 페터 클뤼펠 그리고 Sat.1 계열 뉴스전문방송 N24의 페터 림부르크(Peter Limbourg)가 맡았다. 공영방송사가 주관한 2차 토론은 선거를 2주 앞둔 9월 8일 일요일에 제1공영방송 ARD의 자비네 크리스티안젠(Sabine Christiansen)과 제2공영방송 메이브리트 일너(Maybrit Illner) 두 여성 앵커가 진행했다. 2차 토론의 방송시간은 1차 토론과 동일했다. 이로써 두 차례의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방송시간대(Prime Time)에 생중계되었다. 방송은 청중 없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토론의 진행에 대한 청중의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Breuer, 2006: 224).

#### ② 토론규칙

TV토론의 일정, 사회자 그리고 진행방식 등 기본원칙은 4월 25일에 각 정당과 공·민영방송 4사의 관계자들이 베를린에 있는 사계절(Four Seasons)호텔에서 4시간이 넘는 협상 끝에 결정되었다(Breuer, 2006: 65). 이후 여러 차례의 협상 끝에 1차 TV토론 3일 전인 8월 22일에는 두 정당과 민영방송 RTL과 Sat.1 관계자들이 베를린의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서면 공증절차를 밟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Breuer, 213-214).

- 슈뢰더 후보가 첫 질문을 받고, 마지막 질문은 슈토이버 후보에게 주어진다.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은 90초이며, 추가질문은 두 개까지 가능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60초 안에 이루어야 한다. 발언시간 종료 15초 전에는 연설대와 후보자 정면에 있는 카메라 옆에 각각 하나 씩 설치된 오렌지색 램프가 깜박이기 시

---

78) 위의 출처

작하며,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램프는 계속 들어온 상태로 전환된다.

- 두 명의 요원이 각각 한 명씩 슈뢰더와 슈토이버의 발언시간 초과여부를 측정한다. 발언시간을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남은 시간은 소멸된다.
- 상대후보자의 발언을 중단 시킬 경우에 중단시킨 후보자의 발언시간에서 5초가 초과된 것으로 간주하며, 발언을 중단시킨 후보의 초과시간이 측정 되는 순간, 발언이 중단된 후보자의 발언시간 측정은 멈춘다.
- 누적된 초과시간은 4회까지 막대그래프로 표시되어 텔레비전 화면에 나타난다. 알림표시는 방송 시작 후 25분이 경과된 이후부터 사용될 수 있다. 방송종료 25분 전에 사회자들은 각 후보의 초과시간을 알려줄 수 있다.
- 두 후보자의 발언시간초과는 방송이 끝나갈 무렵 1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 방송 종료 후 두 후보자는 익일 아침까지 TV토론에 관련된 어떠한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는다. 두 후보자는 스튜디오 안팎에서 TV토론에 관한 기자들의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는다.
- 방송 종료 후 두 후보자는 인사를 나누며, 악수는 자유의사에 맡긴다.

또한 연설대는 후보자의 다리가 보이지 않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연설대에는 여러 장의 백지와 연필 한 자루만 놓였으며, 자료는 사용할 수 없었다. 두 후보자 간의 거리는 2미터 였으며, 후보자들의 정면에서 6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두 사회자는 서있는 후보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높게 설치된 책상에 앉아서 토론을 진행했다(Breuer, 2006: 82). 각 정당의 요구에 따라 방송에 투입된 8대의 카메라 중 4대의 메인카메라는 각각 1대씩 후보자와 사회자가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고정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4대의 카메라는 두 후보자와 사회자를 대각선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다(조성대, 2002: 18). 후보자들의 뒷모습은 촬영이 금지되었다.<sup>79)</sup> 슈뢰더는 슈토이버보다 키가 12센티미터 작았지만 키높이 받침대는 사용되지 않았다.<sup>80)</sup>

후보자 기조연설은 없었으며, 마무리 연설에는 90초씩이 주어졌다.<sup>81)</sup> 1차와 2차 TV토론모두 방송 중간에는 상업광고를 삽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시작 전후 시간대의 광고료가 30초당 48,240유로(EUR)였다는 점에서 주관방송사들이 TV토론 방송의 최대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sup>82)</sup> 두 차례의 TV토론 제작경비 60

79) [http://www.focus.de/kultur/medien/fernsehen-staatsakt-tv-duell\\_aid\\_204188.html](http://www.focus.de/kultur/medien/fernsehen-staatsakt-tv-duell_aid_204188.html)

80)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22151011.html>

81) <http://www.faz.net/aktuell/politik/tv-duell-notar-ueberwacht-tv-duell-173725.html>

만 유로는 주관방송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했다.<sup>83)</sup> 토론의 전 과정은 발언시간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한 명의 공증변호사가 감독했다.<sup>84)</sup>

### ③ 주제

1차 토론의 주제는 토론방송 일주일 전에 독일 동부지역을 엄습한 엘베(Elbe)강 홍수피해와 환경문제, 실업률과 경제정책, 외국인유입과 통합정책, 외교정책과 테러, 정부연정, 여성의 정치적 역할의 순으로 다루어졌으며(Breuer, 2006: 84), 2차 토론에서는 1차 토론에 대한 자기평가, 실업률과 경제정책, 정부연정, 외교정책 및 테러, 내각구성, 교육정책, 가족 및 사회정책의 순으로 주제가 다루어졌다(Breuer, 97).

### ④ 진행방식

독일에서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의 선례가 없었던 1차 토론은 사전에 합의된 규칙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민영방송사의 두 사회자들 또한 질문의 분배 및 발언 순서에 있어서 철저하게 미리 준비된 대본에 의해서 토론방송을 진행했다. 2차 TV토론에서는 1차 TV토론의 엄격한 규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시청자들과 슈퍼더 수상 측의 요구로 후보자 상호간의 직접적인 질문과 반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발언시간이 경과되어도 사회자들의 개입이 1차 TV토론의 경우처럼 엄격하지는 않았다.

### ⑤ 시청률

민영방송사 RTL와 Sat.1가 방영한 1차 TV토론 방송은 151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어 44.8%의 시청률을 보였으며, 공영방송사 ARD와 ZDF가 방영한 2차 TV토론 방송은 1530만 명이 시청하여 44.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Mauer;Reimann, 2003). 또한 제1공영방송 ARD에서는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이외에 선거 5일을 앞둔 9월 17일에 연방의회를 대표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 및 최고위원들을 초청하여 오후 9시 5분부터 10시 35분까지 합동토론회를 생중계로 방영했다.

## (2) 수상토론위원회 공식평가

2차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이 끝나고 약 2주 후인 2002년 9월 19일, 수상토론위원회는 독일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었던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에 대한 공식 평가를

82)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208543,00.html>

83)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208543,00.html>

84) <http://www.faz.net/aktuell/politik/tv-duell-notar-ueberwacht-tv-duell-173725.html>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평가서의 주요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한다.<sup>85)</sup>

- “수상직을 둘러싸고 가장 유력한 두 후보자들의 양자 TV토론은 1976년부터 미국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에 고정요소가 된 형식을 본받은 것이다. (독일에 도입된)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형식은 이 곳(독일)의 정당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대통령제, 다른 미디어 역사의 맥락(상업 TV의 우세) 그리고 공론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른 이해에서 유래한 것이다. (...) 이로써 헌법상의 현실과 미디어의 현실 사이의 차이가 분명해 진다.
-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이) 외국에서 도입된 형식이고, 더욱이 선거운동의 긴장감이 도는 시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두 차례의 양자 TV토론을 (독일로) 이식(移植)하고 조직하는데 상당한 시행착오가 초래되었다. 특히 RTL과 Sat.1의 1차 토론에서는 토론형식의 구축에 있어서 저널리즘의 자율성 상실이 역력했다. 방송사 관계자들이 토론의 주변여건과 같은 규칙을 대체로 후보자들의 미디어 자문가와 ‘스핀닥터’ 그리고 정당의 원내총무에게 규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양자 TV토론의 형식은 의심의 여지없이 정치에 대한 폭 넓은 관심, 정치적 행위를 통한 형식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수상직을 위한 후보자들의 수사학적 능력, 인상 그리고 공신력을 둘러싼 ‘평가게임’을 발전시킨다.
- 방송사와 (정당의) 선거운동본부는 마치 양자 TV토론회가 자신들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행동한다. (...) 토론회의 기준은 정치적 의지형성의 필연성과는 거리가 있으며, 질문은 대개 이미 신문에서 다루어진, 선거운동에서 매일 다루어진 주제영역에서 이루어졌다.
- 양자 TV토론에 있어서는 (토론의) 내용적인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질 위험이 있다.
- 다음 기회에도 새롭게 양자 TV토론이 개최된다면 인물화된 찬반논쟁의 형식이 확산될 것인가? 베스터벨레의 경우에서 나타났던 토론형식에 대한 독일 정당 및 연정민주주의의 불신은 지속될 것이며, 재임수상이 도전자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기회를 새롭게 열려줄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2차 토론을 시작하면서 에드문트 슈토이버는 (양자 TV토론의) 형식이 머지 않아 독일에서도 정착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만약 그렇다면 토론회의 규칙과 운영을 (정당의) 선거운동본부와 방송사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토론위원회를 본받아 독립된 ‘수상토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85) 번역은 우리말에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의역 위주로 이루어 졌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괄호 안에 알맞은 표현을 삽입했다. 따라서 원문의 ‘TV-Duell’(TV결투)는 여기서는 모두 ‘양자 TV토론’으로 번역되었다.

- 또한 미국의 대선 TV토론처럼 논쟁의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적 형식(예컨대 청중이 참여하는 시민포럼형(Townhall) 토론)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sup>86)</sup>

## 6) 2005년 수상후보 양자 TV 토론

### (1) 개최 현황

2002년과 마찬가지로 2005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은 연방의회선거 2주 전으로 결정되었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수상과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수상후보의 양자 TV토론은 단 한 차례 이루어졌다. 독일의 전통상 재임수상이 양자 TV토론의 제안을 받는 것과는 달리, 2005년에는 2002년 슈토이버와의 양자 TV토론에서 승리한 슈뢰더 수상이 메르켈 후보에게 두 차례의 TV토론을 제안했다. 메르켈 후보는 공식적으로는 일정상의 이유로 두 차례의 TV토론에 난색을 표명했고, 따라서 2005년에는 공·민영방송 4사(ARD, ZDF, RTL, Sat.1)의 공동주관 하에 단 한 차례의 수상후보 TV토론이 각 방송사의 채널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 되었던 것이다.

#### ① 방송일정, 사회자, 주제

토론방송은 2005년 9월 4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되었으며, 2002년에 비해 15분 연장되어 90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토론의 진행도 공·민영방송 4사의 사회자들이 공동으로 맡았다. 공영방송사의 사회자는 2002년과 마찬가지로 자비네 크리스티안젠(ARD)과 메이브리트 일너(ZDF)였으며, 민영방송사 RTL과 Sat.1는 페터 클뤼펠과 토마스 카우쉬(Thomas Kausch)가 대표했다. 2005년에는 연금, 보건, 가족, 교육, 외교, 환경, 경제, 조세 그리고 노동정책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졌다.<sup>87)</sup>

#### ② 토론 진행

앙겔라 메르켈(기민/기사연합)은 TV토론이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과 여론의 눈총을 받으며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는데, 그것은 메르켈 후보가 슈뢰더 수상과의 두 차례 TV토론을 일정상의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질문 당 60초의 답변시간이 주어졌지만, 발언시간초과를 알리는 램프는 설치되지 않았다. 그 대신 15분마다 총 발언시간이 측정되었다.<sup>88)</sup> 즉, 2002년의 엄격한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으며,

86) <http://medienpolitik.eu/cms/index.php?idcatside=233>

87) [http://www.rhetorik.ch/Aktuell/05/09\\_04.html](http://www.rhetorik.ch/Aktuell/05/09_04.html)

88) 위의 출처.



직접토론도 허용되었다. 따라서 두 후보들은 사회자의 질문에 답변만을 하지 않고 직접토론을 하거나, 상대방의 발언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다. 엄격하게 지켜진 규칙은 슈뢰더 수상이 첫 번째 답변자이며, 메르켈 후보에게 마지막 질문이 주어진다 는 것이었다. 슈뢰더 수상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문과 대답의 형식에서 벗어나 메르켈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 ③ 시청자

2005년에는 2100만의 시청자가 슈뢰더와 메르켈의 양자 TV토론을 시청하여, 이 토론방송은 59.6%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시청률은 독일국가대표팀의 축구경기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컨대 2006년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 독일 개막경기의 시청자 수는 2130만 명이었다. 실제로 슈뢰더와 메르켈의 양자 TV토론 은 2005년 독일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방송이었다.<sup>89)</sup>

## (2) 수상토론위원회 공식평가

2005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에 대한 수상토론위원회 공식 평가발표는 9월 4일 에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2005년 9월 4일 개최된 게르하르트 슈뢰더 수상과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수 상후보의 텔레비전결투는 선거운동에서 결정적인, 아마도 선거를 결정짓는 TV쇼 (Show)였다고 할 수 있다.
- 양자 TV토론에서 슈뢰더의 승리는 자기충족적예언(selbst erfüllende Prophezeiung/ self fulfilling prophecy)이었던가? 슈뢰더는 TV토론 시작 전에 실시 된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달렸으며, 따라서 ‘미디어 수상’(슈뢰더)이 토론에서 승리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결국 슈뢰더는 방송 시작 45분 만에 승리한 것으 로 간주되었고, 그의 개인적 가치는 방송 후에 상승했다.
- 앙겔라 메르켈은 게르하르트 슈뢰더와의 두 차례 토론을 거부했었다. 메르켈과 그녀의 자문인은 ‘이른바 미디어수상’ 슈뢰더가 도전자와의 맞대결 상황에 오래 놓 이면 놓일수록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에서 그의 수사학적 능력과 자기표출 능력을 더욱 강하게 나타낼 것으로 생각했다. 심지어 메르켈은 슈뢰더와의 양자 TV토론을 아예 모두 거절할 생각까지도 했었다.
- (주관방송 4사의 공동주관에) 방송사들이 처음부터 흡족해 했던 것은 아니다. 주 관방송 4사의 동시 생중계를 놓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마치 북한의 상황과 같다’

89) [http://www.focus.de/finanzen/news/top-sendungen-2005\\_aid\\_16423.html](http://www.focus.de/finanzen/news/top-sendungen-2005_aid_16423.html)

혹은 ‘브레즈네프(Breschnew) TV’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공영이든, 민영이든 주관 방송사 관계자들은 이러한 조건에서 양자 TV토론을 포기할 용기도 없었다.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TV토론의 전통적인 형태에 국한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 4명의 사회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인기영합주의식으로 행동하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4명이라는 과도한 사회자의 수로 인해서 토론회 진행이 성급했고 자연스럽게 못했다.
- 특히 텔레비전방송사에게 양자 TV토론은 빅이벤트였다. 2100만명의 시청자(시청률 약 60%)는 헨리 마스케(Henry Maske: 독일 유명 권투선수)의 은퇴경기의 시청자를 능가하는 것이었다.<sup>90)</sup>

## 7) 2009년 수상후보 양자 TV 토론 91)

### (1) 들어가기

2009년에는 기민/기사연합의 앙겔라 메르켈과 사민당의 프란츠 발터 슈타인마이어의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이 연방의회선거 2주 전인 9월 13일 일요일에 개최되었다. 무엇보다 2009년에는 2002년 및 2005년과 비교할 때 두 후보자가 모두 여당에 속해 있음으로써, 여당과 야당의 뚜렷한 역할분배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구조적인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슈타인마이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첫 째, 사민당의 수상후보로서 슈타인마이어는 기민/기사연합의 메르켈과 맞대결을 벌여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직 외무장관으로서 그는 지난 4년 동안 메르켈 수상과 연방정부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상대 후보자로서의 메르켈 수상과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모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둘째, 슈타인마이어의 격렬한 비판이 이루어질 경우, 현직 외무장관 및 차기 연방수상으로서의 자신의 공신력도 위협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었다. 즉, 슈타인마이어는 선거방송토론이라는 특정의 상황에서 현 정부의 외무장관과 현 정부의 수뇌에 맞서야 하는 상대 후보자로서 역할충돌(role conflict)에 봉착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된 인지적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 속에서 슈타인마이어가 선택할 수 있는 토론전략은 차기 연방수상으로서의 자신과 메르켈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2009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에 있어서는 이미 시작 전부터 두 후보자간의 팽팽한 맞대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다. 반면에

90) <http://medienpolitik.eu/cms/index.php?idcatside=91>

91) 영상자료:<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567412.html>

이미 메르켈 수상은 차기 입법회기에서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파기하고, 자민당과 연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상태였다.

## (2) 개최 현황

### ① 주관방송사

2005년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도 제1공영방송 ARD와 제2공영방송 ZDF 그리고 양대 민영방송 RTL과 Sat.1가 공동으로 단 한 차례의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을 주관했다. 메르켈 수상이 두 차례의 TV토론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 ② 방송장소 및 방송일정

방송은 2002년과 2005년과 마찬가지로 베를린의 아들러스호프(Adlershof) 미디어 단지 B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으며, 인접한 다른 동 스튜디오에는 약 300여명의 기자를 수용할 수 있는 프레스센터가 준비되었다. 이곳에서 기자들은 TV토론을 관람할 수 있었다. 방송일정은 시청률이 가장 좋은 일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90분간 주관방송 4사의 각 채널을 통해 동시에 생중계 되었다. 방송 도중 상업광고는 없었다.

### ③ 사회자

2009년에도 TV토론은 주관 공·민영방송 4사(ARD, ZDF, RTL, Sat.1)의 사회자들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각 방송사의 사회자는 아래와 같다.

- 제1 공영방송 ARD: 페터 림부르크(Peter Limbourg) (남성)
- 제2 공영방송 ZDF: 메이브리트 일너(Maybritt Illner) (여성)
- 민영방송 RTL: 페터 클뤼펠(Peter Klöppel) (남성)
- 민영방송 Sat.1: 프랑크 플라스베르크(Frank Plasberg) (남성)

사회자는 방송의 진행자겸 질문패널의 역할을 맡았다. ZDF와 RTL의 사회자가 차례대로 시작멘트를 나누어서 한 후에 ARD와 Sat.1의 사회자 그리고 ZDF와 RTL의 사회자가 각각 한 조가 되어 주제별로 교대로 질문했다.

### ④ 진행 규칙

앞에서도 보았지만 토론회의 규칙은 2002년부터 각 정당과 주관방송 4사의 준비협상을 통해서 정해졌으며, 2009년에 합의된 주요 규칙은 아래와 같다.<sup>92)</sup>

92)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wahlen-2009/bundestagswahl/tv-duell>

- 발언순서: 첫 질문은 슈타인마이어 후보, 마지막 질문은 메르켈 수상에게 주어지며, 마무리 연설도 동일한 순서에 의한다.
- 답변시간: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90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이 종료될 무렵 두 후보자의 발언시간의 차이가 1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주제: 주제는 핵심어(keyword) 형태로 후보자들에게 전달되며, 질문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 보조수단: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연단 위에는 백지와 필기도구만 놓는다.

### ⑤ 발언 시간

2009년에는 초과발언시간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사회자가 누적발언시간을 방송 90분 동안 4회에 걸쳐 후보자들에게 발표했으며, 이와 동시에 TV화면에 막대그래프로 표시되었다. 첫 번째 누적 발언시간 발표는 방송 시작 후 34분 28초에 있었다. 메르켈 수상은 32분 36초, 슈타인마이어 후보는 32분 26초 (마무리 연설 제외) 발언했다(〈그림 4〉 참조).



〈그림 4〉 2009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누적발언시간 총계

\*출처: 연구자에 의한 ARD 영상자료 캡처<sup>93)</sup>

### ⑥ 스튜디오 세트

스튜디오 배경은 2002년부터 청색으로 채색되며 두 수상후보자 뒷면에 독일연방 공화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와 방송제목이 장착된다. 후보자와 사회자는 원 안에서 마주보는 형식으로 각각 연단 뒤에 섰다(〈그림 5〉 참조).

-steinmeier-fordert-merkel\_aid\_435419.html

93)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567412.html>



〈그림 5〉 2009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스튜디오 세트

\*출처: 연구자에 의한 ARD 영상자료 캡처<sup>94)</sup>

### (3) 진행순서에 의한 주제별 주요 내용

#### • 시작멘트 (사회자 ZDF, RTL)

사회자는 연방의회선거가 14일 후에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다.

#### • 시작질문 (Sat.1) ⇨ 슈타인마이어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선거 이후 더 이상 연방수상이 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설명하라고 질문한다. 이에 슈타인마이어는 자신이 더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메르켈 수상이 수상후보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메르켈 수상과 자신의 차이점을 토론회에서 부각시키겠다고 말한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난 4년 동안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이루어낸 업적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민당이 법적 최저임금제 도입과 고임금 경영자 임금제한 등 사민당의 정책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슈타인마이어는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자력은 반드시 포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 질문 (ARD) ⇨ 메르켈

왜 슈타인마이어가 수상으로서 메르켈 자신보다 못한 지 말해달라고 한다. 메르켈 수상은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다. 그대신 사민당과의 대연정이 이루어낸 업적을 강조한다. 2005년 수상직에 올랐을 때 독일실업자는 5백만이었는데, 2008년 말에는 3백만 이하로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사회자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메르켈 수상의 답변은 ‘두엘’(맞대결)이 아니라 ‘두엣’(이중창)같다고 지적하며 슈타인마이어가 왜 메

94) 위의 출처.

르켈 자신보다 수상 자격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답변해달라고 말한다. 메르켈 수상은 다시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한다.

“나는 질문에 내가 계획했던 그대로 답변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무엇이 ‘두엘’(맞대결)이고 무엇이 ‘두엣’(이중창)인지는 시청자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지요. 간단히 말해서, 대연정은 임무를 잘 수행했고, 우리가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로 더 많은 일자리를 위한 결정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독일정부는 기민/기사연합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Ich beantworte die Fragen so wie ich mir vorgenommen habe, und ich glaube, die Definition, was ein Duell und ein Duett ist, ueberlassen wir mal Zuschauerinn und Zuschauer draussen. Ich sage ganz einfach, grosse Koalition hat gute Arbeit gemacht und jetzt brauchen wir in schwersten Krise seit den 30er Jahren wirklich eine entscheidende Politik fuer mehr Arbeit und da braucht mehr Union in der Bundesregierung ”

• 질문 (ZDF) ⇨ 메르켈

사회자는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이유는 묻는다. 메르켈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양대 거대정당이 대연정 정부를 이루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은 오늘 대연정을 위해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기민당과 기사당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한다. 사회자는 추가질문을 통해서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대연정 정부를 원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메르켈은 방송이 끝날 무렵 다시 질문해 달라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다.

• 질문 (RTL) ⇨ 슈타인마이어

사회자는 슈타인마이어에게 4년 동안 메르켈과 내각을 운영해 온 지금, 메르켈 수상과 친근형(親近形, Duzen)으로 호칭하느냐고 묻는다. 슈타인마이어는 친근형으로 서로를 호칭하지 않아도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짧게 말하고, 실업률감소에 대한 메르켈의 발언에 현 정부에서 실업률감소가 이루어진 것은 2005년까지 사민당과 녹색당의 공적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 때 슈타인마이어는 처음으로 메르켈에게 직접 말을 했다. 사회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한다. 첫 번째 주제는 경제위기이다.

주제1: 경제위기

• 질문 (RTL) ⇨ 슈타인마이어

독일에서 대연정은 항상 경제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구성되었는데, 현재 경제위기의 시대에 대연정을 이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 슈타인마이어는 사회자가 선거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연정은 구성된 것이 아니며,

선거결과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이 대연정을 목표로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최저임금과 최고경영인 급료제한 등 지난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정책은 기민당이 사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질문 (ARD) ⇨ 메르켈

사회자는 독일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무엇이나고 묻는다. 메르켈은 독일의 사회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국가가 시장경제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메르켈은 이 점이 세계화 경향에서 국제적으로 소홀히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세계사회는 국제금융시장을 위한 규칙을 필요로 하며, 독일의 수출도 사회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강조한다.

• 질문 (Sat.1) ⇨ 슈타인마이어

사회자는 슈타인마이어에게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질문을 한다. 메르켈에 대한 슈타인마이어의 두 번째 직접 발언이 시작된다. 메르켈에게 독일은 사회시장경제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독일이 경제위기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은 수 년 안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으며, 사실상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경제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한다. 또한 경제의 성공이 단기적인 수익에 있다는 생각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며, 잘못된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슈타인마이어는 다시 메르켈 수상에게 독일이 세계시장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며, 국내에서 필요한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최고경영인들의 임금, 보너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 질문 (ARD) ⇨ 메르켈

이어서 사회자는 메르켈 수상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메르켈은 사회시장경제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다시 강조하면서, 사회시장경제는 근본주의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자본과 노동의 타협이라고 말한다. 또한 1960년대 루드비히 에르하르트(Ludwig Erhard)의 사회시장경제 정책의 성공을 보기로 들면서, 현재 연금에 관한 모든 법규들이 기민당이 정부를 이끌던 시대에 재정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사회시장경제의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슈타인마이어의 발언을 부정한다. 이 부분에서 메르켈은 처음으로 슈타인마이어에게 직접 발언했다.

## 주제2: 사회정의

이 주제에서 사회자는 토론회가 있었던 2009년 9월 독일에서의 사회정의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52%가 독일에 사회정의를 부족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하면서, 사회정의에 있어서 독일에 몇 점을 주겠냐고 묻는다. 메르켈 수상은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냄으로써 사회정의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사회자의 동일한 질문에 슈타인마이어는 2008년 9월에 독일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다. 첫 째는 어느 마트의 계산대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이 1유로 50센트에 해당되는 빈병 환불증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즉각 해고된 사건 그리고 같은 달에 최고경영인이 세금혜택을 받고 퇴직금을 받은 사건을 예로 든다.

## 주제3: 최저임금

이 주제에 있어서 메르켈 수상은 법적으로 독일 전 지역에 통일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임금협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당한 기본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한다.

슈타인마이어는 법적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면 직장을 잃게 될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 주제4: 오펠(Opel) 위기

이 주제에서는 캐나다의 자동차부품업체 ‘마그나’(Magna) 컨소시엄이 오펠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40억유로 이상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사회자의 질문은 독일인들이 내는 세금의 목적이 오펠을 살리기 위한 것이냐는 점이었다.

메르켈과 슈타인마이어는 오펠(Opel)사를 연방정부가 도산위기에서 살려냄으로써 독일에 위치한 공장 4개소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정부가 오펠의 도산을 받아들였다면 더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라는 공통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 주제5: 원자력

메르켈은 원자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가 마련될 때까지 원자력을 “과도기적 성격의 기술”(Brückentechnologie)로 잠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슈타인마이어는 원자력을 유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며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메르켈 수상에게 원자력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대체에너지 개발이 한창인 이 시점에서 원자력을 유지하는 정책은 대체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단절시키게 될 것이고, 새로 창출될



일자리도 모두 잃게 된다는 것이다.<sup>95)</sup>

## 제6: 고임금 경영자

이 주제에서 메르켈과 슈타인마이어는 침예하게 대립되었다. 기업회장의 연봉이 일반근로자의 20배라는 것이 정상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메르켈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능력과 소득이 정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자의 임금에 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컨대 주주총회에서도 협상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반면 슈타인마이어는 고임금 경영자들의 임금상한선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주제7: 경제

RTL 사회자는 2009년을 포함하여 지난 10년 동안의 독일 경제가 평균 0.8% 성장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적어도 2-3%는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메르켈 수상에게 가능한 일이나고 묻는다. 메르켈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5% 일 때 일자리 수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더 많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성장은 조세감면정책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며, 또한 2005년 41.9%였던 임금부대비용을 40%로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인과 피고용인에게 160억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점도 부각 시켰다. 또한 불법노동을 근절하는 것도 경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제8: 의료보험

이 주제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민영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는 공적의료보험 환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즉 공공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보다 진료대기 시간이 세 배 정도 더 긴 차별대우를 받으며, 진료 수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다. 메르켈은 2006년 대연정이 합의한 의료보험 개혁안 중 의료기금(Gesundheitsfonds)<sup>96)</sup>을 통해서 의료보험사간의 경쟁을 높여서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고 답변한다. 예컨대 가입자들이 의료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고,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보기로 들었다.

95) 메르켈 정부는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96) 독일에서는 의료보험료를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의료보험기관에서 결정했었다. 의료보험개혁에 따르면 의료기금에서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서 250여개의 공적 의료보험기관에 분배하게 되었다.

슈타인마이어에게는 연방보건부장관 올라 슈미트(Ulla Schmidt)가 스페인에서 관용차를 도난당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sup>97)</sup> 최고급을 추구하는 장관이 차별대우를 받는 공공의료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다. 슈타인마이어는 토론주제가 정치와 8년 간 성실하게 보건부장관직을 수행한 한 여성 중 무엇이냐며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았다.

### 주제9: 아프카니스탄 파병

이 주제에서 질문의 핵심은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독일연방군(Bundeswehr) 철수 연도였다. RTL 사회자가 외무장관인 슈타인마이어에게 질문한다.

“후보께서는 며칠 전 독일연방군의 구체적인 철수일정을 밝히는 것은 탈레반에게 유리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문에서 외무부에서 철수는 2013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공신력에 의심을 가게 하는 부분입니다. (...) 이것이 선거운동의 전략입니까?” “Vor wenigen Tagen haben Sie noch gesagt, wer einen konkreten Abzugstermin der deutschen Bundeswehr-Soldaten nennt, spielt den Taliban in die Hände. Jetzt lesen wir in der Zeitung, dass man im Aussenministerium auf einen Abzug im Jahre 2013 abzielt. (...) Ist das ein Wahlkampf-Gag?”

슈타인 마이어는 독일연방군이 2013년에 아프카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가 시작될 수 있도록 2013년까지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답변한다. 슈타인마이어는 아프카니스탄에 주둔해 있는 다른 연합군들과 특히 아프카니스탄의 여성, 아이들, 농부들을 위해서 독일연방군이 냉철하게 하루아침에 철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ZDF 사회자는 메르켈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메르켈은 아프카니스탄의 과도기 정부가 자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군사와 경찰이 양성되어야 하고, 프랑스 및 영국과 공조체제 하에 단계적으로 아프카니스탄의 군사와 경찰 양성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한다. 독일연방군의 철수는 그 후에 아프카니스탄 정부 그리고 국가공동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할 문제라고 말한다.

ARD 사회자는 수상후보 토론회에서 상호보완적인 슈타인마이어와 메르켈의 답변을 지적한다. 그러자 슈타인마이어가 응수한다. “림부르크씨,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관여했던 일에 대해 우리(메르켈 수상과 슈타인마이어)가 완전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ARD사회자가 말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조화가 매우 잘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슈타인마이어와 메르켈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아 보인다면, 메르켈 수상에게 후적(기민/기사연합, 시민당)연정을 지속시켜도 되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이로써 주제는 차기 정부연정으로

97) 독일에서 스페인까지의 거리는 약 5000Km이다.

넘어간다.

## 주제10: 연정(聯政)

이 주제는 두 후보자에게는 특히 민감한 부분이었다. 메르켈 수상은 차기 입법회기에서는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하기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메르켈은 현재의 흑적연정을 더 이상 유지시키지 않고, 자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이 강력한 연정을 구성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 차기 입법회기에서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냄으로써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목적은 자민당과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민당보다는 자민당과 조세정책, 연구지원 정책 등 수많은 분야에서 견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메르켈은 독일이 미국, 중국 등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가가 독일에겐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재차 강조한다. 그리고 자민당과 연정을 하면 기민/기사당의 입장을 더 많이 관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민당과의 연정을 끝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한다. 슈타인마이어는 흑황연정은 성립되지 못할 것이며, 사민당은 야당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민주주의에서 대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메르켈은 사민당이 2013년에 좌파당과 연정을 할 수 있음을 밝힌 사실에서 사민당에 대한 믿음이 깨졌다고 말한다.

마무리 연설은 슈타인마이어가 먼저하고 메르켈이 마지막으로 했다. 마무리 연설에 두 후보자의 공약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줄이지 않고 그대로 번역해서 옮기자 한다.

### 마무리 연설: 슈타인마이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솔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한 가운데에 있고 아직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경제는 강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길을 가는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9월 27일에 하나의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결정은 정당들의 운명을 위한 선거가 아닙니다. 이 선거는 정치의 방향, 국가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결정입니다. 한 가지 방향은 흑황(Schwarz-Gelb, 기민/기사, 자민)의 방향입니다. 흑황은 위기의 원인에 속하는 사람들이 위기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

다. 흑황은 빈부의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흑황은 원자력으로서의 회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저는 의료보험에 상관없이 의료제도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자력 포기를 주장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이 결정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민주주의는 사회적 균형 없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으로 생각하며 이성과 책임이 경제로 돌아오는 그러한 정부를 이끌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의 일자리를 원합니다. 저는 원자력 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민당을 위한 여러분의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슈타인마이어의 마무리 연설에는 2분 20초가 소요되었다. 또한 그는 아홉 차례에 걸쳐 시선을 카메라에서 연설문이나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마무리 연설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 **마무리 연설: 메르켈**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지난 4년 동안 제게 보내주신 신뢰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는 위기를 잘 견디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단합이 해체보다 우선 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닥친 시간들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동 능력이 있는 국가가 필요하고 행동 능력이 있는 국가를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명확한 정치적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민당과 기사당의 강한 연합과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 부모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힘을 모아 모든 세대에 합당한 나라를 위한 미래를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교육과 연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육과 연구는 실제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 바로 우리나라의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일자리를 원합니다. 일자리를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믿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사회시장주의에서는 약자가 도움을 받도록 강자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시장주의에서는 노동과 환경이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박차를 더욱 가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위한 정치, 교육을 위한 정치, 환경을 위한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 일자리를 위한 정치, 이것을 저는 여러분께 약속

드리며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민/기사연합을 위한 여러분의 두 표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연방수상으로서의 저를 위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힘을 합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메르켈은 마무리 연설에 1분 46초를 사용했으며, 시종일관 카메라에서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연설을 했다. 따라서 마무리 연설에서 메르켈은 슈타인마이어보다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메르켈의 마무리 연설이 끝나고 ARD의 사회자의 종료 멘트가 이어졌다. 방송이 종료되자 두 후보자들은 악수를 나누고 이어서 사회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 (4) 여론조사 결과 및 언론평가

##### ① 여론조사 결과

제1공영방송 ARD는 메르켈 수상과 슈타인마이어 부수상과의 양자 TV토론이 끝남과 동시에 베를린의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디프맵(Infratest-dimap)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조사는 선거권을 지닌 18세 이상의 시청자 1116명에 대한 무작위 표본추출로 2009년 9월 13일 오후 10시부터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2009 양자 TV토론 후 ARD 여론조사

조사내용	메르켈	슈타인마이어	
누가 더 설득력 있었는가?	42	43	
(결정못한 유권자) 누가 더 설득력 있었는가?	37	46	
(여성) 누가 더 설득력 있었는가?	45	42	
(남성) 누가 더 설득력 있었는가?	39	46	
(18-29세) 누가 더 설득력 있었는가?	39	50	
(30-44세) 누가 더 설득력 있었는가?	42	44	
(45-59세) 누가 더 설득력 있었는가?	39	47	
(60세 이상) 누가 더 설득력 있었는가?	46	39	
후보자들이 생각보다 잘했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나	잘했다	18	65
	못했다	39	15

\* 출처: 연구자 재구성<sup>98)</sup>

98) <http://www.infratest-dimap.de/bundestagswahl09/tv-duell/>

(〈표 4〉에서 계속)

TV토론이 나의 표심을 굳혔다	예	59
	아니오	40
TV토론이 나의 표심결정에 도움이 되었다	예	33
	아니오	67
TV토론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예	56
	아니오	44
TV토론은...	제대로 된 맞대결이었다	2
	사실적 토론이었다	96

\* 출처: 연구자 재구성<sup>99)</sup>

## ② 언론의 토론 평가

2009년 수상후보 TV토론은 이제까지 가장 혹독한 언론의 비판을 받은 선거방송 토론이었다. 토론형식의 측면에서 이러한 결과는 집권여당과 제1야당 수상후보가 맞대결을 벌인 2002년과 2005년의 경우와는 달리, 4년 이래 정부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서로 상대방을 거세게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연방수상과 부수상이 맞대결 상황에 놓이게 되는 토론 형식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두 후보자가 서로 맞대결을 벌이기보다는 서로의 차이점 혹은 자신의 입장만을 부각시키려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두 후보자, 특히 메르켈 수상은 마치 감정 없이 준비해 온 텍스트를 읽어 내려가는 듯한 인상을 남겼으며, 사회자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메르켈 수상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문은 슈타인마이어가 메르켈 자신보다 훌륭한 수상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답변하는 것이었다. “제 생각에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대연정이 저의 지도 아래에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라며 메르켈 수상은 자신의 임기 동안의 2백만 실업자 감소 등 대연정의 업적을 말하면서 사회자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그러자 사회자는 다시 동일한 질문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메르켈 수상이 “듀엘”(Duell, 맞대결) 보다는 “두엣”(Duell, 이중창)을 원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메르켈 수상은 그 정의는 시청자들에게 맡기자며 단언한다. 토론이 진행되는 90분 동안 메르켈 수상과 슈타인마이어 부수상이 서로 직접적인 논쟁을 벌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표명만을 하면서 상호 충돌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TV토론의 영상자료가 말해주듯이 2009년의 수상후보 TV토론은 두 후보자들과 4명의 사회자들의 맞대결이었다. 또한 사회자들의 인기영합주의적 질문은 선거방송토론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 한 가지를 인용해 본다.

99) <http://www.infratest-dimap.de/bundestagswahl09/tv-duell/>

페터 림부르크(ARD): “우리가 두 분을 보고 있으면, 사이좋은 노부부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Wenn wir Sie beide so sehen, dann haben wir den Eindruck von einem harmonischen alten Ehepaar.”

특히 독일 언론은 메르켈과 슈타인마이어의 양자 TV토론의 ‘지루함’을 한결같이 비판하거나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보도를 했다. 주요 신문 및 시사지 머리기사 제목을 몇 가지 인용해 본다.

- 일간지 쥐트 도이체 차이퉁, 2009년 9월 13일자  
 “맞대결이 이중창이 되다Das Duell gerät zum Duett”<sup>100)</sup>
- 일간지 빌트, 2009년 9월 14일자  
 “그래, 우리는 하품 한다! Yes, We gähnen!”<sup>101)</sup>  
 (독일식 표현 “예스 위 겐”: 오바마의 표현 “Yes, We can!”에서 유래).
- 시사지 포커스 온라인, 2009년 9월 13일자  
 “공포탄 결투Duell mit Schreckschusspistolen”<sup>102)</sup>
- 시사지 슈피겔 온라인, 2009년 9월 14일자  
 “90분 동안 우리90 Minuten Wir”<sup>103)</sup>

메르켈 수상과 슈타인마이어 부수상에 대한 실제적인 비판은 9월 27일 선거 6일 전인 9월 21일에 ARD와 ZDF에서 예정되어 있던 합동토론회의 초청을 두 사람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있었다. ARD와 ZDF는 내용적으로 지루했던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이후에 1970년대 80년대와 같은 TV합동토론회를 편성했던 것이다.<sup>104)</sup> 두 공영방송사는 메르켈과 슈타인마이어가 참석하지 않는 합동토론회는 의미가 없다며 이를 프로그램편성에서 제외했다. 이미 ZDF는 9월 10일에 녹색당, 자민당, 민사당 대표를 초청하여 오후 9시부터 삼자토론방송을 한 시간 동안 생중계 했으며, ARD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다음 날인 9월 14일에 오후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75분 간 자민당, 좌파연합당, 녹색당 대표를 초청하여 삼자토론회를 방영한 상태였다(<표 5 참조>). 2009년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4명의 사회자와 2명의 수상후보라는 토론형식에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게 되었다.

100) <http://www.sueddeutsche.de/politik/tv-duell-merkel-vs-steinmeier-das-duell-geraet-zum-duett-1.48062>

101) <http://www.bild.de/politik/2009/unentschieden/torloses-unentschieden-zwischen-merkel-und-steinmeier-9734056.bild.html>

102)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wahlen-2009/bundestagswahl/steinmeier-merkel-duell-mit-schreckschusspistolen\\_aid\\_435444.html](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wahlen-2009/bundestagswahl/steinmeier-merkel-duell-mit-schreckschusspistolen_aid_435444.html)

103)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48724,00.html>

104) [http://www.focus.de/panorama/vermishtes/fernsehrunde-merkel-und-steinmeier-sagen-ab\\_aid\\_436560.html](http://www.focus.de/panorama/vermishtes/fernsehrunde-merkel-und-steinmeier-sagen-ab_aid_436560.html)

2009년 9월 14일자 주간 시사지 포커스(Focus)는 “누구도 이런 TV방송의 형식으로는 행복하지 않다(Keiner ist glücklich mit dem Format)”라는 기사에서 2005년과 2009년과 같은 TV토론 형식을 2012년에도 채택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sup>105)</sup> 제2 공영방송사 ZDF 편집국장 니콜라우스 브렌더(Nikolaus Brender)는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참여하는 합동토론회를 선호하며, 수상토론위원회 위원인 루츠 하흐마이스터(Lutz Hachmeister)는 양자 TV토론의 형식을 유지하려면 민영방송사가 양자 TV토론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06)</sup> 제1공영방송사 ARD 편집국장 토마스 바우만(Thomas Baumann)도 ZDF와 양자 TV토론을 개최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처럼 공·민영방송 4사가 계속해서 수상후보 TV토론을 주관한다면, 수상후보자 중 한 명이 두 차례의 TV토론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또다시 2009년과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녹색당 위르겐 트리틴(Jürgen Trittin) 대표는 정부연정에 있어서 소수 정당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의 형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9년 9월 11일 주간 시사지 ‘포커스’(Focus)에 따르면 베스터벨레는 토론방송 이틀 전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양자 TV토론이 이런 식으로 개최될 수는 없으며, 모든 정당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과 기회균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입니다”<sup>107)</sup>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2002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이 시작된 이래 토론의 형식에 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2009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TV토론 주관방송사들이 내년 제18회 연방의회 선거운동기간에도 4명의 사회자와 2명의 후보자로 이루어지는 토론 형식을 다시 선택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 더욱이 두 차례의 TV토론에 관심이 없는 메르켈 수상이 내년도 사민당의 도전자에게 도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5) 수상토론위원회 공식평가

2009년 9월 25일 수상토론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 공식평가서를 발표했다. 2009년의 공식평가는 대부분 토론형식과 사회자들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다시 1970-80년대의 엘레판텐룬데의 진행방식, 즉 개인자료 사용을 허락하고, 경직된 형식에서 벗어나 다시 ‘인간다운’ 모습으로

105) [http://www.focus.de/finanzen/news/medien-analyse-keiner-ist-gluecklich-mit-dem-tv-format\\_aid\\_43543.html](http://www.focus.de/finanzen/news/medien-analyse-keiner-ist-gluecklich-mit-dem-tv-format_aid_43543.html)

106) 위의 출처

107)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wahlen-2009/bundestagswahl/guido-westerwelle-fdp-chef-will-tv-duell-stoppen\\_aid\\_434680.html](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wahlen-2009/bundestagswahl/guido-westerwelle-fdp-chef-will-tv-duell-stoppen_aid_434680.html)



생기가 넘치는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진행방식에 대한 언급이다. 주요 내용을 국역하여 소개한다.

- “양자 TV토론의 형식은 야당으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녹색당 최고위원 클라우디아 로트(Claudia Roth)는 정치인들의 ‘기타치는 척하기 대회’라는 은유를 사용했다. 자민당 대표 베스트벨레와 녹색당 대표후보 위르겐 트리틴은 주관방송사에 양자 TV토론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비판은 수상과 슈타인마이어가 야당의 지도적인 정치인들도 참여하여하는 합동토론회를 거부함으로써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비판은 기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메르켈과 슈타인마이어의 대결회피전략’은 ‘기가 막힌다’ (...).
- 전체적으로 4명의 사회와 함께 정치를 했던 두 명의 토론자 형식이 지니는 문제점은 명확하게 드러났다. 사회자들은 서로 두드러지려고 했으며 아무런 의미도 없는 농담과 예의 없이 말을 가로채기 경쟁을 했으며, 예컨대 기술과 연구정책, 교육, 기후변화 등 정치현안의 주제들을 거의 완전히 혹은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특히 아프카니스탄 독일 파병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다.
- 2009년 사회자는 전형적인 정치기자 출신이 아니며, 각 방송사에서 잘 알려진 ‘간판얼굴’ 혹은 전략적인 이유로 선임된 것이다. (...) 예컨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사회자들을 ‘싸움에 굶주리고, 악의적이고 건방지다’고 깎아내렸으며, 마치 정치인들과 기자들의 결투가 된 것 같다고 보도했다. ‘내 발언에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라는 슈타인마이어의 말은 이 날의 명언이며 재사용이 권장된다.
- (...)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아니다, 나쁘지 않았다. 적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지도 않았다. 앙겔라 메르켈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는 그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행동했다. 왜냐하면 카메라 앞에서는 배우와 사회는 철저히 변하지만, 정치인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 아마도 그리고 희망컨대 이것인 이런 식의 마지막 양자 TV토론이었기를 바란다. (...) 4명의 서로 이득을 얻으려고 다투는 사회자들이 두 명의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것은 잘난 척 하는 것밖에는 아니며 기자들이 서비스로 하는 역할에는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 수다스러움이 토론을 망쳤다.
- 다음 TV토론을 위한 제언을 한다. 후보자들은 다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된 인용에 대해 가차 없이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지녀야 한다. 후보자들은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가능성을 되찾아야 한다.
- 양자 TV토론이 모든 면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형태로 지속되어야 한다면, 방송사와 정당간의 협상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기관이 진행

시키도록 할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권장한다.“<sup>108)</sup>

## 8) 소수 정당대표 3인 TV토론<sup>109)</sup>

소수 정당인 자민당, 동맹90/녹색당 그리고 좌파연합을 위해서는 제1 공영방송과 제2공영방송에서 각각 한 차례 씩 두 차례의 TV토론이 개최되었다. 1차 토론은 메르켈과 슈타인마이어의 양자 TV토론 3일 전인 9월 10일 목요일에 제2 공영방송 ZDF가 단독으로 주관했으며, 자민당의 베스트벨레 대표, 녹색당 교섭단체 대표인 레나테 쿨나스트(Renate Künast) 그리고 좌파연합교섭단체 대표 그레고르 기지(Gregor Gysi)가 초청되었다. 이 방송은 오후 9시부터 75분 동안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의 ZDF측 여성 사회자 메이브리트 일너가 진행했다.

2차 토론은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다음 날인 9월 14일 월요일 오후 9시부터 75분 동안 ARD의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이 방송에는 세 정당의 대표들이 초청되어 베스트벨레(자민당), 트리틴(동맹90/녹색당) 그리고 라폰테인(좌파연합)이 참여했다. 2차 토론을 위해서는 제작 공영방송사인 ARD의 서부독일방송(WDR)과 바이에른방송(BR)에서 각각 한 명의 사회자가 선임되었다.

2009년 소수 정당의 3자 TV토론의 주제는 청소년범죄 → 부가가치세/소득세 → 실업률 → 법적 최저 임금제 도입문제 → 사회정책: 실업자 노후생계를 위한 기본재산(Schonvermögen) → 67세 법정 정년제 도입문제 → 교육정책(대학교 학비 폐지) → 연정(聯政) 가능성 순으로 다루어졌다. 수상후보 양자 TV토론과는 대조적으로, 이 방송에서는 토론자들 간의 직접토론과 상호 반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역동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림 6〉 2009년 ARD 선거방송토론  
'3인 TV토론'

\*사진출처: '슈피겔' 110)



〈그림 7〉 2009년 ARD 선거방송토론  
'3인 TV토론'

\*사진출처: ARD 영상자료

108) <http://medienpolitik.eu/cms/index.php?idcat=84>

109) 이 내용은 ARD 영상자료를 토대로 함. <http://www.tagesschau.de/wahl/aktuell/tvdreikampf102.html>

110)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bild-648983-14539.html>

이 방송의 효과적인 진행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엄격한 발언시간의 규칙을 적용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sup>111)</sup> 또한 한편으로 슈타인마이어에게 불가피했던 역할 충돌 상황도 세 야당 대표들에게는 물론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른 한편으로 두 사회자들 역시 주제에만 집중하며 저널리스트적 임무에 충실했다. 양자 TV토론과 마찬가지로 토론자들은 보조수단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필기도구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선거방송토론에서 나타난 특징은 - 참여하게 대립된 각 정당의 입장 속에서 - 기민/기사연합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던 자민당에 대한 녹색당과 좌파연합의 대립구도(조세제도, 최고 경영자 임금, 원자력)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 야당은 메르켈 정부가 추진하는 67세 법정 정년제 도입과 실업자들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기본재산(Schonvermögen)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견지했으며, 녹색당 트리틴 대표는 이 부분에서 만큼은 소수 야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자민당과 좌파연합의 대표에게 호소하기까지 했다.

트리틴 대표(녹색당): “우리는 회사(정부)를 공동으로 계속 이끌어갈 지에 대한 수상과 수상대리 간에 어제 있었던 대화와는 차별성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세 야당의 원내교섭단체가 공통된 견해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업자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기본재산에 있어서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Wir müssen uns ja abheben von dem Gespräch gestern zwischen der Kanzlerin und ihrem Stellvertreter, ob sie vielleicht die Firma gemeinsam weiter führen, aber an dieser Stelle können wir feststellen, alle drei Oppositionsfraktionen sind der Auffassung, wir müssen beim Schonvermögen etwas machen!”)

라폰테인(좌파연합): “그렇습니다. 모든 세 정당이 동의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Ja, alle drei nur noch zustimmen.”)

3인 TV토론이 개최된 장소는 옛 동베를린 지역에 위치한 ‘에-베르크’(E-Werk)였다. ‘에-베르크’란 독일어로 변전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물은 1881년 독일 산업화 초기에 세워진 후 1946년 독일 분단 이후에는 1973년까지 동베를린 시내 전기 공급을 담당했으며, 그 후 1980년대 중반까지 모든 기능이 정치되고 통독 이전에 동독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었다.<sup>112)</sup> 현재에는 다양한 미디어 제작회사들이 입주해 있으며, 팝 콘서트나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3인 TV토론의 카메라 역시 마치 축구경기중계를 하듯 역동적으로 활용되었다. 공중카메라를 이용하여 철제구조가 남아있는 옛 변전소의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내기도 하였으며, 토론자와 사회자의 주변에서 원을 그리거나, 토론자들의 손동작과 얼굴표정 등을 화면에 가득 담아내기도 하였다(아래 그림 참조).

111) <http://www.superwahljahr.net/1744-TV-Dreikampf-der-Opposition.html>

112) <http://www.ewerk.net/geschichte.0.html>



〈그림 8〉 2009년 ARD 선거방송토론  
‘3인 TV토론’ 토론장 전경

\*사진출처: ARD 영상자료



〈그림 9〉 2009년 ARD 선거방송토론  
‘3인 TV토론’ 토론자와 사회자

\*사진출처: ARD 영상자료

수상후보 양자 TV토론이 개최되었던 아들러스호프 미디어 단지과 마찬가지로 옛 동독의 변전소 ‘에-베르크’에서 생중계된 이 선거방송토론은 독일 통일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청중은 없었으며, 월요일 오후 9시에 시작된 이 방송은 42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어 13,9%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인터넷과 라디오로도 동시에 생중계되었다.

독일 언론은 이 선거방송토론의 진행방식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주간시사지 ‘포커스’(Focus)는 “누가 생각했겠는가? 정보가치를 지닌 TV정치토론은 실제로 아직 가능한 것이다”<sup>113)</sup>며 3인 토론의 진행방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일간지 ‘취트도이체 차이퉁’ 인터넷판은(sueddeutsche.de)은 “적어도 75분은 ‘3자 대결’의 ARD에 게 가치 있는 것이었다”<sup>114)</sup>고 보도했다. 토론방송 직후 일간지 ‘빌트’(Bild)가 10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58%의 응답자가 자민당의 베스트벨레를 1위로 선택했으며, 좌파연합의 라폰테인이 24%, 그리고 동맹90/녹색당의 트리틴은 18%로 뒤를 이었다.<sup>115)</sup>

113) <http://www.superwahljahr.net/1744-TV-Dreikampf-der-Opposition.html>

114) <http://www.sueddeutsche.de/politik/westerwelle-trittin-lafontaine-buchhaltung-im-breitwandformat-1.39175>

115) <http://www.bild.de/politik/2009/tv/westerwelle-lafontaine-trittin-9743738.bild.html>

〈표 5〉 통독 이후의 선거방송토론 (2002-2009)

선거 일	방 송 일	주관 방송사	방송제목 (*강조: 양자토론)	시간	토론자 (*강조: 재임수상)	사회자/패널	시청자 수 (시청률)
2002 9.22	8.25	(민영) RTL, Sat.1	<b>*Das TV-Duell</b> (TV결투)	20:15-21:30 (75분)	<b>*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b>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민/기사연합)	페터 클뤼펠 (RTL) 페터 림부르크 (Sat.1)	1400백98만 (44.6%)
	9.8	(공영) ARD, ZDF	<b>*Das TV-Duell</b> (TV결투)	20:15-21:30 (75분)	<b>*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b>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민/기사연합)	자비네 크리스티안젠 (ARD) 메이브리트 일너 (ZDF)	1526만 (44.9%)
	9.17	ARD	Die Favoriten (후보자)	21:05-22:35	한스 아이헬 재무장관 (사민당) 앙겔라 메르켈 (기민당) 미하엘 글로스 (기사당) 요시카 피셔 외무장관 (동맹90/녹색당) 귀도 베스터벨레 (자민당) 가브리엘레 침머 (민사당, PDS)	볼프강 쾨데미히 (MDR) 만프레드 크롭 (hr)	자료부재
2005 9.18	9.4	(공·민영) ARD, ZDF RTL, Sat.1	<b>*Das TV-Duell</b> (TV결투)	20:15-21:45 (90분)	<b>*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b> 앙겔라 메르켈 (기민/기사연합)	자비네 크리스티안젠 (ARD) 메이브리트 일너 (ZDF) 페터 클뤼펠 (RTL) 토마스 카우쉬(Sat.1)	2097만 (59.7%)
	9.8	ZDF	Der TV-Dreikampf (3인 대결)	21:00-22:00	요시카 피셔 (동맹90/녹색당) 귀도 베스터벨레 (자민당) 오스카 라폰테인 (좌파연합당)	메이브리트 일너	자료부재
	9.12	ARD/ Phoenix (수화)	Die Favoriten (후보자)	21:05-22:35	<b>*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b> 앙겔라 메르켈 (기민/기사연합) 요시카 피셔 (동맹90/녹색당)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사당) 그레고르 기지 (민사당)	볼프강 쾨데미히 (MDR) 알로이스 타이젠 (hr)	600만 (20.3%)
2009 9.27	9.10	ZDF	Der Dreikampf (3인 대결)	21:00-22:00	레나테 퀴나스트 (동맹90/녹색당) 귀도 베스터벨레 (자민당) 그레고르 기지 (민사당)	메이브리트 일너	자료부재
	9.13	(공·민영) ARD, ZDF RTL, Sat.1	<b>*Das TV-Duell</b> (TV결투)	20:30-22:00 (90분)	<b>*앙겔라 메르켈 (기민/기사연합)</b>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사민당)	프랑크 플라스베르크 (ARD) 메이브리트 일너 (ZDF) 페터 클뤼펠 (RTL) 토마스 카우쉬 (Sat.1)	1418만 (42%)
	9.14	ARD	Der Dreikampf (3인 대결)	21:00-22:15	귀도 베스터벨레 (자민당) 오스카 라폰테인 (좌파연합당) 위르겐 트리틴 (동맹90/녹색당)	요르그 쉘렌보른 (WDR) 지그문트 코트립 (br)	420만 (13.9%)

\*출처: 연구자 재구성

#### 4 결론: 제언

이제까지 살펴본 독일 선거방송토론의 장·단점 그리고 독일의 선거방송토론이 현재 당면한 문제들은 한국의 선거방송토론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의 결론에서는 그 동안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제기된 한국 선거방송토론의 개선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토론자 수<sup>116)</sup>

이제까지의 다양한 선행연구들(강지연, 2006; 김춘식, 2006; 권혁남, 2009; 이종희, 2010; 김찬태, 2011)에서는 방송토론이 지니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토론자의 수가 많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토론자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효과적인 토론진행이 어려울뿐더러,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도 전달되기 힘들다. 따라서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권혁남(2009)은 자격기준을 강화시킬 경우, 토론회 참석대상 후보자수를 2-3명으로 압축시킬 수 있어서 양자토론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제까지보다 토론회가 더욱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후보자들에게는 현행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연설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찬태 (2011: 24-27)는 대선토론 참가기준을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제1안과 제2안으로 나누어서 제안하고 있다. 김찬태에 따르면 제1안은

- ①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규정을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상향조정하며,
-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규정을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 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로 상향조정하며,
- ③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를 규

---

116)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실시되었던 선거방송토론에서 토론참여자가 3명이었던 토론회가 77건(34.8%), 4명이 67건(30.3%), 6인 이상이 2건(0.9%)이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6). 2008년 18대 총선에서도 3인 참여 토론회가 69건(35.9%), 4인이 53건(27.6%), 5인이 18건(7.8%), 6인 2건(1.0%), 7인이 1건(0.5%)이었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08).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선거방송토론에서 토론참여자가 3명이었던 토론회가 114건(42%), 4인이 53건(19.6%), 5인 8건(2.9%), 6인 3건(1.1%)로 분석되었다.”(이종희, 2010: 347)

정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후보자”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찬태(2011, 23-27)의 제 2안에서는 초청토론, 비(非)초청토론 구분 없이 모두 초청대상으로 하여 토론을 갖되, 차수별로 초청범위를 달리하는 방안이다. 제2안에 따르면 제 1차 토론에서는 현행의 규정대로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을 벌인 다음, 제2차와 제3차에서는 “국회의석 20석 이상 또는 직전 득표율 10%이상, 또는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토론을 하고, 제4차에서는 제 2, 제3차에 토론에 참석했던 토론자가 모두 참석하거나, 혹은 제2차, 제3차에 해당하는 후보를 지지율 조사로 컷 오프(Cut off)하여 양자대결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찬태의 안은 토론회 참석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참석요건을 강화시킴으로서 토론의 효율성을 찾고자 하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독일의 경우도 군소정당이 토론회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다. 독일의 경우는 양자 토론이 합법한 것으로 법적인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의 양자토론이 가능한 체제가 형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현재와 같은 법체계하에서는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 초청 대상이 7명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김찬태가 제시한 방안이 논의되고 법적으로 하루빨리 정비되어 보다 심도있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토론회 수

선행연구들은 선거 직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선거방송토론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고(김장호, 2006; 구교태, 2008; 이상철, 2002; 권혁남, 2009; 범기수, 2011) 차별적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것도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무관심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구교태, 2008). 선거 이전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토론 이외에 각 언론사들이 각각의 TV토론을 주관함으로써 동일한 인물들이 유사한 주제로 몇 차례씩의 토론을 방송사만 변경해 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TV토론이 세분화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채널별 매체별 차별화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지상파채널 3사인 KBS, MBC, SBS, 그리고 계열지역방송, 또 지역을 세분화한 케이블방송과 방통위의 신설될 종합채널까지 포함해서 방송토론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매체전략과 선관위의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성호(2010)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는 공영방송사가 동시에 생중계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송사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는 서로 다른 주제로 토론회를 주관하거나, 토론회를 방송사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토론형식

선거방송토론의 문제점의 하나로 토론의 형식(Format)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고 있다(김춘식, 2006; 이준웅 외, 2006; 구교태, 2008; 이종희, 2010). 선행연구(한국갤럽, 2002, 송종길, 2003)에 따르면 토론참가자들을 대상의 조사에서 시민포럼형식에 대해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방송토론이 시민포럼형식의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경우, 시민들의 참여도 높이는 동시에 토론의 역동성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후보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보자수가 많을 경우 토론형식의 결정에 있어서 토론 주제의 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토론형식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토론포맷 보다는 1-2가지 주제로 한정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선거방송토론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TV토론에 참여한 후보자의 사전 토론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선거에 참가하는 많은 후보자들이 전문적인 토론교육을 접하지 못한 후보자들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평소에 TV토론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예비 후보자들이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경우 선거방송토론의 질적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지연(2006). “무엇이 효과적인 선거방송토론인가.” 『2006선거방송토론 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75-185.
- 구교태(2008). “17대 대선 TV 토론 점검.” 『신문과 방송』 445호
- 권혁남(2009).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방송토론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언론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서울, 6월
- 김무곤(2008). “미디어 정치와 민주주의”, 푸른세상, 158-159
- 김장호(2006). “5.1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을 돌아보며.” 『2006 선거방송토론백서』, 186-191
- 김찬태(2011). “제18대 대선 후보 법정 TV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방송토론세미나: 2012 양대 선거의 방송토론 활성화 방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5-36
- 김춘식(2006). “TV토론의 법적 규제 및 개선방안”, 『2006 선거방송토론백서』, 142-152
- 범기수(2011). “선거방송토론의 유권자 관심 증대 및 시청률 제고 방안” 선거방송토론세미나: 2012 양대 선거의 방송토론 활성화 방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37-57
- 송종길(2003). “대통령후보 TV합동토론 형식(Format) 비교연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최 합동토론회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2권, 109-130.
- 심영섭(2002). “독일 총선 TV토론과 언론보도”, 한국언론재단, 『저널리즘평론』 2002년 11호, 통권 12호, 169-203
- 이상철(2002). “선거토론과 민주주의 : 토론, 텔레비전, 선거, 대통령, 그리고 유권자, 대통령 후보 TV토론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토론회 자료집, 3-22.
- 이종희(2010). “선거방송토론 제도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연구』, 창간호, 343-370
- 이준웅, 김관규, 구교태(2006). “바람직한 선거방송토론 모형 개발”, 한국언론학회
- 정성호(2010).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토론회 비교·분석.”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평가세미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정창화 · 윤종빈 · 조지현 · 김연중 · 강내원(2008). 『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환경분석 및 제도평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토론 개최결과 평가 세미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04). “독일의 TV토론 체계와 방송사의 역할”, 『해외 선거방송과 TV토론』, 15-39.

한국갤럽(2002). 『KBS 대선후보 초청 국민포럼 평가』.내부조사 자료, 한국갤럽

## 외국문헌

Breuer, Thomas(2006). “Die Fernsehduell der Spitzenkandidaten von SPD und CDU/CSU im Bundestagswahlkampf 2002”, Univ.-Diss., Bonn

Jackob, Nikolaus(2007). “Wahlkämpfe in Deutschland, Fallstudien zur Wahlkampf-Kommunikation 1912-2005”, Wiesbaden

Kuhn, Yvonne(2007). “Professionalisierung deutscher Wahlkämpfe? Wahlkampagnen seit 1953”, Wiesbaden: DUV

Mauer, Marcus; Reinemann, Carsten(2003). “Schröder gegen Stoiber. Nutzung, Wahrnehmung und Wirkung der TV-Duelle”, Westdeutscher Verlag: Wiesbaden

Maurer, Michael(2008). “Kulturgeschichte”, Böhlau: Köln, Weimar, Wien

Müller, Albrecht(1999). “Von der Parteiendemokratie zur Mediendemokratie”, Leske+Budrich: Opladen

Rosumek, Lars; Ackermann Eduard(2007). “Die Kanzler und die Medien: acht Porträts von Adenauer bis Merkel”, Campus: Frankfurt/Main

Scheurle, Christoph(2009). “Die deutschen Kanzler im Fernsehen. Theatrale Darstellungsstrategien von Politikern im Schlüsselmedium der Nachkriegsgeschichte”, transcript verlag: Bielefeld

Schmied, Babara(2004). “50 Jahre Abendschau”. Martin Meidenbauer: München

Volkman, Ute(2002). “Massenmedien und ihre Wirklichkeitsbilder: zwischen Inszenierung und Aufklärung”, in: Volkman, Ute; Schimank, Uwe(Hrsg.). Soziologische Gegenwartsdiagnosen II., Opladen: Leske+Budrich, 87-113.

Wilke, Jürgen; Spiller, Jutta(2006). “Radiotage, Fernsehjahr. Interdisziplinäre Studien zur Rundfunkgeschichte nach 1945” Lit Verlag: München

## 번역서

우베 쉬만크(2011).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앙’ - 사회적 배제 경향에 대한 피에르 부르디외의 분석”, 『현대사회를 진단한다. 사회진단의 사회학』, 한독사회학회 옮김, 서울: 논형, 223-242.

## 인터넷 자료 (중복된 주소 제외)

### 1. 검색기간: 2011.6.30-2011.7.30

#### 독일 공영방송사

- 4) <http://web.ard.de/ard-chronik> (ARD 연대기 홈페이지)
- 7) [www.br-online.de/download/pdf/alpha/a/appel\\_reinhard.pdf](http://www.br-online.de/download/pdf/alpha/a/appel_reinhard.pdf) (바이에른 방송사)
- 10) <http://www.zdf.de/ZDFmediathek/suche>, 검색어: Helmut Kohl (ZDF 미디어테크)
- 29) [http://www.phoenix.de/historische\\_debatten/2005/08/25/0/35941.html](http://www.phoenix.de/historische_debatten/2005/08/25/0/35941.html) (피닉스 방송사)
- 32) <http://web.ard.de/ard-chronik/>, 검색어: 11.10.1960. (ARD 연대기 홈페이지)

#### 일간지

##### - 디 차이트(Die Zeit)

- 9) <http://www.zeit.de/1973/18/schmierentheater>
- 12) <http://www.zeit.de/1973/18/schmierentheater>
- 19) <http://www.zeit.de/1973/18/schmierentheater>
- 46) <http://blog.zeit.de/zweitstimme/category/wahlkampf/tv-duelle/page/2/>
- 62) <http://www.zeit.de/1973/18/schmierentheater>

##### - 타게스슈피겔 (Tagesspiegel)

- 16) <http://www.tagesspiegel.de/medien/weg-vom-duellchen/1600274.html>
- 39) <http://www.tagesspiegel.de/medien/weg-vom-duellchen/1600274.html>
- 42) <http://www.tagesspiegel.de/medien/wenn-sie-da-hingehen-geht-die-fdp/344234.html>
- 94)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567412.html>

##### - 디 벨트 (Die Welt)

- 24) 사진출처: [http://www.welt.de/politik/article1382519/Jutta\\_Ditfurth\\_ueber\\_Ulrike\\_Meinhof.html](http://www.welt.de/politik/article1382519/Jutta_Ditfurth_ueber_Ulrike_Meinhof.html)
- 53) [http://www.welt.de/print-welt/article386571/FDP\\_erwaegt\\_Klage\\_gegen\\_TV\\_Duell.html](http://www.welt.de/print-welt/article386571/FDP_erwaegt_Klage_gegen_TV_Duell.html)
- 57) [http://www.welt.de/print-welt/article397651/TV\\_Duell\\_Westerwelle\\_wird\\_von\\_ARD\\_und\\_ZDF\\_nicht\\_eingeladen.html](http://www.welt.de/print-welt/article397651/TV_Duell_Westerwelle_wird_von_ARD_und_ZDF_nicht_eingeladen.html)

- 쥐트도이체 차이퉁(Sueddeutsche Zeitung)

100) <http://www.sueddeutsche.de/politik/tv-duell-merkel-vs-steinmeier-das-duell-geraet-zum-duett-1.48062>

-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41) <http://www.faz.net/artikel/C30189/woerter-see-fernsehduell-30113726.html>

54) <http://www.faz.net/artikel/C30189/fdp-westerwelle-und-das-tv-duell-der-finale-akt-30261785.html>

55) <http://www.faz.net/artikel/C30189/wahlkampf-westerwelle-erster-kanzlerkandidat-der-fdp-30117875.html>

59) <http://www.faz.net/artikel/C30189/medienwahlkampf-fdp-klagt-gegen-ausschluss-vom-tv-duell-30140839.html>

63) <http://www.faz.net/artikel/C30189/tv-duell-die-fdp-will-klagen-30139255.html>

67) <http://www.faz.net/artikel/C30189/tv-duell-die-fdp-will-klagen-30139255.html>

83) <http://www.faz.net/aktuell/politik/tv-duell-notar-ueberwacht-tv-duell-173725.html>

86) <http://www.faz.net/aktuell/politik/tv-duell-notar-ueberwacht-tv-duell-173725.html>

- 네츠차이퉁(netzzeitung.de)

56) <http://www.netzzeitung.de/1/195668.html>

## 주간 시사 잡지

- 슈피겔(Der Spiegel)

11)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6274017.html>

14)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6274076.html>

15)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5562600.html>

17)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5562600.html>

20)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2805515.html>

21)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2891260.html>

22)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2787493.html>

30)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320117.html>

38)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5562600.html>

43)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41146993.html>

45)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14323370.html>

51)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a-177605.html>

52)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178293,00.html>

59)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204230,00.html>

82) <http://www.spiegel.de/spiegel/print/d-22151011.html>

84)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208543,00.html>

85)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208543,00.html>

101) <http://www.spiegel.de/politik/deutschland/0,1518,648742,00.html>

- 포커스 (Focus)

- 81) [http://www.focus.de/kultur/medien/fernsehen-staatsakt-tv-duell\\_aid\\_204188.html](http://www.focus.de/kultur/medien/fernsehen-staatsakt-tv-duell_aid_204188.html)
- 91) [http://www.focus.de/finanzen/news/top-sendungen-2005\\_aid\\_16423.html](http://www.focus.de/finanzen/news/top-sendungen-2005_aid_16423.html)
- 93)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wahlen-2009/bundestagswahl/tv-duell-steinmeier-fordert-merkel\\_aid\\_435419.html](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wahlen-2009/bundestagswahl/tv-duell-steinmeier-fordert-merkel_aid_435419.html)
- 102) [http://www.focus.de/panorama/vermischtes/fernsehrunde-merkel-und-steinmeier-sagen-ab\\_aid\\_436560.html](http://www.focus.de/panorama/vermischtes/fernsehrunde-merkel-und-steinmeier-sagen-ab_aid_436560.html)
- 103) [http://www.focus.de/finanzen/news/medien-analyse-keiner-ist-gluecklich-mit-dem-tv-format\\_aid\\_435543.html](http://www.focus.de/finanzen/news/medien-analyse-keiner-ist-gluecklich-mit-dem-tv-format_aid_435543.html)
- 105) [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wahlen-2009/bundestagswahl/guido-westerwelle-fdp-chef-will-tv-duell-stoppen\\_aid\\_434680.html](http://www.focus.de/politik/deutschland/wahlen-2009/bundestagswahl/guido-westerwelle-fdp-chef-will-tv-duell-stoppen_aid_434680.html)

기타

- 독일 위키페디아 백과사전

- 1) <http://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 2) <http://de.wikipedia.org/wiki/ARD>
- 5) <http://de.wikipedia.org/wiki/Fernsehen>
- 31) <http://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 34) <http://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 40) <http://de.wikipedia.org/wiki/Fernsehduell>
- 49) <http://de.wikipedia.org/wiki/Duell>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 65)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
- 68)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
- 70) [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http://www.bundesverfassungsgericht.de/entscheidungen/rk20020830_2bvr133202.html)

-자르란트 대학교

- 72) [www.uni-saarland.de/fileadmin/user\\_upload/.../10-Westerw-HP.pdf](http://www.uni-saarland.de/fileadmin/user_upload/.../10-Westerw-HP.pdf)
- 74) [www.uni-saarland.de/fileadmin/user\\_upload/.../10-Westerw-HP.pdf](http://www.uni-saarland.de/fileadmin/user_upload/.../10-Westerw-HP.pdf)
- 76) [www.kas.de/wf/doc/kas\\_1043-544-1-30.pdf](http://www.kas.de/wf/doc/kas_1043-544-1-30.pdf) (콘라드 아테나우어 재단)
- 77) <http://idw-online.de/pages/en/news51345> (정보 사이트)
- 79) <http://politik-digital.de/edemocracy/wahlkampf/bundestagswahl2002/tv4.shtml> (정치 디지털)
- 88) <http://medienpolitik.eu/cms/index.php?idcatside=233> (미디어정치)
- 89) [http://www.rhetorik.ch/Aktuell/05/09\\_04.html](http://www.rhetorik.ch/Aktuell/05/09_04.html) (레토릭 스위스)
- 92) <http://medienpolitik.eu/cms/index.php?idcatside=91> (미디어 정치)
- 99) <http://www.infratest-dimap.de/bundestagswahl09/tv-duell/> (여론조사기관: 인프라테스트 뎀넵)
- 106) <http://medienpolitik.eu/cms/index.php?idcat=84> (미디어 정치)

## 영상자료

- 2009년 수상후보 양자 TV토론

91) <http://www.tagesschau.de/multimedia/video/video567412.html>

- 2009년 소수 정당대표 3인 TV토론

105) <http://www.tagesschau.de/wahl/aktuell/tvdreikampf102.html>

- 1969-1987 엘레판텐룬데

23) [www.youtube.com](http://www.youtube.com) (검색어: Kämpfe ums Kanzleramt)

25) <http://www.zdf.de/ZDFmediathek/suche>, 검색어: Helmut Kohl, 2010년 3월 30일 동영상)

26) <http://www.zdf.de/ZDFmediathek/suche>, 검색어: Helmut Kohl, 2010년 3월 30일 동영상)

## 2. 검색기간: 2011.10.13

- 독일 민주시민교육 연방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 [http://www.bpb.de/die\\_bpb/04309502558076112983648580539468,0,0,Funktionen\\_der\\_Massenmedien\\_in\\_der\\_Demokratie.html#art0](http://www.bpb.de/die_bpb/04309502558076112983648580539468,0,0,Funktionen_der_Massenmedien_in_der_Demokratie.html#art0)

2) [http://www.bpb.de/suche/?all\\_search\\_action=search&all\\_search\\_text=heft+309](http://www.bpb.de/suche/?all_search_action=search&all_search_text=heft+309)

